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연관 키워드를 활용한 스토리 구성

- 추사 김정희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박 민 희

2014년 8월

# 연관 키워드를 활용한 스토리 구성

- 추사 김정희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양진건

박민희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박민희의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맹 하 ㉠

위     원     김 한 일 ㉠

위     원     양 진 건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4년 8월

# Composition of A Story Using Relevant Keywords

: Podcast of Chusa Kim Jeong-Hee

**Park, Min-Hee**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in-Ge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Storytelling).

2014.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Date \_\_\_\_\_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국문초록 .....	viii
Abstract .....	x
<b>I. 서론</b> .....	<b>1</b>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범위 .....	2
1) 연구 방법 .....	2
2) 연구 범위와 제한점 .....	3
<b>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b> .....	<b>5</b>
1. 소셜미디어의 이해 .....	5
1)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확산 배경 .....	5
2) 마이크로블로그의 특성 .....	6
2. 선행 연구 .....	10
1) 연관 키워드 및 동시출현단어분석에 관한 연구 .....	10
2) 트위터에서 추출한 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	11
<b>III. 트위터 데이터를 이용한 연관 키워드 추출</b> .....	<b>12</b>
1. 트윗 정보 수집 .....	13
2. 데이터 전처리 .....	15
1) 명사 추출 .....	15
2) 불용어 제거 .....	17
3) 명사 빈도수 계산 .....	19
4) 사용자 정의 사전 구축 .....	19
3. 최종 추출된 명사 분류 및 그룹화 .....	21

<b>IV. 연관 키워드를 활용한 스토리 구성 및 팟캐스트 제작</b> .....	<b>24</b>
1. 연관 키워드를 활용한 스토리 구성 방법 .....	24
2. 팟캐스트의 제작 .....	26
1) 팟캐스트의 이해 .....	26
2) 팟캐스트 제작의 실제 .....	29
3) 팟캐스트 실연 .....	41
3. 팟캐스트의 활용방안 .....	42
<b>V. 결론</b> .....	<b>43</b>
1. 결론 .....	43
2. 제언 .....	44
<b>참고문헌</b> .....	<b>45</b>
<b>부록</b> .....	<b>47</b>

# 표 목 차

<표 1> 트위터 표현방식의 구분 .....	9
<표 2> 분석에 사용한 트윗 예시 .....	14
<표 3> 트윗 데이터의 형태소 분석 및 명사 추출 .....	15
<표 4> 세종 계획 품사 집합표 .....	17
<표 5> 데이터 제거 규칙 목록 .....	18
<표 6> 데이터 불용어 제거 후 명사수 집계 .....	18
<표 7> 사용자 정의 사전 구축 단어의 예시 .....	20
<표 8> 최종 추출된 명사 분류 및 그룹화 .....	22
<표 9> 추출된 키워드를 이용한 스토리구성 과정 .....	25
<표 10> 팟캐스트 특징 .....	27
<표 11> 팟캐스트 ‘굴중옥의 하루’ 기획안 .....	29

##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방법의 절차 .....	3
<그림 2> 소셜미디어 소통방식 .....	6
<그림 3> ‘추사 김정희’ 키워드를 포함한 트윗 화면 .....	12
<그림 4> 트윗을 이용한 연관 키워드 추출 전체 모형 .....	13
<그림 5> 애드코프 연관 키워드 검색화면 .....	20
<그림 6> 최종 추출된 연관 키워드 도식화(빈도수 기준) .....	21
<그림 7> 팟캐스트 구현 방식 .....	28
<그림 8> ‘Reaper’ 프로그램을 이용한 오디오 편집 화면 .....	40
<그림 9> 아이튠즈에 XML Feed Url 주소 등록 화면 .....	40
<그림 10> 아이튠즈(상)와 아이폰(하)에서 실연 모습 .....	41



## 【국문초록】

# 연관 키워드를 활용한 스토리 구성

- 추사 김정희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

박 민 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지도교수 양 진 건

본 연구는 유배지의 힘든 시간 속에서도 추사체를 완성하고 세한도를 그려낸 추사 김정희의 삶을 스토리로 만들어 웹 2.0 미디어인 팟캐스트로 정기적으로 배포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먼저 이야기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개인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상생활이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이 빈번해졌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마이크로블로그에서 ‘추사 김정희’를 포함한 문장을 수집하고 연관 키워드를 활용하여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연관 키워드 파악을 하기 위해 2012년 1월~2014년 5월까지 ‘추사 김정희’ 단어가 출현한 트윗을 대상으로 명사의 동시출현분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베이스

화 된 데이터를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 구문 분석하여 명사만을 추출하였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과 사용자 정의 사전 구축을 통해 ‘추사 김정희’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명사를 추출하고 빈도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는 ‘추사체, 제주, 그림, 세한도, 책, 귀양살이, 유배지, 정약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함께 수집된 키워드를 살펴보면 스토리 구성에 사용 적합한 소재는 풍부했으나 대부분 조각난 정보의 파편으로 존재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글쓰기 있어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해 소재를 찾는 방법과 추출된 정보를 조합하고 재배치하여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최종 결과물로는 음성 녹음한 스토리를 팟캐스트(Podcast) 에피소드로 배포하였다.

연구의 과정을 통해 소셜미디어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트위터의 의사소통 공간을 분석함으로써 일반인이 ‘추사 김정희’ 인물에 대해 어떤 관심을 표출하는지 알아보았으며, 이를 이야기의 소재로 활용하여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과정별 연구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사 김정희’와 함께 작성된 문장을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연관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었다. 둘째, 소셜미디어에 작성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여 제작한 에피소드 구성은 구독자들에게 보다 신뢰감 있고 관심이 반영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음성콘텐츠(Voice contents)를 제작하고 소셜(Social) 매체를 통해 배포함으로써 공유와 소통이 가능해졌다.

끝으로 제작된 팟캐스트가 추사 김정희의 유배의 가치를 제고하는 역사스토리텔링 자료로써 사용되고 체험형콘텐츠로써 지역의 역량강화의 모델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연구 연구방법의 객관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관 키워드 추출 시 서로 다른 품사집합으로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제작된 팟캐스트의 평가 및 활용 범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Abstract】**

**Composition of A Story Using Relevant Keywords  
: Podcast of Chusa Kim Jeong-Hee**

**Park, Min-Hee**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in-Geon**

This study started with the idea of composing a story of the life of Chusa Kim Jeong-Hee, who completed the *Chusache* (Chusa writing style) and drew the Saehando even in hard times of exile, and distributing it on a regular basis in a podcast, Web 2.0. To begin looking for material for the story, based on the fact that private individuals often express and share their ideas and feelings on daily life or various issues through social media, I found a way to utilize co-occurring words to provide keywords for the story by collecting sentences containing 'Chusa Kim Jeong-Hee' on a microblog, which is a social media service.

In order to find relevant key words, from January, 2012 to May, 2014, I carried out an analysis targeting the nouns appearing in tweets containing 'Chusa Kim Jeong-Hee'. Analyzing the sentence structure of the data in the database with the Korean Morphological Analyzer, I extracted only nouns.

Establishing a data preprocessing operation and user-defined dictionary, I calculated the nouns and the frequency with which they often show up in documents along with the words 'Chusa Kim Jeong-Hee'.

The results appeared to be 'Chusache, Jeju, picture, Saehando, living in exile, the place of exile, book, Jeong Yagyong etc..' in that order. Looking at the keywords collected together, there are many materials suitable for composing a story, but they are mostly pieces of fragmentary information.

This study presented, for general writing, a way of finding material through analysing social media, and of composing a story by combining and rearranging the extracted information. Finally the story was recorded by voice and the final result was distributed in podcast episodes.

The process of the study showed what interests ordinary people have about the figure 'Chusa Kim Jeong-Hee' by analysing the communication space of Twitter, considered typical social media, and how to compose a story using that as material. The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eaningful and relevant keywords can be extracted from words occurring with 'Chusa Kim Jeong-Hee'.

Second, composition of an episode produced by analysing the information written in social media and using it as writing material will provide readers with more reliable information that reflects their interests.

Third, Sharing and communication are made possible by making voice content related to Chusa Kim Jeong-Hee and distributing it through social media.

Lastly, I hope that this podcast will be used as material for further historical storytelling that values Chusa's life during exile and will be utilized as a model of community empowerment as hands-on content. In order to secur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is study method in the future, I suggest that data should be collected from various social media and that the scope of extracting the relevant keywords should be expanded to other word classes. I also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analyse the evaluation and limits of the produced podcast.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에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일반 대중들이 많은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고 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중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 서비스가 대중적인 정보전달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마이크로블로그는 짧은 글자 수 제한과 모바일에 최적화된 쉽고 빠른 정보 전송을 무기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간단한 문장 형태로 남길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마이크로블로그는 정보의 개방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용자들이 특정 인물과 사건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며, 유용한 정보를 공유, 검색하거나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sup>1)</sup>

마이크로블로그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대중의 관심사를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평가를 위해 마이크로블로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선거와 관련된 대중의 관심 파악, 특정 속보의 발 빠른 확인 등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제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매체가 만들어 주는 콘텐츠를 소비하기만 했던 일방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제작하고 이를 배포함으로써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프로슈머(Prosumer)<sup>2)</sup>로 바뀐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진보와 모바일의 보급은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가 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 정보를 생산, 배포, 관리를 담당하는 1인 미디어를 탄생시켰다. 그 중 주목되는 뉴 미디어어의 하나가 팟캐스트(Podcast)이다.

1) 최돈정 외 (2011), 「마이크로블로그를 통한 그래프 기반의 토픽 추출에 관한 연구」,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Vol.21, p.564-568 참조.

2) [위키백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생산 소비자 또는 참여형 소비자라고도 한다. '프로슈머'라는 단어는 1980년 앨빈 토플러가 『제3물결』에서 최초로 사용했다.

본 연구는 ‘추사 김정희’ 콘텐츠를 활용한 이야기를 만들어 웹 2.0 환경에 적합한 팟캐스트로 배포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이야기 구성의 소재를 찾는 방법으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생활이나 다양한 인물에 대해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이 빈번해졌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야기를 구성할 때 창작의 영감이 아닌 소셜미디어에서 일반 대중이 갖는 성향을 먼저 알아보고 추출된 정보를 소재로 활용하는 새로운 이야기 구성 방식을 제안해 보았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블로그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트위터<sup>3)</sup>에서 2012년 1월~2014년 5월까지 한국어로 작성된 본문 중 ‘추사 김정희’를 포함하는 트윗을 수집하고, 고려대학교의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 구문 분석을 한 뒤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통해 불용어(Stopword)<sup>4)</sup>와 불필요한 URL정보를 제거한다. 핵심어를 포함한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계량정보학분야에서 내용 분석을 위해 많이 쓰이는 동시출현단어분석법을 이용하여 ‘추사 김정희’와 함께 문서에 자주 나타나는 명사를 추출한다. 이때 ‘추사 김정희’와 함께 작성된 문장 속 키워드들은 서로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빈도수가 높은 단어일수록 공통의 관심과 추천의 성향을 대표한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단어를 그룹화하고 나열된 연관 키워드를 조합·재배치하여 이야기를 구성한다. 연구의 결과 물로는 추출된 소재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를 음성 녹음하여 팟캐스트로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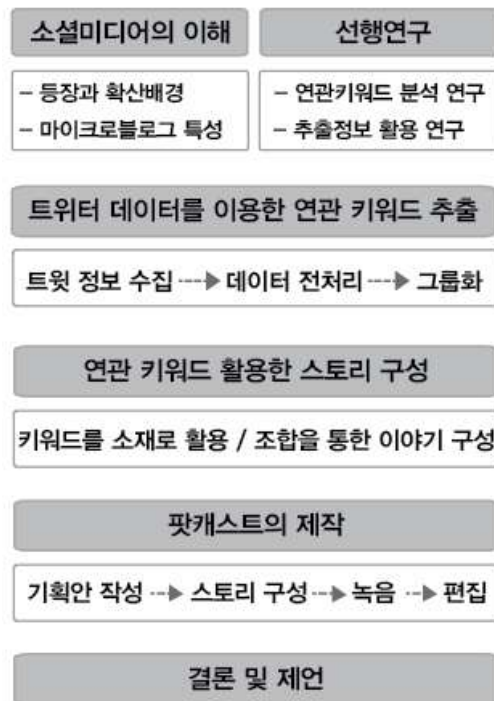
3) [블로터닷넷 기사: 트위터 분석의 핵심은 키워드와 영향력(2011.5.24)] 트위터 이용자가 하루에 올리는 트윗은 전 세계 1억7천만개, 국내는 300만개 정도이다. 국내 이용자 트윗만 해도 한 달에 9천만개이다. 트윗은 트위터에 올리는 글을 말한다.

4)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 관사, 전치사 등 검색 색인 단어로 의미가 없는 단어

포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연관키워드 분석과 이를 이용한 선행연구에 대해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수집한 트윗 정보를 이용하여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고 빈도수를 산출한 뒤 유사한 특성을 갖는 단어를 그룹화했다. 4장에서는 추출된 연관 키워드를 활용하여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법과 팟캐스트 제작을 위해 이야기를 음성 녹음·제작·배포하는 전 과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림 1> 연구 방법의 절차



## 2) 연구 범위와 제한점

마이크로블로그의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이 있다. 여러 서비스 중에서 트위터를 선택한 이유는 관계 맺기 뿐 아니라 많은 주제

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고, 이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수다에서 담론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여론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트윗을 작성 시 140자 이내 단문으로 한정 지어놓아 짧은 문장 내에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포함하도록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에 보다 간결한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소셜미디어의 이해

#### 1)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확산 배경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과 소통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통의 욕구가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만나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인간의 의사소통 영역은 더욱 확장되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 대중들의 의사와 논의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포럼과 의제설정 및 여론형성에 영향력 있는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sup>5)</sup>.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 툴과 미디어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의사소통 행위가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간의 소통 방식은 더욱 다양화되었다. 소셜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일상생활이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이 빈번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제에 대하여 저마다의 생각을 작성하고, 이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소셜미디어는 이미 기성 언론이나 인터넷 게시판이 가지던 여론 형성 기능과 맞먹는 정도의 여론의 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화제나 단어에 대하여 관심과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장소로써 소셜미디어가 큰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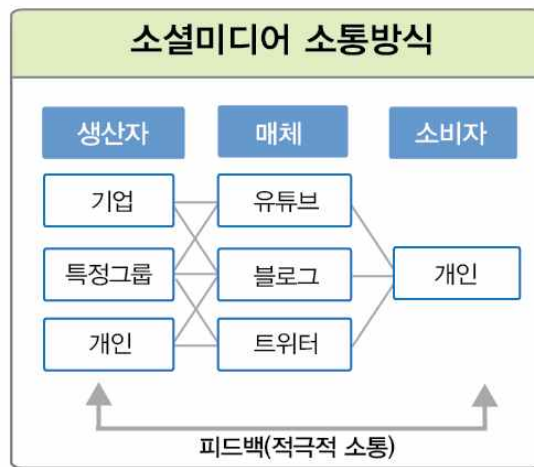
소셜미디어의 발전에는 웹 2.0<sup>6)</sup> 패러다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웹 2.0 패러다임은 개방, 참여, 공유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를

5) 송민 (2014), 「텍스트마이닝으로 마음읽기」, Future Horizon Spring 2014 제20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8 참조.

6) [네이버 백과사전] 2004년 10월 오라일리미디어사(O'Reilly Media, Inc.)의 대표인 팀 오라일리(Tim O'Reilly)에 의해 도입된 개념이다. 웹2.0은 기술을 뜻하는 용어가 아니라 웹이 곧 플랫폼이라는 의미이다.

개방성과 확장성이라는 특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및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한다. 이런 소셜미디어의 특징은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미디어와 이용자 개념의 경계를 소멸시키고, 미디어와의 일방적인 콘텐츠 유통이 아닌 양방향 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사람들은 다양한 미디어의 조합이나 링크 등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확대, 재생산한다.

<그림 2> 소셜미디어 소통방식



## 2) 마이크로블로그의 특성

마이크로블로그란 한 두 문장 정도 분량의 단편적 정보를 관심이 있는 개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통신 방식으로, ‘블로그 + 메신저’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대표되는 서비스로는 트위터와 미투데이 등이 있다.

마이크로블로그는 일반적인 블로그나 다른 소셜미디어와는 달리 간단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포스팅(Posting)<sup>7)</sup>하면서 타 이용자와 마치 대화를 하듯이 상호작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들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다면,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는 자신의

7) [네이버 지식백과] 인터넷 상에 글을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우편물을 보내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는 것이 자유스럽다는 것이 특징이다.

활동, 의견과 상황들에 대한 일상적이고 간단한 메시지들이 이용자를 통해 전달되고 공유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마이크로블로그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빠른 소통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웹 기반의 특징을 뛰어넘어 스마트폰의 인기와 무선인터넷의 활용을 통해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런 특징은 정보를 신속하게 생산·유통하게 하여 개인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기존의 웹서비스와는 달리 작성한 글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반응도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빠른 정보 전달과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알아보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한다.<sup>8)</sup>

다양한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마이크로블로그가 주목을 받는 것은 그 기술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제한된 단문 메시지가 초기에는 한계로 인식되었으나 오히려 이용자들이 손쉽게 콘텐츠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블로그는 이용자가 긴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마이크로블로그에서는 한두 문장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많은 이용자<sup>9)</sup>를 확보하고 있다.

트위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이다. 2006년에 개발자가 친구들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단문 메시지 서비스의 필요성 때문에 제작한 서비스로 글쓰기 용량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 일반 블로그와 다르다. 한 번 쓸 때 140자를 초과하여 쓸 수 없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와 유사하다. 초기에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 사적인 내용을 주고받는 공간으로 주로 이용되었지만 현재는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을 트위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적인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sup>10)</sup> 사람들은 트위터를 통해 트윗이라 불리는 단문 메시지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올린 트윗들을 팔로잉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그리고 리트윗을 통해 다른 사람이 올린 트윗을 재생산해 낼 수 있고 멘션과 답장을 통해 특정 사람에게 메시지

8) 최미란 (2010), 「마이크로블로그 이용 동기가 미디어 기능 인식과 활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p.15-17 참조.

9) 2013년 4월 기준 국내 트위터 가입자 수는 600만 명에 이른다.

10) 배경선 (2012), 「소셜미디어의 소통 방식 연구: 트위터의 표현 방식과 소통 구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p.12-13 참조.

를 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유롭고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바탕으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트위터 상에서 빠르게 퍼져 나간다.<sup>11)</sup> 따라서 트윗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트렌드를 추출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추출한 트렌드를 기업의 마케팅, 여론 조사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최근 이와 관련된 많은 웹 서비스<sup>12)</sup>들이 개발되고 있다.<sup>13)</sup>

트위터는 소셜미디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가 가지는 참여, 개방, 대화, 커뮤니티, 연결이라는 특성들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웹이 더 이상 지식과 정보의 게시 및 저장의 장소가 아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과 정보의 생산에 참여하는 공간이 됨에 따라 사용자는 지식과 정보 생산의 주체가 되고, 지식과 정보는 개방되며, 이 지식과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자유롭고, 쉬우며, 빨라졌다.<sup>14)</sup> 또한 트위터는 의사전달 구조로 인한 특징도 갖는다.

첫째, 관계맺기의 ‘일방향성(unilaterality)’으로 다른 말로 하자면 ‘일방적 구독’이다. 어떤 트위터 이용자 A가 다른 트위터 이용자 B를 구독(팔로잉)을 하면 B의 동의 없이 그의 구독자(팔로워)가 된다. 즉, 트위터에서 구독을 할 때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며 트위터의 이용자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둘째, ‘간편성(simplicity)’이다. 이것은 마이크로블로그의 특성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이용자는 140자 이내의 메시지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 단문 메시지를 주고받듯이 짧은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음성언어로 즉각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과 유사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한두 문장의 짧은 문장으로 한 번에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 반어, 함축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셋째, ‘확장성(expandability)’이다. 이것은 트위터의 리트윗 기능에 해당한다. 리트윗 기능을 통해서 내 트위터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팔로워들의 트위터에서도 바로 볼 수 있으며, 나의 팔로워들이 또 리트윗을 하게 되고 그 과정

11) 강성진(2013), 「군집화 기법과 문서 순위를 이용한 한국어 트윗 상의 토픽 추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p.1 참조.

12) <http://trendsmap.com>, <http://whatthetrend.com>, <http://www.twinitor.com> 등

13) 류우중 외 (2013), 「토픽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트위터 트렌드 추출」, 한국정보과학회 제40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한국정보과학회, p.191-193 참조.

14) 배경선 (2012), 앞의 논문. p.1-9 참조.

이 반복되면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되게 된다.<sup>15)</sup>

트위터는 우리의 일상 의사소통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수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또한 어떤 분야의 전문가의 트위터를 구독함으로써 그 전문가가 생산해 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정서를 느낄 수도 있다. <표 1>는 트위터에서 표현방식에 대한 구분이다.

<표 1> 트위터 표현방식의 구분

구분	내용
간소화된 표현	트위터의 미디어 자체에서 기인하는 글자수의 제약과 관련이 있는 특성임. 글자 수의 제한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짧으면서도 명료하게 줄여서 표현해야함.
대화적 표현	대화란 두 사람 이상의 대화 참여자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순서 교대에 의해 바꾸어 가며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함.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와 마치 면대면으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싶은 욕구가 반영되어 문어 소통보다는 구어 소통에 가까운 양상을 보임.
복합적 표현	링크(Link) 기능을 통해서 트위터의 글과 관련된 그림, 음악, 동영상 등을 문자 언어와 함께 구성하는 표현을 말함. 복합적 표현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언어 차원만의 소통보다 더욱 정확한 의미를 주고받을 수 있고, 더욱 신속하게 전달할 수가 있음.

출처: 배경선 (2012), 앞의 논문, p.23-31 재구성.

15) 허상희(2011),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트위터(Twitter)의 소통 구조에 관한 고찰」, 『우리말연구』, 우리말학회, p.259-283 재구성.

## 2. 선행 연구

### 1) 연관 키워드 및 동시출현단어분석에 관한 연구

연관 키워드 분석은 사용자가 입력한 특정 키워드와 동시에 출현한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연관 키워드에 관한 연구는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기업의 키워드 광고 및 상품 추천 전략에 이용하기 위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성진 (2004)은 「키워드 샵에서의 상품 추천을 위한 연관 키워드 그룹 추출 기법」<sup>16)</sup>에서 상품의 효과적인 관리 및 판매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특정 키워드에 대한 연관 키워드를 추출해주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텍스트 정보를 분석하여 중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검색 키워드와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연관 키워드 그룹을 추출하는 기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길홍 외 (2011)는 「효율적인 문서 검색을 위한 연관 키워드 추출 및 확산 클러스터링 방법」<sup>17)</sup>에 관한 연구에서 문서들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특정 주제어와 상호 긴밀히 연관된 키워드들을 제시하는 기법과 추출된 연관 키워드 항목집합 중에서도 유사성이 높은 항목집합들을 클러스터링 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최근 마이크로블로그에서 단어의 동시 발생빈도를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풍부한 토픽 연관 단어를 추출하고 단어 간 연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토픽의 의미는 ‘화제가 되는 키워드’, ‘화제가 되는 키워드와 관련된 이야깃거리’라고 정의한다.

최돈정 외 (2011)는 「마이크로블로그를 이용한 토픽 추적에 관한 연구」<sup>18)</sup>에서는 마이크로블로그를 이용해 전달되는 정보는, 기존의 정보매체에 비해 사용자들의 관심 변화를 보다 빠르게 반영하며, 다양한 정보 출처로부터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단어의 동시 발생빈도를

16) 이성진 (2004), 「키워드 샵에서의 상품 추천을 위한 연관 키워드 그룹 추출 기법」,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17) 주길홍 외 (2011), 「효율적인 문서 검색을 위한 연관 키워드 추출 및 확산 클러스터링 방법」, 한국정보기술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9권 제6호, p.155-166.

18) 최돈정 외 (2011), 「마이크로블로그를 이용한 토픽 추적에 관한 연구」,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1권 제1호, p.80-82.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풍부한 토픽 연관 단어를 추출하고 단어 간 연관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토픽 추적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진설아 외 (2013)는 「트위터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 토픽 변화 추적 연구」<sup>19)</sup>에서 트위터 데이터에서 특정단어에 관한 키워드를 추출한 후, 동시출현 단어분석을 이용하여 토픽과 관련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출현빈도 기반의 시계열 분석과 LDA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여 대중의 의견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 2) 트위터에서 추출한 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트위터를 이용해 정보 추출, 추적하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에 비해 정보를 활용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부분 트윗 속성을 분석하여 추천에 이용한 연구들이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는 최홍구 외 (2012)가 연구한 「트위터 문서 분석을 통한 감정 기반의 음악 추천 시스템」<sup>20)</sup>이다. 트위터를 추출한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음악 추천 기법을 제안하고 그 만족도를 측정하여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김태은 (2012)이 연구한 「SNS기반의 개인화된 광고 추천 방법」<sup>21)</sup>에서는 트위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축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광고를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밖에도 네트워크 영향력 분석 및 마케팅 활용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작의 과정에 앞서 이야기 소재 발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블로그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소재로 활용하여 이야기를 구성해 보는 방법을 제시해 본다.

19) 진설아 외 (2013), 「트위터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 토픽 변화 추적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1호, p.285-302.

20) 최홍구 외 (2012), 「트위터 문서 분석을 통한 감정 기반의 음악 추천 시스템」, 정보과학회논문지: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제18권 제11호, 정보과학학회, p.763.

21) 김태은 (2012), 「SNS기반의 개인화된 광고 추천 방법 : 트위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 Ⅲ. 트위터 데이터를 이용한 연관 키워드 추출

이 장에서는 핵심어를 포함한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 계량정보학분야에서 내용 분석을 위해 많이 쓰이는 동시출현단어<sup>22)</sup> 분석을 이용하여 ‘추사 김정희’와 함께 문서에 자주 나타나는 명사를 추출했다. 이때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문장을 작성할 때 함께 사용한 키워드들은 서로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빈도수 높은 단어들은 공통의 관심과 추천의 성향을 대표한다고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단어를 그룹화 하였다.

<그림 3> ‘추사 김정희’ 키워드를 포함한 트윗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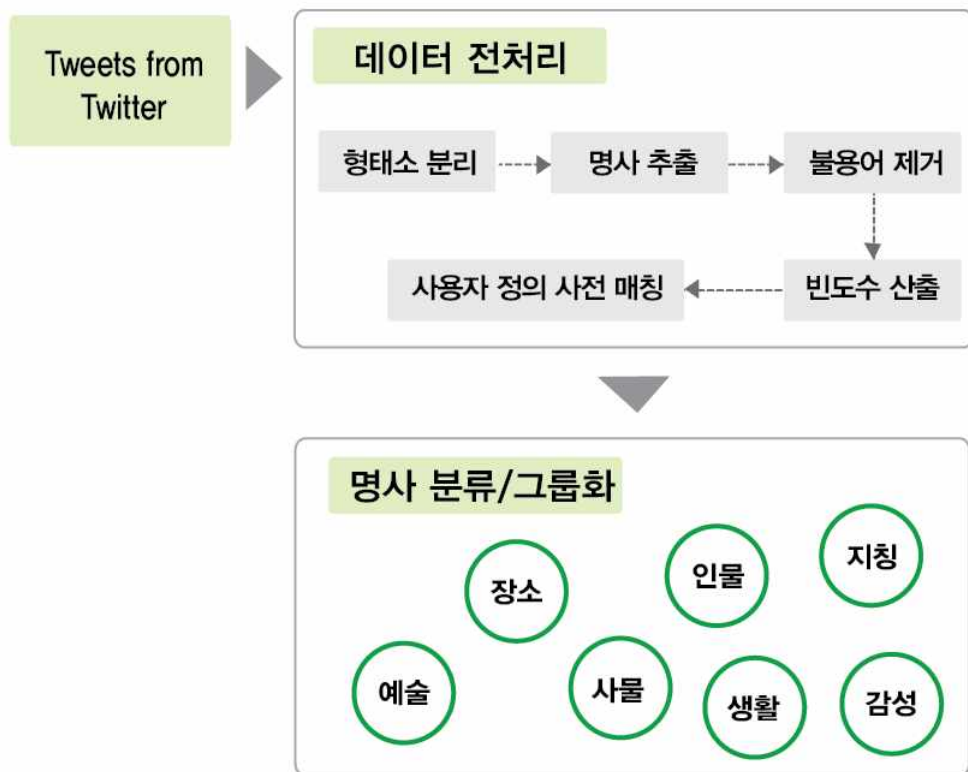


22) 동시출현단어 분석은 본래 사전학이나 언어학분야에서 언어(collocation: 어떤 언어 내에서 특정한 뜻을 나타낼 때 흔히 함께 쓰이는 단어들의 결합)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적용돼 왔던 방법으로 이후 정보검색이나 자연언어생성 등에 사용되었다. 국내에서도 논문의 키워드나 제목, 초록 등에서 사용된 용어들의 동시출현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가 분석되었다. (강범일, 2013: p.197)



각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트윗 정보를 수집하고, 두 번째로 데이터 전처리 단계를 거치면서 구문 분석 작업을 통해 명사를 추출하고 불용어를 제거한 뒤 사용자 사전을 이용하여 단어를 매칭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추출 단어를 그룹화하고 분류한다.

<그림 4> 트윗을 이용한 연관 키워드 추출 모형



### 1. 트윗 정보 수집

2012년 1월~2014년 5월까지 한국인이 작성한 트윗을 모집단으로 하여, ‘추사 김정희’ 키워드를 포함한 트윗 813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트윗 중 ‘추사 김정희’와 무관한 트윗을 제거하여 최종 660개를 실험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표 2>는 분석에 사용할 트윗의 일부 모습이다.

<표 2> 분석에 사용한 트윗 예시

Tweet
영조의 딸 화신옹주는 남편(김한신)이 죽자 영조가 극구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따라 굶어죽었다. 이 화순옹주가 <b>추사 김정희</b> 의 증조할머니다.
<b>추사 (김정희)</b> 선생님은 제주도 유배생활 8년중 가장 맛나는 음식은 두부와 무를 넣은국과 오이장아치 생강채를 먹을때가 가장 맛있는 식사라고 했다.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모여 먹는 시간이기라고 설연휴 즐거운 시간과 좋은 추억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칠십년간 열들의 버루를 갈아 바닥을 내고 천자루의 붓을 닳아 없었어도 아직 편지 쓰는 법도 익히지 못했다( <b>추사 김정희</b> ).. 글이 안써질 때, 글이 안써져 머리채를 잡아 뜯고 싶을 때 항상 되새기는 글귀다. 글을 쓰려면 이 정도로 미쳐야 한다는 거겠지
<b>추사 김정희</b> 의 걸작 <세한도(歲寒圖)>.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나중 시들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는 말은 『논어』에 나온다. <a href="http://t.co/kRgPKurIXI">http://t.co/kRgPKurIXI</a>
「 <b>추사 김정희</b> 의 실사구시란? 사실에 의거하여 진리를 찾는 것」 @cheolsoorang동양학은 역시 심오합니다. 실사구시... 사실에 의거하여 진리를 찾는다!
[예산여행] <b>추사 김정희</b> 선생 고택: [예산여행] 추사 김정희 선생 고택 추사 고택은 추사선생님 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며 현재 충청남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 <a href="http://t.co/uett8b7C1p">http://t.co/uett8b7C1p</a>
나에게도 초의가 있는가?: 추사체 세한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추사의 친구 ‘초의선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1840년 <b>추사 김정희</b> 는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에 유배되었다.
남이야 동쪽으로 가건 서쪽으로 가건 상관하지 말고, 다만 자기 본분을 잘 살피 맹렬히 힘을 쏟는 것이 옳다! - <b>추사 김정희</b>
영조임금의 따님인 화순옹주의 증손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하였으며 중국의 거유(巨儒)들과 교류하며 조선 최고의 학자로 성장했던 <b>추사 김정희</b> 의 명성은 일찍부터 조선과 중국 땅에 자자했지만 그의 작품들은 너무 자신감이 있고 기쁨기가 많다
<b>추사 김정희</b> 는 고급의 필법을 참작하여 추사체를 개발했고 또 무학대사비로 알려진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최초로 고증해냈다. <금석과안록>, <세한도> 등을 남겼다. <a href="http://t.co/EXvBkv8voO">http://t.co/EXvBkv8voO</a>
살다보면 평생 벗하고 싶은 사람 하나쯤 만나게 마련이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 <b>추사 김정희</b> 와 초의선사가 나눈 우정처럼,사심없이 예로 존중할 줄 알고,마음으로 위로할 줄 아는 그런벗이 그리울때가 있다.—건는것이 쉬는것이다—
<b>추사 김정희</b> 는 조선시대 예술과 학문을 자신의 내면적 경지로 일으켜 세워, 조선을 넘어서 동아시아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제주도 유배시절 그 유명한 세한도를 통해 우리는 추사의 내면적 경지를 가늠할 수 있다. 위대한 예술가, 추사. -사료-

## 2. 데이터 전처리

### 1) 명사 추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려면 각각의 문장을 형태소<sup>23)</sup> 단위로 분석하여 나온 품사들을 벡터 형태로 변환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중 대표적인 것은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고려대학교의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및 품사태그 국민대학교의 KLT, KISTI의 한나눔 형태소 분석기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려대학교의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sup>24)</sup>를 사용하여 구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있어 선택적으로 품사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 분석 결과 나온 품사 중 명사만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어의 경우 문장에서 명사만을 뽑아 살펴보아도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명사 추출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 3>는 트윗 문장을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의 예시이다. '세종 계획 품사 집합표'를 기준으로 문장의 명사만 추출하였다. 추출된 명사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표 3> 트윗 데이터의 형태소 분석 및 명사 추출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세 사람, 추사 김정희, 교산 허균, 다산 정약용. 귀양살이를 해야했던 이들이 유배지에서 받아들인 초라한 밥상으로부터 음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기 시작한다.

#### ▼ 1단계 : 형태소 분석

23) 형태소란 단어(어절)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한의 언어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명사', '대명사', '수사' 등의 체언, '형용사', '동사' 등의 용언, '부사', '관형사', '감탄사' 등의 독립언, '조사', '어미', '선어말어미', '접사' 등의 기능어가 있다. (<http://cafe.daum.net/gukeum>)

24) <http://cl.korea.ac.kr/Demo/dglee/index.html>

형태소	분석 단위
조선시대	조선/NNP+시대/NNG
최고의	최고/NNG+의/JKG
천재	천재/NNG
세	세/MM
사람,	사람/NNG+./SP
추사	추사/NNP
김정희,	김정희/NNP+./SP
교산	교산/NNP
허균,	허균/NNP+./SP
다산	다산/NNP
정약용.	정약용/NNP+./SF
귀양살이를	귀양/NNG+살이/NNG+를/JKO
해야했던	하/VV+아야/EC+하/VX+았/EP+던/ETM
이들이	이/NNB+들/XSN+이/JKS
유배지에서	유배지/NNG+에서/JKB
받아든	받/VV+아/EC+들/VX+ㄴ/ETM
초라한	초라/XR+하/XSA+ㄴ/ETM
밥상으로부터	밥상/NNG+으로부터/JKB
음식에	음식/NNG+에/JKB
대한	대하/VV+ㄴ/ETM
진지한	진지/XR+하/XSA+ㄴ/ETM
성찰을	성찰/NNG+을/JKO
하기	하/VV+기/ETN
시작한다.	시작/NNG+하/XSV+ㄴ다/EF+./SF

▼ 2단계 : 형태소 분석을 통한 명사(일반명사, 고유명사) 추출

조선 시대 최고 천재 사람 추사 김정희 교산 허균 다산 정약용  
귀양 살이 유배지 밥상 음식 성찰 시작

<표 4> 세종 계획 품사 집합표

<b>NNG</b>	일반 명사	<b>VC P</b>	긍정 지정사	<b>JKG</b>	관형격 조사	<b>EF</b>	종결어미	<b>X R</b>	어근	<b>S W</b>	기타 기호
<b>NNP</b>	고유 명사	<b>VC N</b>	부정 지정사	<b>JKO</b>	목적격 조사	<b>EC</b>	연결어미	<b>SF</b>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b>NF</b>	명사 추정 범주
<b>NNB</b>	의존 명사	<b>MM</b>	관형사	<b>JKB</b>	부사격 조사	<b>ET N</b>	명사형 전성어미	<b>SP</b>	쉼표, 가운뎃점, 콜론, 빗금	<b>NV</b>	용언 추정 범주
<b>NP</b>	대명사	<b>MA G</b>	일반 부사	<b>JKV</b>	호격 조사	<b>ET M</b>	관형형 전성어미	<b>SS</b>	따옴표, 괄호표, 줄표	<b>SN</b>	숫자
<b>NR</b>	수사	<b>MA J</b>	접속 부사	<b>JKQ</b>	인용격 조사	<b>XP N</b>	체인 접두사	<b>SE</b>	줄임표	<b>NA</b>	분석불능 범주
<b>VV</b>	동사	<b>IC</b>	감탄사	<b>JX</b>	보조사	<b>XS N</b>	명사 파생 접미사	<b>S O</b>	붙임표		
<b>VA</b>	형용사	<b>JKS</b>	주격 조사	<b>JC</b>	접속 조사	<b>XS V</b>	동사 파생 접미사	<b>SL</b>	외국어		
<b>VX</b>	보조 용언	<b>JKC</b>	보격 조사	<b>EP</b>	선어 말어미	<b>XS A</b>	형용사 파생 접미사	<b>S H</b>	한자		

2) 불용어 제거

트위터에는 트윗을 작성하는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트윗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문법에 맞지 않는 텍스트 데이터가 많다. 그리고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추출된 명사 중에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거나 모든 문서 집합에 출현하여 변별력이 없는 불용어가 존재한다.

텍스트 데이터 분석 시 분석 목적에 맞는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작업은 두 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 번째로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분석에 불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내용을 제거함으로써 노이즈가 줄게 되고 향후 군집화나 기타 방법론을 적용 시킬 때 결과 값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데이터를 축소시켜 분석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sup>25)</sup>

‘추사 김정희’와 함께 언급되는 단어 중 명사(일반명사, 고유명사)만을 색인하였더니 8,178개의 단어가 추출되었다. 명사 중에는 분석에 필요 없거나 해석이 불가능한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불용어 제거 과정이 필요하다.

트윗에서 명사들을 추출한 후 트위터에 자주 사용되지만 실제 분석에는 필요 없는 형태의 단어들을 일정한 규칙을 이용하여 제거했다. 분석목적에 따라서 데이터 노이즈 제거 규칙은 가변적이다. <표 5>은 이번 분석에 사용한 제거 규칙이며, 데이터 제거 규칙이 적용되어 최종 분석에 사용된 명사수는(중복포함) <표 6>와 같다.

<표 5> 데이터 제거 규칙 목록

규칙 1	단어만으로는 연관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예: 옹, 궁, 국) 제거
규칙 2	‘<’, ‘@’과 같은 특수문자 제거
규칙 3	‘ㄱ’, ‘ㅎ’, ‘ㅠ’ 같은 자음과 모음제거
규칙 4	맞춤법 표기 오류 제거

<표 6> 데이터 불용어 제거 후 명사수 집계

	트윗수	명사수	데이터 노이즈 제거 후 명사 수
최초 추출	813(개)	11,497(개)	-
최종 분석	660(개)	8,178(개)	7,759(개) ※중복 단어 포함

25) 강성진 (2013), 앞의 논문, p.5 참조.

### 3) 명사 빈도수 계산

트위터에서 추출한 명사의 빈도수를 계산할 때 기존의 관련 연구들이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라는 가중치를 많이 사용한다. TF-IDF는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의 집합이 있을 때,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측정하는 통계적 수치이다. 단어 빈도수(TF)는 어떤 단어가 한 문서 내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 값이 높을수록 문서 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하지만 그 단어 자체가 문서군 내에서 자주 사용 된다면 이것은 그 단어가 영향력 없이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문서 빈도수(DF)라고 하는데, 문서 군 내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문서 빈도수의 역수인 역 문서 빈도수(IDF)를 적용하여 그 단어의 영향력을 낮추어준다. TF-IDF는 단어 빈도수와 역 문서 빈도수를 곱한 값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높은 문서 빈도수 값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자의 관심사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서 빈도수 값을 역수인 역 문서 빈도수를 적용하여 이 단어의 영향력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작성한 전체 트윗을 하나의 문서로 생각하고 단어들의 단어 빈도수 값을 계산하여 단어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사용하였다<sup>26)</sup>.

데이터 불용어 제거 후 집계된 명사 7,759개는 일반명사 6,634개와 고유명사 1,125개의 단어로 구성 되었다. 다음으로 각 단어가 출현한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단,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르게 표현한 단어의 경우, 예를 들어 ‘제주’, ‘제주도’와 같은 경우 동일한 곳을 지칭하므로 빈도수 계산 시 통합하여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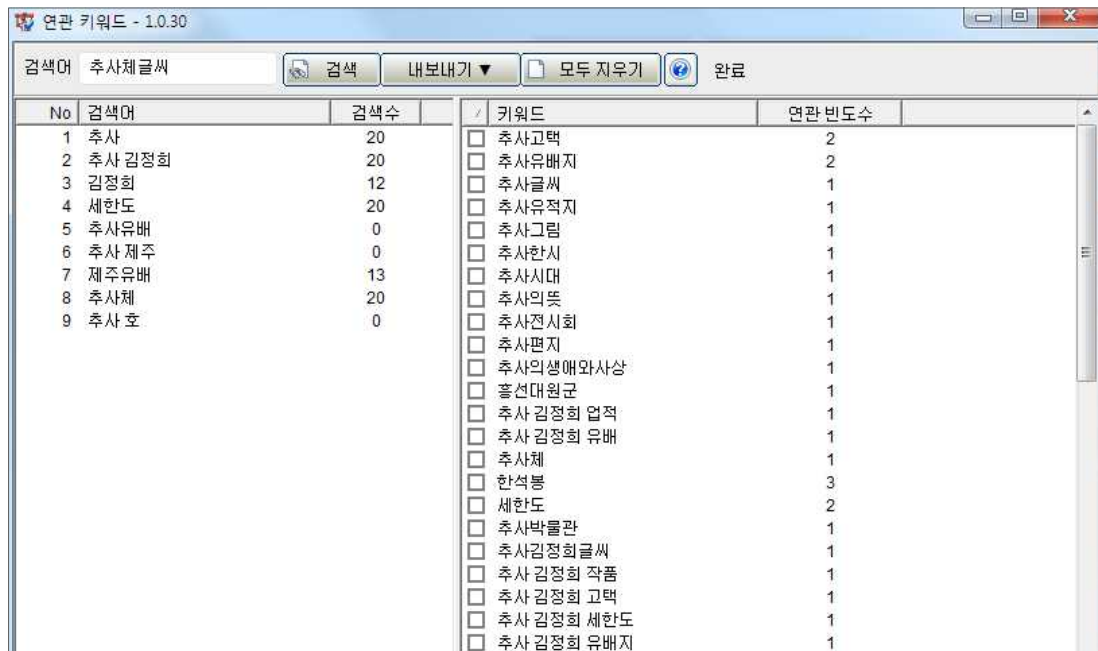
### 4) 사용자 정의 사전 구축

트윗으로부터 추출한 명사가 추사와 연관이 있으며, 유의미성을 갖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 사전을 제작했다. 사전 구축을 위해서 ‘에드코프 연관

26) 김혜원 (2012), 「트위터에서 통합된 타임라인 요약」,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p.16 재구성.

키워드'27) 검색 및 『제주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완당평전2』 등 추사 관련 책의 색인을 이용하였다.

<그림 5> 애드코프 연관 키워드 검색화면



<표 7> 사용자 정의 사전 구축 단어의 예시

감동	검재	경주김씨	고택	과지초당	구양순	권돈인
귀양	귀양다리	귀양지	굴중옥	그림	글	글씨
금잔옥대	기념관	김경연	김노경	김노영	김명희	김상무
김상우	김상희	김유근	김이주	김한신	깨달음	꽃
노력	단원	대가	대정	대정고을	대정향교	독우물
동파입극도	명필	명호	무량수각	미술관	박규수	박물관
박제가	박지원	백송	백운	백과	백호당	벼루
보담재	보소실	봉은사	부인	북경	북청	북학의
북한산비	붓	상우	서귀포	서예가	서울	섭지선
세한도	소나무	소동파	소치	송계순	송시열	수선화
스승	시	신관호	신위	실학자	아버지	...

27) 애드코프 웹페이지: <http://www.adcoop.co.kr/>



마지막으로 트윗에서 ‘추사 김정희’와 함께 언급 된 단어 추출을 위해 명사 빈도수가 계산된 단어 중 사용자 정의 사전과 매칭 되는 단어를 1차로 추출하고, 사용자 정의 사전에 구축은 되지 못했으나 추사와 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단어의 경우 검색사이트에 입력하여 연관검색어 또는 뉴스 기사가 검색되면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3. 최종 추출된 명사 분류 및 그룹화

최종 추출된 단어를 나열하였을 때 ‘추사체, 제주, 그림, 세한도, 책, 귀양살이, 유배지’ 등의 순으로 배열이 되었다. <그림 6>은 최종 추출된 명사의 빈도수를 기준으로 도식화해본 모습이다.

<그림 6> 최종 추출된 연관 키워드 도식화(빈도수 기준)



추출된 단어들의 빈도수는 관심도를 반영하고, 단어 간의 관계를 부여하기 위해 한번 더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단어들을 그룹화하였다. 분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소, 예술, 인물, 사물, 지칭, 생활, 감성’이다. <표 8>은 기준에 따라 분류한 최종 추출 단어와 빈도수를 나타낸다.

<표 8> 최종 추출된 명사 분류 및 그룹화

[분류 : 장소 연관]

단어	빈도수	비고
제주	100	제주도
유배지	65	유배길
예산	53	고향,생가
미술관	38	간송
대정	24	서귀포
박물관	22	
중국	22	
기념관	19	
서울	17	
과천	16	경기도
봉은사	11	
대흥사	7	해남
굴중옥	4	

[분류 : 예술 연관]

단어	빈도수	비고
추사체	127	
그림	99	
세한도	95	
글	44	
시	33	한시
작품	29	
현판	17	
회화	9	
의문당	9	
편액	5	

[분류 : 인물 연관]

단어	빈도수	비고
정약용	41	
초의(선사)	27	
소치(허련)	23	
단원(김홍도)	22	
유홍준	12	
겸재	11	
부인	7	
스승	6	
아버지	6	
할아버지	4	
송시열	2	

[분류 : 사물 연관]

단어	빈도수	비고
책	84	
붓	35	
소나무	27	
차	20	
벼루	19	
꽃	15	
잣나무	15	
수선화	13	
백송	12	
금잔옥대	3	

[분류 : 지칭 연관]

단어	빈도수	기타
서예가	47	
호	27	
명필	26	
학자	17	
완당	9	
친재	6	
예술가	6	
명호	4	
실학자	2	

[분류 : 생활 연관]

단어	빈도수	기타
귀양살이	66	
편지	20	
유학	6	
음식	4	
밥상	2	

[분류 : 감성 연관]

단어	빈도수	기타
감동	7	
노력	7	
대가	7	
정신	7	
존경	7	
깨달음	6	
고난	2	
고독	2	
극복	2	

## IV. 연관 키워드를 활용한 스토리 구성 및 팟캐스트 제작

본 장에서는 트위터에서 ‘추사 김정희’ 핵심 키워드와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단어를 소재로 활용하여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여기서 스토리는 경험하는 사건이나 수행하는 행위는 인과관계로 구성된다. 또한 실제 조합을 통해 나온 스토리 구성을 팟캐스트 에피소드 소재로 음성녹음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 1. 연관 키워드를 활용한 스토리 구성 방법

소재는 이야기의 재료를 말한다.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데 사용된 모든 재료를 소재라고 한다. 이야기의 소재를 찾아내고, 찾아낸 소재들을 결합하는 일은 조각보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흡사하다. 재질도 모두 다르고, 색깔도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천 조각들을 조각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에 어떤 천 조각을 이어 붙일 것인지를 고심해야 한다. 새로운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 역시 그렇다.<sup>28)</sup>

스토리는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여 재배치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원래 정보가 지니는 가치 외에 또 다른 가치를 덧입게 되고,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다른 사용자에게 일반적 정보가 아닌 신뢰성과 가치를 더한 정보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앞장에서 ‘추사 김정희’와 함께 수집된 키워드를 살펴보면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는 소재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조각난 정보의 파편으로 나타났다. 이것들을 제대로 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본 장에서는 연구자의 임의에 따라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뽑아 재배치함으로써, 소재를 수집하고 실제 스토리로 구성하는 방법을 <표 9>와 같이 제시하였다.

28) 류수열 (2007) 외, 『스토리텔링의 이해』, 서울: 글누림, p.65 참조.

<표 9> 추출된 키워드를 이용한 스토리구성 과정

분류: 장소	분류: 생활	분류: 예술
제주(a)	귀양살이(d)	세한도(g)
유배지(b)	편지(e)	시(h)
중국(c)	유학(f)	글(i)



조 합	스토리 구성
제주+귀양살이+세한도 (a+d+g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 귀양살이를 통한 세상 인심의 냉정함과 부귀영화의 무상함을 느낌</li> <li>한결 같은 제자 이상적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작품</li> <li>편지지 위에 그린 그림</li> <li>우리나라에게 가장 긴 그림이 된 사연</li> </ul>
유배지+편지 (b+e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인 예안씨에게 제주 소식을 전하러 편지를 보냄</li> <li>필요 물품 요구 등의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가정생활이 한글로 전해짐</li> <li>한문 학자가 부인에게 한글편지를 보낸 의미를 통해 부부 지정(夫婦之情) 소개</li> <li>추사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낌</li> </ul>
중국+유학 (c+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버지 김노경을 따라 자제군관의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li> <li>추사가 천하의 인재로 크는 계기이자 추사의 사대주의 사상이 짙어지는 계기도 됨</li> <li>당대 최고의 학자 옹방강과 완원의 만남 소개</li> <li>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천하의 인재로 성장하게 됨</li> </ul>

이밖에도 ‘귀양살이+시(d+h 조합)’, ‘세한도+글(g+i 조합)’ 등 다양한 조합의 구성이 가능하다. 많은 창작자들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감에 의지하여 창작하는 경우가 많다. 본 장에서는 특정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할 때 창작자의 영감이 아닌 소셜미디어에서 일반 대중이 갖는 생각, 성향을 먼저 알아보고, 추출된 정보를 소재로써 활용하는 새로운 이야기 구성 방식을 제안해 보았다. 이 방법은 창작의 과정 이전에 대중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고 알고 싶어

하는지를 추천하여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 할 수 있고, 다양한 소재들의 조합을 통해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법은 수많은 정보 중 수요자의 기대에 부흥하는 정보만을 선별해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하고 유의미하게 구성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팟캐스트의 제작

### 1) 팟캐스트의 이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제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매체가 만들어 주는 콘텐츠를 소비하기만 했던 일방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제작하고 이를 배포함으로써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프로슈머로 바뀐 것이다. 소비자의 참여 기회가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중심으로 한 매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이용자가 직접 정보의 생산, 제공, 관리를 담당하는 개인미디어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그 대표적 플랫폼인 팟캐스트의 역할은 더욱 주목될 것이다. 웹 2.0 기반 서비스인 팟캐스트는 RSS 형식의 자동 구독 방식이라는 점과 이용자 참여형 미디어라는 점, 단일한 플랫폼이 가지는 친숙한 접근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괄목할 만한 이용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팟캐스트는 애플이 만든 일종의 방송서비스로, 애플의 아이팟(Ipod)과 브로드캐스트(Broadcast)가 합쳐진 단어다. 팟캐스트는 거대자본이 들고 조직과 장비가 있어야 하는 매스미디어가 아닌, 개인이 간단히 만들고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소셜미디어의 일종이다. 팟캐스트의 구독 수는 10억(2013년 8월 기준)을 돌파했으며, 팟캐스트는 현재 155개 국가에서 25만개 방송이 10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sup>29)</sup> 이용자가 인터넷에 음성과 영상 등의 미디어 파일을 올리면 구독자는 이를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 새로운 내용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방송을 전

29) 블로터 보도자료 인용(<http://www.bloter.net/archives/159463>)

달한다. 또한 팟캐스트는 누군가 올려놓은 방송을 자유롭게 내려 받기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방송을 올릴 수도 있어 개방성을 갖췄다. 여기에 편리한 구독시스템과 다양한 제공자에게서 나오는 풍부한 콘텐츠가 결합돼 만족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팟캐스트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사용자 편의성이다.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 오디오/비디오 파일들은 사용자의 개인 컴퓨터는 물론 MP3플레이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다양한 휴대용 기기에서 손쉽게 팟캐스트를 구독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의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바로 자동 구독 기능이다. 사용자는 일일이 관심이 있는 정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독하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기기에서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미디어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 구독 방식 덕분에 인터넷 이용자는 다양한 인터넷 방송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팟캐스트의 또 다른 특징은 제작의 용이함이다. 오디오 팟캐스트는 녹음 기능이 있는 MP3플레이어만 있으면 제작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비약적인 발달로 오디오 녹음 기능은 물론 HD급의 고품질 비디오 촬영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제작된 디지털 파일을 가공하는 것 또한 크게 어렵지 않다. 인터넷 상에는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파일을 편집, 제작<sup>30)</sup>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동으로 팟캐스트 등록<sup>31)</sup>을 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표 10> 팟캐스트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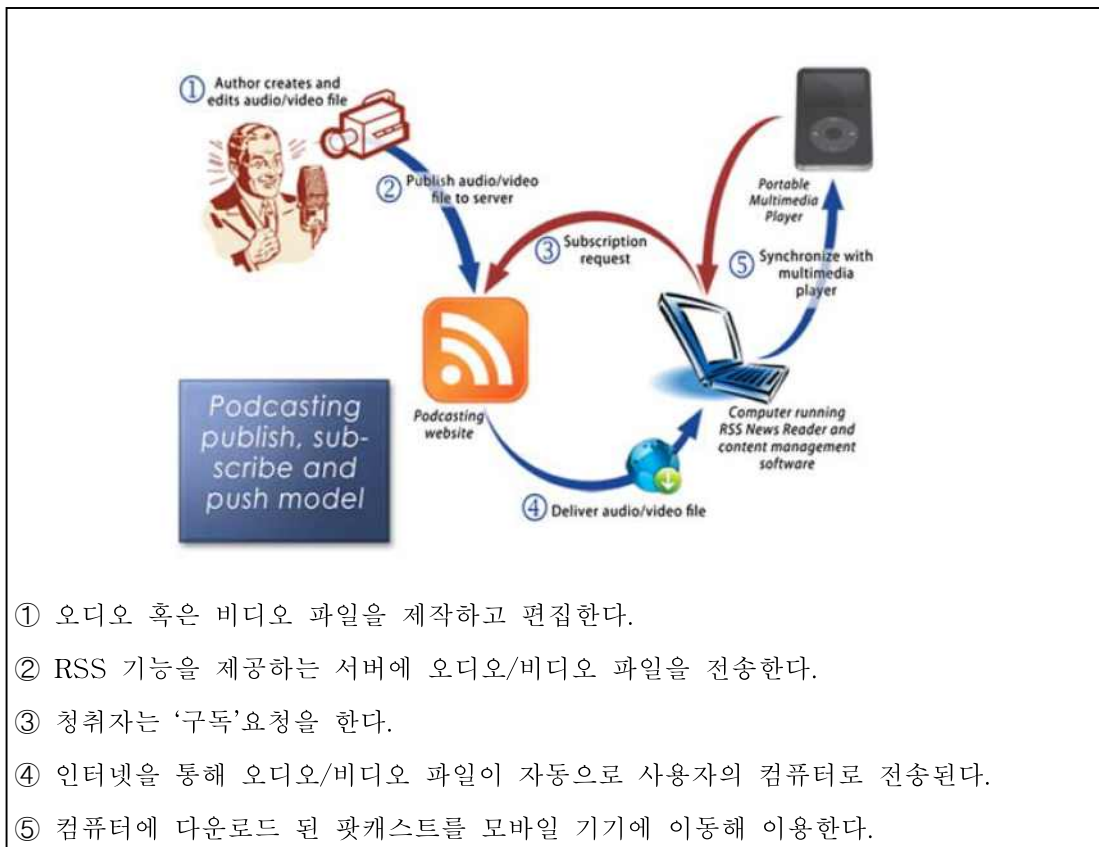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용 비용	무료, 유료(호스팅이 필요한 경우)
콘텐츠 형식	오디오, 동영상, 문서파일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 비용 저렴하며 제작 기간 비교적 짧음</li> <li>· 콘텐츠 수정이 쉬움</li> <li>· 스마트 기기로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청취 가능</li> </ul>
단점	홍보의 어려움

30) 대표적인 무료 오디오 편집프로그램으로 Goldwave가 있다

31) 무료 호스팅 서버로 아이블러그닷컴(<http://www.iblug.com>)이 있다.

팟캐스팅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자동 다운로드를 통한 구독 방식이라는 점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RSS<sup>32)</sup>이다. 팟캐스트의 구현 방식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림 7>과 같다. 음성을 MP3와 같은 디지털 파일로 제작한 뒤 RSS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에 업로드한다. 보통 이 과정은 팟캐스트 송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사용자는 팟캐스트를 검색하고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통해 ‘구독 신청’을 하게 되고 이후 정기적으로 팟캐스트를 받아볼 수 있다. 애플사의 아이튠즈는 팟캐스트를 검색, 구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응용프로그램이다.<sup>33)</sup>

<그림 7> 팟캐스트 구현 방식



- ① 오디오 혹은 비디오 파일을 제작하고 편집한다.
- ② RSS 기능을 제공하는 서버에 오디오/비디오 파일을 전송한다.
- ③ 청취자는 ‘구독’요청을 한다.
- ④ 인터넷을 통해 오디오/비디오 파일이 자동으로 사용자의 컴퓨터로 전송된다.
- ⑤ 컴퓨터에 다운로드 된 팟캐스트를 모바일 기기에 이동해 이용한다.

32) [위키백과] RSS(Rich Site Summary)는 뉴스나 블로그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 표현 방식이다. 웹 사이트 관리자는 RSS 형식으로 웹 사이트 내용을 보여 준다. 이 정보를 받는 사람은 다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RSS가 등장하기 전에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야 했으나, RSS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 수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용자는 각각의 사이트 방문 없이 최신 정보들만 골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33) 조형주(2013), 「팟캐스팅(Podcasting)을 이용한 한국 문화 교육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p.13 참조.



## 2) 팟캐스트 제작의 실제

### (1) 구성방법

#### <기본 설계>

- 파일형식: 오디오 팟캐스트(mp3)
- 구성: 트윗 정보를 기반으로 한 추사 김정희의 에피소드
- 시간: 1회당 10분 이내

#### <기술적 정보>

- 미디어형태 : 오디오 팟캐스트 제작
- 미디어 플랫폼 : iBlug(아이블러그, <http://www.iblug.com/>)
- 녹음도구 : 스마트기기(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SmartRecord App
- 음원 : 이어브로(<http://mall.earbro.kr/main/index>) BGM 구입
-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 : 리퍼(Reaper), 골드에이브(GoldWave), 아이튠즈

첫째, 1회당 길이는 10분 내외로 한다. 스마트폰, MP3플레이어, 컴퓨터 등 팟캐스트를 구독하는 다양한 환경을 고려할 때 너무 긴 내용의 경우는 집중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팟캐스트의 특징 중 하나인 이동 중 이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너무 긴 시간 집중하지 않고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길이로 제작한다.

둘째, 업데이트 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에피소드를 팟캐스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셋째, 주제 또는 내용에 따라 오디오와 비디오 팟캐스트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오디오 파일을 기본으로 하며, 하나의 주제에 대한 대화형식, 인터뷰, 내레이션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한다.

넷째, RSS를 통해 다양한 소셜미디어 매체에 배포한다.

<표 11> 팟캐스트 ‘굴중옥의 하루’ 기획안

1. 기획 의도	추사 김정희 팟캐스트 제작
2.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이틀 : 굴중옥(橋中屋)의 하루</li> <li>· 청취 대상 : 추사 및 제주유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li> <li>· 장르 : 역사·문화 / 에듀테인먼트</li> <li>· 기간 : '14. 2. ~ '14. 6.</li> </ul>
3. 제작 목표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사 김정희의 연관된 콘텐츠로 테마 구성</li> <li>· 트윗 정보를 기반으로 한 추사 김정희 에피소드 구성</li> </ul>
4. 유사 팟캐스트 비교 분석	<p>&lt;나는 이야기꾼이다 - 조선왕조실록&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을 통해서 청취자들이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 이야기</li> <li>· 오디오 팟캐스트, 전체 순위 200위, 사회 문화 분야 22위</li> </ul>

(2) 에피소드 녹음을 위한 스토리 구성

회차	조합 (단어)	감정	주제	스토리 구성
1	제주 + 부인 + 편지 + 시	애(哀)	부인을 사랑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사의 현판 ‘일독이호색삼음주’ 소개</li> <li>· 추사의 이미지와 연결이 어려움</li> <li>· 추사의 첫 번째 부인과의 사별, 두 번째 부인 예안이씨의 재혼 사연 소개</li> <li>· 한 평생 한 여자만을 사랑한 추사와 예안이씨의 남편 사랑을 소개</li> <li>· 추사가 유배 온지 2년 만에 예안이씨가 세상을 떠남</li> <li>· 추사가 아내를 그리워하며 제문을 씀. 제문의 내용을 통해 부부 지정을 다시 확인하게 됨</li> <li>· 추사에게 여자(부인, 어머니)의 존재가 갖는 의미 질문</li> </ul>

회차	조합 (단어)	감정	주제	스토리 구성
2	유배 + 고난 + 고독	애(哀)	적거지를 굴중옥이라 짓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사의 적거지를 ‘수성초당’ 과 ‘굴중옥’이라 불렀음</li> <li>처음 대정에 도착한 추사의 가슴 답답한 심리</li> <li>현재의 고난을 승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독서를 택함</li> <li>적거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붙여준 ‘수성초당’의 의미</li> <li>추사가 이름 붙인 ‘굴중옥’ 의 의미 소개</li> </ul>
3	현판 + 의문당 + 전각 + 존경	희쁨	제주사람들과 어울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사는 제주도 사람들에게도 각하는 방법을 가르침</li> <li>제주도 사람 가운데 각 잘하는 사람이 죽자 이를 추사가 매우 애통해 함</li> <li>제주도 사람 박계첨은 추사의 도장을 망라하여 ‘완당인보’를 만들</li> <li>항원 오재복이 ‘의문당’이라는 추사의 친필을 받아 각하여 대정향교에 현판함</li> </ul>
4	꽃 + 수선화	락(樂)	제주도 꽃과 나무를 좋아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사가 제주도에서 남긴 한시들 가운데 꽃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 편 있음</li> <li>특히 추사가 아끼고 즐긴 꽃이 수선화였음. ‘금잔옥대’ 또는 ‘은잔옥대’라 칭함</li> <li>수선화를 상찬하는 시를 소개</li> <li>참꽃을 좋아하여 ‘영산홍’ 이라는 시를 쓴 사연</li> </ul>
5	차 + 정신 + 초의	락(樂)	차 마시길 좋아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나라 다도를 정립, ‘다성(茶聖)’이라 불리는 초의 선사는 ‘다선일미(茶善一味)사상’을 완성한 조선 후기의 대선사로 다산, 추사와 교류함</li> <li>초의는 제주에 유배 온 추사를 만나기 위해 다섯 차례나 제주바다를 넘었고 제자 허련을 통해서</li> </ul>

회차	조합 (단어)	감정	주제	스토리 구성
				<p>는 손수 법제한 차를 추사에게 보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사는 보답으로 초의에게 그 유명한 ‘일로향실(一爐香室)’이라는 편액글자를 선물함</li> <li>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茶사랑’ 편지를 모은 서간첩 벽해타운, 벽해타운은 ‘푸른 바다 건너온 편지’라는 뜻으로 추사가 제주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20통이 실려 있음</li> </ul>
6	유배지 + 음식	락(樂)	추사의 유배시절 음식은 어땠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인에게 편지를 통해 음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함</li> <li>민어, 어란, 진장(진간장), 쇠고기, 인절미, 새우젓, 조기젓, 장복이, 오이장아찌 등 당시 제주에서 구하기 어려운 다양한 먹거리가 등장</li> <li>서울에서 보내 준 인절미 사연</li> <li>제주에서 실제 즐겼던 음식 소개</li> <li>유배밥상 이야기</li> <li>일식삼찬을 통한 검소한 생활 및 소식(小食)을 통한 건강 관리</li> </ul>
7	붓 + 벼루 + 명필 + 서예가	락(樂)	벼루를 구명 내고 이상한 그림을 그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사의 글씨는 제주도에서 확고한 자기 틀과 형식을 갖추어 갔으며 해서와 행서에 특히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li> <li>추사는 한나라 때 예서를 집대성한 ‘한예자원(漢隸字源)’에 수록된 309개의 비문 글씨의 본을 보고 그대로 옮겨 쓰고 또 옮겨 씀. 이를 위해 추사는 “70평생에 벼루 10개를 갈아 닳게 했고 천 자루의 붓을 다 닳게 했다.”는 사연</li> <li>추사체가 새로운 조형적 감각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하나는 제주도의 풍경도 분명 한몫을 했을 것임</li> </ul>

회차	조합 (단어)	감정	주제	스토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사는 초의에게 ‘일로향실’이라는 글씨를, 대정향교에 ‘의문당’이라는 글씨도 써줌</li> <li>현종 임금도 추사에게 글씨를 요청한 사연</li> <li>제자 이상적은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권세를 상실한 추사에게 변함없이 중국의 새로운 자료들을 구해서 보내줌. 추사는 이상적의 변치 않는 마음과 고마운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현종10년 ‘세한도’를 그려줌.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는 말에서 따온 세한(歲寒)이라는 표현은 이상적에 대한 추사의 감동을 그대로 대변함</li> </ul>
8	책 + 학자 + 노력 + 깨달음	희(喜), 노(怒)	책을 읽고 또 읽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배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왕성한 독서를 한 추사</li> <li>제자 이상적의 도움으로 책을 구함. 역관이었던 그는 중국에서 여러 책을 구해 보내줌</li> <li>추사는 성현의 도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에서 박학의 대상을 경전에 대한 풍부한 독서로 설정함</li> <li>(서울)집에 소장해둔 책을 일일이 기억해내고 제주도로 보내줄 것을 요구</li> <li>읽은 책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해국도지(海國圖志)』, 1842년에 완성되어 1844년에 간행되었는데 김정희는 1845년에 벌써 이 책을 제주도에서 입수함</li> <li>책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책에다 베끼는 노력도 아끼지 않음</li> <li>추사의 열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li> </ul>

회차	조합 (단어)	감정	주제	스토리 구성
9	스승 + 유학 + 중국 + 완당	희(喜)	스승과 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제군관 자격으로 북경 기행</li> <li>· 당대 최고의 학자 옹방강과 완원의 만남 소개</li> <li>·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천하의 인재로 성장하게 됨</li> <li>· 제주 유배 생활 9년 동안 제주의 스승이 되어 제자를 양성</li> <li>· 추사의 교육관 소개 - ‘스승이라는 사람의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 돌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li> </ul>

(3) 팟캐스트 1회 녹음 대본

<p>[팟캐스트 굴중옥의 하루] #1 추사, 부인을 사랑하고 제주여자를 멀리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진행 : 양진건, 박민희 구성/연출 : 박민희</p>
<p>시그널 : Smiling Baby_Full</p>
<p>1. 시그널 30초 후 : 오프닝 멘트</p> <p><b>박민희</b> 팟캐스트 굴중옥에서 펼쳐지는 추사유배이야기입니다.</p> <p>동서나 고금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절경을 품고 있는 곳이 가장 혹독한 유배지였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천혜의 관광지인 제주 또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배지입니다. 제주를 유배를 보내는 사람에게는 최적이었고, 유배를 받는 사람에게는 최악의 유배지가 아닌가요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배를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역사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배를 조금만 달리 들여다보면 추사 김정희의 &lt;세한도&gt;, 다산 정약용의 방대한 저술이 이 기간에 완성이 된 걸 보면 유배가 처참한 형벌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창조와 완성의 기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p> <p>이쯤해서 추사 김정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가 퇴계</p>

이항이라면 최고의 예술가로 추사 김정희를 꼽는 노산 이은상과 열암 박종홍선생의 유명한 야화가 있습니다. 추사체라고 불리는 최고의 글씨는 물론이고 세한도로 대표되는 그림과 시와 산문에 이르기까지 학자로서 그리고 예술자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분이죠. 이 모든 것이 9년의 제주도 유배생활 동안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로 인하여 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대정현에 위리안치의 명을 받습니다. 55세의 느지막한 나이에 시작된 고독하고 힘든 유배생활이었습니다.

추사는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손이 귀한 집안에 태어나, 본인의 뛰어난 재능으로 주위에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영화를 맘껏 맛보고 살았으니 고난도 겪어보아야 공평한 걸까요?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던 그는 큰 절망감 속에 유배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9년이란 시간동안 제주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지금부터 추사체를 완성하고, 세한도를 그려낸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배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기로 제주유배 관련 연구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계신 제주대학교 양진건 교수님과 함께 <추사, 부인을 사랑하고 제주 여인을 멀리하다>입니다.

## 2. 출연자소개 / 프로그램 취지 전달

### 양진건

제주대학교스토리텔링연구센터 양진건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민희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사람마다 유배에 대해 느낌은 다양할 것이라 생각해요. 제가 이 녹음을 하기 전에 잠깐 SNS에서 유배에 대해 언급한 정도와 호감도를 먼저 조사해 보았더니 부정적 의미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패배자, 고통의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배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정보를 찾아보고 그중에는 교수님이 집필하신 책도 읽어 보았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니 물론 유배지의 생활이 힘들고 비참했던 것은 사실이나 권세의 시간을 잃은 만큼 몰입의 시간이 생기고, 그 과정을 이겨내는 긍정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이 알고 있는 부정의 유배이야기 말고, 가벼우면서 진중한 유배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교수님께 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서는 많은 강연과 각종 매스컴이 익숙하시겠지만 전 첫 녹음이니 무척 긴장돼요. 아무튼 이번 주제는 처음이고 하니 가볍게 워밍업으로 연애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추사와 여자>로 테마를 잡아보았는데 어떠세요?

### 3. 에피소드로 이야기 시작 : <일독이호색삼음주>

#### 박민희

추사 김정희의 현판 중에 ‘일독이호색삼음주—讀二好色三飲酒’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우선 무슨 뜻인가요?

#### 양진건

말 그대로 첫 번째는 책 읽기, 학문을 좋아하고, 두 번째는 여자를 좋아하고, 세 번째는 술을 좋아한다는 뜻인데요.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가 있을까요?

#### 박민희

독서와 호색과 음주가 함께 있는 것도 낯설지만 과감하게 호색이란 표현이란 표현이 너무 솔직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인간적이다라고 해야 할까요? 좀 놀라운데요.

#### 양진건

그렇죠. 추사하면 완고하고, 강직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특히 근엄할 것 같고, 그래서 여자하고는 멀 것 같죠.

#### 박민희

추사는 첫 결혼을 언제쯤 하게 되나요?

#### 양진건

추사는 이십대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일찍 돌아가신다. 그 고통 때문에 재혼을 좀 늦게 하지요. 5년 후에 재혼을 하게 되는데, 재혼한 부인 예안이씨와 평생 시간을 보내죠.

#### 박민희

추사가 살았던 조선시대는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남자가 첩을 들일수도 있는 혼인의 형태도 있었습니다. 당대에 추사의 권세라면 여러 부인을 두었을 것 같은데, 추사는 어땠나요?



**양진건**

추사는 놀랍게도 유배를 오기 전에도 그러지 않았지만, 대개 유배를 오게 되면 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 여자를 두게 되는데, 추사는 유일하게 또 그러지 않았다.

**박민희**

아까 이 호색이라 하셨는데,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실상과는 다르네요.

**양진건**

자유를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실제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았는지, 한승원의 <추사>라는 소설에서는 초생이라는 여자를 등장시키긴 하는데 이것이 숙제입니다. 진짜 없었던 건지 훗날 제자들이 그 기록을 없애버렸는지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박민희**

부인과의 애절한 로맨스를 기대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를 지지합니다.

**양진건**

많은 여자 분이 그러길 원하는 것 같다. 사실은 좀 더 드라마틱하려면 후자 쪽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웃음)

#### 4. 화제의 전환 : 추사와 부인

**박민희**

추사의 한평생 한 여인만을 사랑했다고 하셨는데, 홀로 제주도에 떨어져서 부인이 그리워 어떻게 그 마음을 달랠까요?

**양진건**

완고하게 보이는 추사가 의외로 부인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추사는 한문지식인데, 부인에게만은 한글편지를 쓰지요. 한글편지에는 평소와 다르게 여기 아프다. 이것, 저것이 먹고 싶다 등 부인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에 대한 또 다른 애정표현이라 봅니다. 부인에게만은 추사답지 않은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훗날 우리에게 두 분간의 관계를 다시 유추해 볼 수 있게끔 합니다.

**박민희**

다시 유배 얘기로 돌아와서 한 집안의 가장이 유배를 당하게 되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가끔 드라마, 영화 속 장면에서 보면 가족들이 흩어지거나 혹은 함께 떠나지 않나요? 추사는 부인과 왜 함께 제주 유배를 오지 않은 거죠?

**양진건**

가족을 동반 할 수 없었던 뿐더러, 부인은 나이도 많았고, 집안도 돌봐야 했기 때문에 한양에 있게 됩니다. 대신 노비를 데리고 와서 추사와 부인은 편지연락을 하게

됩니다. 부인은 추사의 까탈스런 성격 때문에 입을 것, 먹을 것을 보내주곤 하는데 부인은 추사가 유배 온 지 2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박민희**

먼 유배지에서 부인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추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편으로써 부인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대한 사별의 정이 더욱 컸을 것 같은데요

**양진건**

물론입니다. 평생 두 분 아이가 없어서 사이에 아주 각별했습니다. 추사는 부인이 돌아가신 후 석 달 만에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이 전해지기에 너무 먼 거리라 그렇습니다. 부인을 볼 수도 제사도 지낼 수 없으니 제문을 씁니다. 부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제문에다가 대신하는데, 참으로 명문장입니다. 꼭 제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박민희**

추사가 편지에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보내고 부인은 해결을 위해 많은 것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보내왔나요?

**양진건**

한양에서 보내면 기간이 삼 개월이 걸립니다. 추사가 인절미를 좋아했던 모양인데 부인이 보낸 인절미를 열어보니 곰팡이가 피었다고 합니다. 오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는 염장식품을 보냅니다. 이를 통해 예안이씨의 사랑이나 정성을 볼 수 있는 거죠.

**박민희**

이런 부인의 지극한 보살핌 때문에 추사는 제주에서 홀로 지낼 수 있었던 거군요.

**양진건**

유배인들은 형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제주여자들과 집안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간홍 이익은 제주 유배를 와서 김만일의 딸과 집안을 이루게 됩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성씨를 다채롭게 하는데 기여하지요. 추사가 만약 제주 여자와 집안을 이뤘다면 제주도에도 경주김씨 추사 집안이 탄생하였을 텐데, 추사 부부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제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박민희**

추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색채의 마술사 샤갈과 많이 유사하다고 느껴지네요. 샤갈도 첫 번째 부인인 벨라가 먼저 죽고 두 번째 부인 바바와 다시 결혼을 합니다. 샤갈 또한 두 부인에 대한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 많지요.

**양진건**

그 사이에 자식이 있었다라면 의지될 곳이 있었을 텐데, 유배되어 서로가 헤어지고 나서 남편이 없는 채 살다가 죽은 아내를 생각하면 추사의 마음이 좋지 만은 않았을 겁니다. <도망>이라는 애처로운 시가 있는데, 다음에 태어나면 서로 바꿔 태어나자고 이런 애처로움을 표현 할 만큼 부부지정이 컸던 것 같습니다.

**박민희**

교수님 사모님과 다시 부부의 연을...

**양진건**

저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웃음)

**5. 마무리 : 추사에게 여자, 부인, 어머니의 존재 정리**

**박민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연 추사에게 여자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요?

**양진건**

어떤 사람에게든 여자는 중요한 존재이지요. 추사 역시 어머니가 중요했고, 일찍 돌아가신 첫 번째 부인도 중요했고, 평생 같이 산 예안이씨 또한 중요합니다. 딸이 있었다라면 또 틀렸겠지요.

추사는 이호색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실제로는 주변에 여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여자는 있었지만, 호색으로의 면모를 과시할 정도 아니고, 젊었을 때 평양기생 한명 정도였다. 추사가 스스로 학자이고 예술가적인 성격 때문에 상당히 금욕하고 절제할 면모인거 같습니다. 추사에게 있어서 중요하긴 하지만 넘치지 않는 자기의 학문과 예술에 있어 금욕과 절제를 요구했던 대상이었던 같습니다.

**박민희**

추사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결론은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끝이 났습니다.

‘세상에는 추사를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다’라 했는데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추사 선생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범접 할 수 없는 분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 감사드려요.

**엔딩 BGM : Smiling Baby\_Full**

#### (4) 팟캐스트 오디오 편집 및 등록하기

음성 녹음된 파일을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코딩 한 뒤, 팟캐스트 무료 호스팅서비스(아이블러그)에 업로드한다. 다음으로 생성된 XML Feed Url 주소를 아이튠즈의 팟캐스트에 등록한다<그림 9>. 이 주소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다음 콘텐츠부터는 아이튠즈에 자동으로 배포되게 되며, RSS 리더 서비스를 이용하여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다양한 소셜플랫폼으로 송출이 가능하다.

<그림 8> 'Reaper' 프로그램을 이용한 오디오 편집 화면



<그림 9> 아이튠즈에 XML Feed Url 주소 등록 화면



### 3) 팟캐스트 실연

<그림 10> 아이튠즈(상)와 아이폰(하)에서 실연 모습



### 3. 팟캐스트의 활용방안

팟캐스트는 일반인들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출판하게 해주는 플랫폼으로 단순히 정해진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콘텐츠피더와 독자가 만나는 결정적인 장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에피소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가공함으로써 의미와 재미, 정보, 감동을 더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의 도입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은 콘텐츠를 소장하는 것의 가치 보다 편리하게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의 가치가 커지고 있는 경향에 가속도를 붙여주었다. 따라서 추사 김정희의 역사스토리텔링을 음성 콘텐츠로 제작하고 소셜플랫폼으로 배포함으로써 독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역사 스토리에 대한 비선형적 서사 공유 및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발된 팟캐스트는 ‘추사 김정희’라는 역사인물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역사 속 인물을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생명력을 부여함으로써 역사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고난 극복의 과정과 자아실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역사스토리텔링은 이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더하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추사유배길 방문객을 대상으로 역사와 문화의 스토리를 즐기는 체험형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역량강화의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팟캐스트는 독자 스스로가 콘텐츠를 찾아내고, 이를 다운로드해서 듣는 자발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콘텐츠의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창조한 작품이 각광을 받으나, 계속적인 상호작용이 끊임없는 이루어져야 하는 팟캐스트에서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필요하겠다.

## V. 결 론

### 1. 결론

이 연구는 소셜미디어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트위터의 의사소통 공간인 트윗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이 ‘추사 김정희’ 인물에 대해 어떤 관심을 표출하는지 알아보았으며, 이를 이야기의 소재로 활용하여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또한 핵심 키워드와 함께 사용된 단어는 사용자의 관심도를 반영한 표현이라 추론하고,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음성 녹음하여 팟캐스트로 제작였다. 각 과정별로 연구의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사 김정희’와 공동출현단어를 통해 연관 관련된 유의미한 연관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는 대중의 관심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형태소 분석을 통해 얻어진 키워드의 빈도수 산출은 향후 ‘추사 김정희’에 대한 콘텐츠 연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셜미디어의 사용자가 작성한 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여 제작한 에피소드 구성은 사용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있고 관심이 반영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팟캐스트 제작시 콘텐츠 및 에피소드 구성에 있어 소셜미디어 특성과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은 최근까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미디어로 제작하여 배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차별화된 음성콘텐츠를 제작하고 소셜 매체를 통해 배포함으로써 이용자의 공유와 소통이 가능해졌다.

##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소재 추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제한적인 데이터와 간단한 기법들을 사용하였다. 수행한 트위터 연관 키워드 추출 연구가 보완된다면 키워드를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을 제시하면서 명사를 중심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다른 품사를 대상으로 확장하여 실험을 하거나 명사와 동사 집합 또는 형용사와 명사 집합처럼 서로 다른 품사집합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실험을 한다면 더욱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빈도수를 측정하기 위해 트윗과 리트윗 정보만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는데, 명확한 빈도수 계산을 위해서는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해쉬 태그와 같은 정보들을 활용하여 계산 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데이터의 수집을 트위터로만 한정하였는데 페이스북과 같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분석 자료의 신뢰도는 커질 것이며, 매체간의 특성 파악도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미경 외 (2012), 『소셜미디어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론 샤프코 외 (2011), 『소셜미디어바이블』, 서울: 연암사.  
류수열 (2007) 외, 『스토리텔링의 이해』, 서울: 글누림.  
사사키 도시나오 (2012), 『큐레이션의 시대』, 서울: 민음사.  
설진아 (2011), 『소셜미디어와 사회변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인화 (2003) 외, 『디지털 스토리텔링』, 서울: 황금가치.  
최민재 외 (2009),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저널리즘』, 서울: 한국언론재단.

### 《논문》

- 강범일 (2013), 「프로파일링 분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이용한 한국어교육학의 정체성 분석」, 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4호.  
강성진 (2013), 「군집화 기법과 문서 순위를 이용한 한국어 트윗 상의 토픽 추측」,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태은 (2012), 「SNS기반의 개인화된 광고 추천 방법 : 트위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김혜원 (2012), 「트위터에서 통합된 타임라인 요약」,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류우중 외 (2013), 「토픽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트위터 트렌드 추출」, 한국정보과학회 제40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한국정보과학회.  
배경선 (2012), 「소셜 미디어의 소통 방식 연구 : 트위터의 표현 방식과 소통 구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송 민 (2014), 「텍스트마이닝으로 마음읽기」, Future Horizon Spring 2014 제20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성진 (2004), 「키워드 샵에서의 상품 추천을 위한 연관 키워드 그룹 추출 기법」, 석사학위논문, 숭실 대학교 대학원.
- 조형주 (2013), 「팟캐스팅(Podcasting)을 이용한 한국 문화 교육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주길홍 외 (2011), 「효율적인 문서 검색을 위한 연관 키워드 추출 및 확산 클러스터링 방법」, 한국정보기술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9권 제6호.
- 진설아 외 (2013), 「트위터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 토픽 변화 추적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1호.
- 최돈정 외(2011), 「마이크로블로그를 이용한 토픽 추적에 관한 연구」,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1권 제1호.
- 최미란 (2010), 「마이크로블로그 이용 동기가 미디어 기능 인식과 활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 최홍구 외 (2012), 「트위터 문서 분석을 통한 감정 기반의 음악 추천 시스템」, 정보과학회논문지: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제18권 제11호, 정보과학학회.
- 허상희 (2011),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트위터(Twitter)의 소통 구조에 관한 고찰」, 『우리말연구』, 우리말학회.

《웹사이트》

- 애드코프 웹페이지 <http://www.adcoop.co.kr/>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 블로터 보도자료 <http://www.bloter.net/archives/159463>
- 고려대 형태소분석기 <http://cl.korea.ac.kr/Demo/dglee/index.html>
- 서울열린 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openinf/develop/agreement.jsp>

[부록 1] 트위터에 추출한 텍스트 (최신순 정렬)

- 기간 : 2012년 1월 ~ 2014년 5월
- 총 추출 트윗 수 : 813(개)
- 분석에 사용된 트윗 수 : 660(개) [하단 연번 1~660]
- 분석에 제외된 트윗 수 : 153(개) [하단 연번 661~813]

연번	작성자	텍스트
1	산***	추사 김정희// "가슴속에 만 권의 독서량이 쌓여서 피어나는 '문자향' 과 '서권기'가 넘쳐야 한다."
2	동***	[서예가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포스팅소개합니다. 9세기 동아시아 지성(知性)을 말하고 일국 너머의 해내신교(海內神交)를 이룬 동아시아 역사인물 추사(秋史) 김정희, 블로그를 통해 소개합니다. <a href="http://t.co/8dHGacnL8K">http://t.co/8dHGacnL8K</a>
3	C***	진도 주민 중심으로 결성된 '국민메달주기운동추진본부'(가칭)는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놓친 김연아에게 국민 금메달을 수여하기로 했다. 진도는 추사 김정희 제자이자 조선 말기 남종화 대가인 소치(小癡) 허련 선생의 고향이다.
4	문***	진도 주민이 김연아에 '국민 금메달' 수여 나선 까닭은 <a href="http://t.co/iUuRS06B7i">http://t.co/iUuRS06B7i</a> 진도는 추사 김정희 제자이자 조선 말기 남종화 대가인 소치(小癡) 허련(許鍊) 선생의 고향이다.
5	최***	영조의 딸 화신옹주는 남편(김한신)이 죽자 영조가 극구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따라 굶어죽었다. 이 화신옹주가 추사 김정희의 증조할머니다.
6	기***	추사 (김정희)선생님은 제주도 유배생활 8년중 가장 맛있는 음식은 두부와 무를 넣은국과 오이장아치 생강채를 먹을때가 가장 맛있는 식사 라고했다.이유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모여 먹는 시간이니까 라고 설연휴 즐거운 시간과 좋은 추억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7	트***	추사 김정희 이후로는 그이름못짓게 해야했어...
8	< ***	도대체 예술가가 가난해야 한다는 이미지는 어디서 나온거야 엠병 그만 말 하는 사람들 진짜 멘델스존으로 후러지고 모차르트로 내려찍고 벨라스케스로 때리고 안평대군으로 찍고 추사 김정희로 목조르고 싶다
9	a***	[네이버] 블로그 : 산방산 추사김정희 유배당시 걸었던길따라... <a href="http://t.co/Z2dmMwccpN">http://t.co/Z2dmMwccpN</a>
10	y***	칠십년간 열들의 버루를 갈아 바닥을 내고 천자루의 붓을 닦아 없앴어도 아직 편지 쓰는 법도 익히지 못했다(추사 김정희).. 글이 안써질 때, 글이 안써져 머리채를 잡아 뜯고 싶을 때 항상 되새기는 글귀다. 글을 쓰려면 이 정도로 미쳐야 한다는 거겠지
11	f***	추사 김정희 (1786~ 1856) 수묵화, 2011년 간송미술관 사군자전에서 <a href="http://t.co/405ajkrQ3Y">http://t.co/405ajkrQ3Y</a>
12	S***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에 보면 "날이 추워진 연후야 소나무와 측백의 푸르름을 알수있다"고했다. 역설적으로 지금 잘 보면 친일매국세력이 누군지 보인다.
13	오***	다큐공감 (1TV, 1월28일, 부제 식객 조선의 천재를 만나다) -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세 사람, 추사 김정희, 교산 허균, 다산 정약용. 귀양살이를 해야했던 이들이 유배지에서 받은 초라한 밥상으로부터 음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기 시작한다.
14	K***	당신의 인생과 함께 갈 최고의 음식은 무엇인가? 추사 김정희, 교산 허균, 다산 정약용 세 사람이 유배방상 앞에서 그들이 했던 고민과 성찰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다큐공감】 밤 10시 50분 1TV. <a href="http://t.co/7Ucx84a2pb">http://t.co/7Ucx84a2pb</a>
15	C***	설날이후에는 반드시 C형간염검사 한번쯤 받아보시는게 어떨까싶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는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을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 즐거움인 '일독(一讀)'은 책을 읽... <a href="http://t.co/Qs6yISvsND">http://t.co/Qs6yISvsND</a>
16	S***	KBS 다큐공감..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의 먹거리를 재현하고 있어요...오밤중에 공영방송에서 먹방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요...야..배고파..
17	북***	북산 김수철. <석매도(石梅圖)> 종이에 수묵담채. 조선 후기 화가로 출생과 사망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도봉산 기슭에서 살았다고 한다. <a href="http://t.co/NQbPndZ9gl">http://t.co/NQbPndZ9gl</a>
18	루***	추사김정희의 혼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훗 좀 따수워지면 '김님의길'을 걸어봐야겠다! <a href="http://t.co/22C6Vyss4s">http://t.co/22C6Vyss4s</a>
19	김***	추사 김정희의 걸작 <세한도(歲寒圖)>.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나중 시들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는 말은 『논어』에 나온다. <a href="http://t.co/kRgPKurIxI">http://t.co/kRgPKurIxI</a>
20	안***	"추사 김정희의 실사구시란? 사실에 의거하여 진리를 찾는 것" @cheolsoorang동양학은 역시 심오합니다. 실사구시... 사실에 의거하여 진리를 찾는다! 이 말을 우리는 너무... <a href="http://t.co/eRTIPXgIUc">#안사모</a>
21	쑈***	대정읍 추사 김정희 유배길 걷는 도중, 오래된 돌하루방이 곳곳에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표정도 어찌나 유쾌하신지... <a href="http://t.co/Pvwjkza0zD">http://t.co/Pvwjkza0zD</a>
22	팔***	네모 세모 동그라미는 각각 뭐더라 땅이랑 세모는 모르겠고 동그라미가 우주? 암튼 그렇게 표현하던데.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는 이 세가지를 모두 품었다고 해서 최고의 그림이라고 평가받고 그렇지 않았다
23	아***	이 쌍봉나타의 표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술의 근본인 것이다! 쌍봉나타의 표현의 대가로는 음악계엔 베토벤 모차르트!! 문학계엔 셰익스피어!! 미술계엔 피카소와 고호!! 우리나라엔 추사 김정희 선생과 신윤복 여인이 계시다!
24	D***	[예산여행] 추사 김정희 선생 고택: [예산여행] 추사 김정희 선생 고택 추사 고택은 추사선생님 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며 현재 충청남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 <a href="http://t.co/uett8b7C1p">http://t.co/uett8b7C1p</a>
25	김***	추사 김정희로 대표되는 남종화의 고고함도 좋지만, 운보 김기창처럼 화려한 채색의 북종화풍을 난 더 선호했던 것 같다. 남종화의 거장 조방원 선생의 부고 소식을 듣자니, 고사 직전이었다 북종화의 맥을 이은 이당 김은호 선생의 굴곡진 삶이 떠오른다.
26	제***	제2회 <추사 김정희 유배지 체험프로그램>이 5월10일(토) 2시부터 5시까지 실시됩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글중용의 하루 > : 추사유배지 "글중용" 마루에서 이루어지는 추사 강연... <a href="http://t.co/MQHJusREAY">http://t.co/MQHJusREAY</a>
27	S***	[간송이 사랑한 것들] 위장 오세창:미적안목을 길러준 스승 김재 정선:경교명승첩,해약전신첩<금강내산><문관암일출> 현재 심사정<죽간도권> 단원 김홍도<모구양자><황묘농경> 추사 김정희 해원 신윤복<미인도>,혜원전신첩 보화각(빛나는 보물을 모아둔 집)

연번	작성자	텍스트
28	소***	那將月老訟冥司 월로시여 열라대왕께 소원 하나 빌어 주오 來世夫妻易地爲 다음 세상에는 부부가 서로 바뀌 맺어지도록 我死君生千里外 천리 밖에서 내가 죽고 그대는 살아서 使君知我此心悲 내 마음 이 슬픔 그대가 알 수 있도록 /추사 김정희, 배소만처상
29	~***	我死君生千里外 [아사군생천리외] 나는 죽고 그대는 천리밖에 살아 남아 使君知我此心悲 [사군지아차심비] 그대로 하여금 내 슬픔 알게 하소서 추사 김정희, 배소만처상
30	낮***	추사 김정희 유배지 가는 길. 돌담길 <a href="http://t.co/ZMe3PkZMXq">http://t.co/ZMe3PkZMXq</a>
31	블***	반나절은 책을 읽고, 반나절은 고요히 앉아 있다. - 추사 김정희의 고백에 적힌 '주련'
32	제***	제2차 <추사 김정희 유배지 체험프로그램>이 4월26일(토) 2시부터 실시됩니다. 최고의 강연과 최고의 해설, 자유의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1. <글중옥의 하루 > : 추사유배지 "글중옥" 마루에서... <a href="http://t.co/qm3hOW9VwX">http://t.co/qm3hOW9VwX</a>
33	R***	물론 겉재같은 양반들은 진경기법으로 진경이 아닌 산수를 그리는 그런 존갈력을 발휘하지만 역시 나의 영원한 존잘님은 추사 김정희 뿐이다
34	날***	봉원사에 있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 <a href="http://t.co/nExmxb9w4v">http://t.co/nExmxb9w4v</a>
35	균***	추사 김정희 유배지 <a href="http://t.co/y6XZDIodK3">http://t.co/y6XZDIodK3</a>
36	L***	근데 은근히 병풍도 나쁘지 않은거 같다...제사 지낼때 쓰는 추사 김정희 글씨 프린트한거 병풍으로 만든거 보면, 대충 그런식으로 좀 손봐서 고풍스럽게 만들거나 다키마쿠라 처럼 씩마이하게 만들어도 나를 즐겁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37	김***	성관관대 제학시 기숙사생활했던 양현제생들!! 제주도에서 삼별초, 추사 김정희, 43 사건에 대해 발표 및 토론 그리고 현장답사!!! 그리운 사람들 사진으로 앞줄 가장 왼쪽 청바지 차림이 종로 고풍들이 김원열~ <a href="http://t.co/s8SumncPUo">http://t.co/s8SumncPUo</a>
38	C***	일년에 딱두번. 간송미술관 올봄전시는<사군자대전> 탄은 이경의 墨竹, 설곡 어몽룡의 墨梅, 현재 심사정의 墨菊, 추사 김정희의 墨蘭. 구구절절보다 직접봐야 확 와닿는 명품 사군자 100여점. 15~29일.
39	g***	추사김정희의 제주유배지 지킴이 5월 봉사자모집 합니다. <a href="http://t.co/qEUAcQ1qZ7">http://t.co/qEUAcQ1qZ7</a>
40	강***	나에게도 초의가 있는가?: 추사체 세한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추사의 친구 '초의선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1840년 김정희는 서기포시 대정을 안성리에 유배되었다. 정치적인 이.. <a href="http://t.co/NuYAbmN17e">http://t.co/NuYAbmN17e</a>
41	동***	@hwany73a @minham6 @dbsT1 @YongbaeKim1 @SamuelWKim1 @wt_nature 그래서 김조순은 추사 김정희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 딸을 순조의 왕비로 만들었고, 그래서 권력은 외적인 안동 김씨로 넘어 가요.
42	정***	[오설록]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지 지킴이 5월 봉사자 모집 <a href="http://t.co/jgOOHsuNOO">http://t.co/jgOOHsuNOO</a>
43	과***	과천시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학문과 삶의 모습을 가장 직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 '2014년 상반기 기획전-추사가 보낸 편지전(展)'을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추사박물관에서 연다
44	몽***	@baamco 밤코시여 저는 엄청나게 생각 있습니다 저 지금 공서체를 뛰어넘어 추사 김정희가 되어 갓을 쓰고 막을 갑니다 지금 저는 그 정도로 진지한 것입니다 <a href="http://t.co/lBnmyWhLcy">http://t.co/lBnmyWhLcy</a>
45	ㅡ***	(추사 김정희) 뜨락에서 복사꽃이 눈물 흘린다. 어찌 가랑비 속에서 울고 있는가 주인이 병든지 오래라 봄 바람에도 감히 옷지를 못한다네..
46	역***	홍선대원군의 정치가로서의 모습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의 예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는 추사 김정희의 문하에서 글과 그림을 배웠고, 특히 난초화로 명성을 크게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석파란石坡蘭으로 알려진 난초화조.
47	모***	남이야 동쪽으로 가건 서쪽으로 가건 상관하지 말고, 다만 자기 본분을 잘 살피 맹렬히 힘을 쏟는 것이 옳다! - 추사 김정희
48	까***	추사 김정희가 자주 찾았다는 곳, 안덕계곡 <a href="http://t.co/OIORdLT1vr">http://t.co/OIORdLT1vr</a>
49	연***	@seonnye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벼루를 10개나 같이 바닥에 구멍을 냈답니다. 벼루를 고운 여인의 살결처럼 생각한다면 차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50	金***	@luckduck7 비봉 봉우리에 비석이 있었는데 추사 김정희 선생이 비문을 해독하여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원래 있던 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있고 지금 비봉에 세워져 있는 것은 모조품이라고 합니다. ^^
51	조***	여동생과 여동생딸과 오죽헌 사랑채에서. 주련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 사람과 글이 더불어 좋다 <a href="http://t.co/yKopRgX1E1">http://t.co/yKopRgX1E1</a>
52	쟁***	이 세상 최고의 모임 / 추석: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는 글씨와 그림의 전통적인 서식체인 문자 미(文字 美)의 틀에서 벗어나 한자의 본원적특성인 회화.. <a href="http://t.co/UEBOGMhze7">http://t.co/UEBOGMhze7</a>
53	럭***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지리산 사성암의 야생녹차를 강화도 관우물의 좋은 물로 정성껏 끓였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명선(茗禪: 차를 마시며 선에 들다)이 려인 다포를 깔고, 박달나무 찻간받침에... <a href="http://t.co/yuwSVIGFIA">http://t.co/yuwSVIGFIA</a>
54	연***	영조임금의 따님인 화순옹주의 증손으로 남부리울 것 없는 생활을 하였으며 중국의 거유(巨儒)들과 교류하며 조선 최고의 학자로 성장했던 추사 김정희의 명성은 일찍부터 조선과 중국 땅에 자자했지만 그의 작품들은 너무 자신감이 있고 기품기가 많아서 기품기를
55	토***	추사 김정희가 즐겨 찾았던 안덕계곡/제주힐링여행 <a href="http://t.co/JFwykZjBUt">http://t.co/JFwykZjBUt</a>
56	京***	추사 김정희는 고급의 필법을 참작하여 추사체를 개발했고 또 무학대사비로 알려진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최초로 고증해냈다. <금석과안록>, <세한도> 등을 남겼다. <a href="http://t.co/EXvBkv8voO">http://t.co/EXvBkv8voO</a>
57	L***	옛날 사람들이 더 달살들게 살았던 것 같다.. 추사 김정희가 부인에게 썼던 편지도 그렇고.. 저 백석 시인의 작업방법도 그렇고...ㅋㅋㅋㅋ
58	까***	살다보면 평생 벗하고 싶은 사람 하나쯤 만나게 마련이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추사김정희와 초의선사가 나눈 우정처럼,사심없이 예로 존중할 줄 알고,마음으로 위로할 줄 아는 그런벗이 그리울때가 있다.-겉는것이쉬는것이다-
59	정***	@praise0224 TT TT 타고 나는거 같기도해요...한석봉과 추사 김정희님을 떠올리자면...흠..전 이번생엔 명필은 틀렸어요
60	김***	추사 김정희는 조선시대 예술과 학문을 자신의 내면적 경지로 일으켜 세워, 조선을 넘어서 동아시아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제주도 유배시절 그 유명한 세한도를 통해 우리는 추사의 내면적 경지를 가늠할 수 있다. 위대한 예술가, 추사. -사로-

연번	작성자	텍스트
61	A***	추사 김정희 생가를 가는 중. 근데 얼마 저거 비구름이야?.. <a href="http://t.co/myeka0J9Oy">http://t.co/myeka0J9Oy</a>
62	D***	[예산소식]추사 김정희 선생의 '묵적을 따라 길다' ~: 추사 김정희 선생을 떠 올리면 가장 먼저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일필휘지했던 멋진 묵향 내용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 저.. <a href="http://t.co/R4VtUG6h2I">http://t.co/R4VtUG6h2I</a>
63	손***	월로시여 열라대왕께 소원 하나 빌어 주오 다음 세상에는 부부가 서로 바뀌 댕어지도록 천리 밖에서 내가 죽고 그대는 살아서 내 마음 이 슬픔 그대가 알 수 있도록 /추사 김정희, 배소만치상" <a href="http://t.co/3GQIKS001D">http://t.co/3GQIKS001D</a>
64	D***	[예산여행]화순옹주의 애절한 사랑이 담긴 홍문: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것 같은데 추사 김정희 선생의 증조모이셨던 화순옹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 오늘은. <a href="http://t.co/a8jm6gCztz">http://t.co/a8jm6gCztz</a>
65	창***	얼마 전 개관한 추사박물관이 1만 번째 방문객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a href="http://t.co/KZ7oLJQlxt">http://t.co/KZ7oLJQlxt</a> 『세한도의 수수께끼』는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 「세한도」를 둘러싼 비밀을 수학으로 풀고 있는데요, 책을 읽고 박물관에도 방문해 보면 어떨까요?
66	D***	예산에 새로운 명소가 탄생될 예정인데요.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추사의 거리'예요! 궁금하시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a href="http://t.co/pMXTg9rINM">http://t.co/pMXTg9rINM</a>
67	D***	[예산여행]예산 추사기념관을 찾아서 .....: 예산 추사기념관은 사 김정희선생의 드높은 서예정신과 위대한 업적을 새롭게 조명하고 후세에 남긴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전시하여 추사.. <a href="http://t.co/TNUyaQtgNP">http://t.co/TNUyaQtgNP</a>
68	지***	@solsol2728우리나라가 이 모양의 개차만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게 노론 벽파시절부터라고 하죠. 추사 김정희가 힘있는 노론이었을 때는 독특한 서체를 창조한 소론의 원고 이광사를 비하하고 따돌렸지만 그 역시 유배 후에는 실력을 인정했군요.
69	김***	추사 김정희의 예술세계는 복잡했다. 추사가 명성을 얻어감으로써 점점 거만해져 그의 글씨나 그림에도 그 같은 마음상태가 반영됐다. 물론 유배생활을 함으로써 그의 거만함은 점차 완화되기는 했으나, 예술가의 예술세계는 그 마음상태를 반영한다 할 수 있겠다.
70	황***	예산군내 천연기념물 '백송'을 아시나요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추사 김정희 고택(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798) 인근 백송 공원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106호인 예산 용궁리 백 송은 수령 약... <a href="http://t.co/eAqdTIUXyh">http://t.co/eAqdTIUXyh</a>
71	n***	추사관 / 추사유배지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세한도의그곳과같은느낌의건축물이빛나는추사유배지와추사관.추사김정희선생님의여러서문과탁본이전시되어있고,승효상님의공공건축물에대한감각을느낄수있게하는곳입니다.제... <a href="http://t.co/GvLZfmx8bZ">http://t.co/GvLZfmx8bZ</a>
72	한***	오묘히 얇은 자리 차를 마시다 향을 사르니 묘한 작용이 일어나며 물 흐르고 꽃이 피네... <추사 김정희> 차실은 잔잔한 심미적, 감성적 즐거움으로 색,향,미를 음미하여 건강,행복,사랑과 나눔의 공간이 됩니다. <a href="http://t.co/spqQcSH5lb">http://t.co/spqQcSH5lb</a>
73	M***	@anime317 휴양지라뇨.... 그 옛적 추사 김정희님도 오신 유명한 유배지인걸요.
74	스***	2.오늘처럼 내 마음에 태풍이 불아치는 밤이면 바다가 내게 와서 나 대신 울어주기도 한다네. 나는 소나무 안의 바다를 그리며 그 바다 안에 햇살처럼 번진 완벽한 조화의 힘을 찾아 순례자처럼 떠돈다네. -추사 김정희<제주에서 보낸 편지> 중에서
75	이***	'추사고택에서의 하룻밤' 어린이 추사문화체험단 3기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까르르 까까 거리는 아이들, 이곳이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옛집이란다.
76	미***	내가 전생애 추사 김정희였다!
77	김***	제일좋은반찬은두부,오이,생강,나물제일좋은모임은부부,아들,딸,손자"....추사김정희
78	정***	양평의 자랑인 세미원에 새로운 명물이 생겼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세한도에 나오는 송백헌을 그대로 재현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합니다. 세미원 곳곳을 거닐어 봅니다. 놀러 오세요. 철학이 있는 정원,세미원으로...
79	문***	서귀포 추사 김정희 유배지. 계단이 특이함 <a href="http://t.co/68Z0dljGd6">http://t.co/68Z0dljGd6</a>
80	j***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보면 저게 왜 유명한걸까 싶었다. 어떻게 봐야 되는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그림의 그려진 연유를 알고 나서야 왜 그런건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갔다. 음악도 그림도, 사람의 삶에서 출발한다.
81	장***	추사 김정희 '세한도' 그림 밖으로 나오다 <a href="http://t.co/gC5WedEw6u">http://t.co/gC5WedEw6u</a>
82	신***	@jaseungjagang 오늘은 추사 김정희와 세한도, 그리고 그 안에 쓴인 논어의 한 글귀인 "춤고 힘들 때가 되어야 비로소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나중에 시들을 안다"는 뜻을 한 속담에 같이 새겨 담았습니다. 매일이 배운이고 배웠던 듯합니다.
83	과***	추사김정희 선생의 학문과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추사박물관으로 놀러오세요!!^^ 지난 6월 개관했는데요, 개관기념으로 오는 8월말까지 무료관람 하실 수 있어요!!^^~ <a href="http://t.co/lxOnfkpu0z">http://t.co/lxOnfkpu0z</a>
84	최***	"완원선생과 완당선생(추사 김정희) 간 교류를 조망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여의도일기> 417일째 (2013년 7월 20일 토요일) <a href="http://t.co/40lJs5Zd9">http://t.co/40lJs5Zd9</a>
85	이***	추사김정희유배지_ 위리안치의8년3개월형벌,제자이상직의 고향에대한반담으로 세한도(한겨울추운날씨가된다다음에야)를 그려주었습니다. 고통이 예술을 낳고 예술은 영원함을 세삼 느낍니다. <a href="http://t.co/fvEUVIKZiX">http://t.co/fvEUVIKZiX</a>
86	오***	굴복하고 움츠러서야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나는 내가 살아온 지난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맹렬과 진심으로 요구하다 얻은 삶, 내가 예견하기도 했던 삶이기 때문이다. 추사 김정희가 반추한 자신의 삶입니다. 삶에게 요구하십시오. 맹렬과 진심으로.
87	손***	7월21일=1817(조선 순조17)년 오늘 추사 김정희, 북한산 진흥왕순수비 관동 1884(고종21)년 오늘 의열단 김지섭열사 태어남 1898(대한제국 광무2)년 오늘 동학 2세 교주 최시형 처형 1902년 오늘 소설가 백몽 채만식 태어남 <탁류>
88	경***	시들지만 늦게 지는 측백...그 지조에 화답한 세한도: 1830년 3월 어느 날, 추사 김정희(1786~1856)는 서울 용산에 머물고 있었다. 입춘이 지났지만 날씨는 한강에서 불어오는... <a href="http://t.co/4yUJ7kbZaf">@hanitweet</a>
89	오***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풍과 절망의 절해고도는 실은 반성과 각성의 성소였고, 평생 내 머리에 남을 명정한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유배 생활의 고단함마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의연함이 느껴집니다.
90	레***	맹렬과 진심으로 요구를 하되, 당당히 하라. 복숨을 걸고 하라. 그래야 너의 진정성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추사 김정희]
91	오***	사실을 밝히는 것은 책에 있고, 이치를 따지는 것은 마음에 있네. 옛것을 고찰하여 현재를 증명하니 산은 높고 바다는 깊네. 추사 김정희가 스승 율방강의 정신을 기린 시입니다. 독서로 눈이 밝아지고 마음으로 깨달음에 다다르면 각기 제자리가 보입니다.
92	즐***	100_쭉RT @odoomark: "사실을 밝히는 것은 책에 있고, 이치를 따지는 것은 마음에 있네. 옛것을 고찰하여 현재를 증명하니 산은 높고 바다는 깊네."-추사 김정희- 독서로 눈이 밝아지고 마음으로 깨달음에 다다르면 각기 제자리가 보입니다."
93	선***	벼루 10개를 구멍내고 붓 1,000자루를 몽당뭇으로 만들면서 추사제를 완성... (제주 유배지에서 8년간에 걸쳐) 이 분이 누구? 추사 김정희... 엄청난 노력을 했군요~ 한국사에서... <a href="http://t.co/CbFQYTdYcV">http://t.co/CbFQYTdYcV</a>



연번	작성자	텍스트
94	원***	조선시대 4대 명필은 안평대군, 봉래 양사언, 한석봉, 추사 김정희이고, 우리나라 4대 명필은 신라 김생, 고려 대감국사 탄연, 조선전기 안평대군,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 라고 한다. 이 중 제일의 명필은 추사 김정희 라고 한다.
95	정***	열 개의 벼루를 구멍뚫고 천 개의 붓을 닦게 했다. - 추사 김정희
96	지***	'헛차는 어찌하여 들샘과 솔바람 사이에서 혼자만 마시고 먼 데 사람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가. 삼십대의 뽕둥이를 맞아야겠는가.' (제주도에 유배 중인 추사 김정희가 동갑내기 승려 초의에게)
97	s***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이란... RT @coreacom: RT @idreamer: 가슴속에 1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98	나***	역시 추사 김정희 IT 존경 사모하나이다.. "@sunshine_film: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이란... RT @coreacom: RT @idreamer: 가슴속에 1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99	목***	의문당(疑問堂)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 유배시절, 대경 향교의 유학생들 공부방인 동재에 써준 현판. 항상 의문을 갖고 궁금해하고, 이게 있어야 진실에도 다가갈 수 있지.
100	구***	[제9차]충남서편에서 벚꽃이 필때면 - ⑤ 추사 김정희 고택 <a href="http://t.co/hmLAVRGJm0">http://t.co/hmLAVRGJm0</a>
101	손***	6월3일=1646(조선 인조 24)년 오늘 임경업장군, 청나라에서 풀려나 돌아옴 1786(조선 경조 10)년 오늘 추사 김정희 태어남. 추사는 1백여 개가 넘는 호를 썼다. 자는 원춘(元春) 하나이지만 <완당인보>에 나온 호만 185개
102	E***	근대 탁본해보니까 비석 앞면말고 옆면에도 뭐가 글씨가 써있는데, 그거 해독해보면 "나 추사 김정희가 한강유역에 있던 이 진흥왕 비석 발견함 ㅇㅇ" 대충 이런내용 (.....) 옛날 비석에다가 말대로 글자 파놓았으니 문화재손실이긴해도 처벌도 못하고;;
103	성***	"@idreamer: 가슴속에 1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가슴속에 1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코드와 패턴이 된다... 9,990원쯤 나왔나...?
104	홍***	기쁨이 깊이가 있어서 권합니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얘기 Daum 블로그 - <a href="http://t.co/19Zv0SjufX">http://t.co/19Zv0SjufX</a>
105	거***	추사 김정희 작품 관련해서 용감하게 간송미술관 큐레이터들과 유용준을 툰 사람이 있었다. <a href="http://t.co/ppU8doZIWX">http://t.co/ppU8doZIWX</a> 김용욱을 발라보려 시도했던 이경숙도 생각나지만 난 이런 이단아들은 일단 지지.
106	루***	추사 김정희 할아버지를 만나러 추사고택에 <a href="http://t.co/AREI225isA">http://t.co/AREI225isA</a>
107	불***	그 무덤 불교가 조선시대 조종기의 억압에서 벗어나 명성 높은 문인과 역시 고명한 스님 사이에 세속을 떠나 돈독한 친교가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차의 대가 초의선사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가 그런 사이였다. 심전 일운 합장.
108	순***	추사 김정희의 시조를 응용해보았다.
109	p***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추사 김정희) 1470만이 지지했던 문재인의원이 시들었다구? 이보시게들 '월~~'이라고 아시는가....
110	유***	승례문 현판에 얽힌 비밀... "누가 쓴 글씨인가" - 신숙주의 아버지 신장이 썼다는 설도 유명합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자신의 시문집에서 "승례문 편액은 곧 신장의 글씨로, 깊이 뱃속까지 치고 들어갔다"며... <a href="http://t.co/283WvLLC0f">http://t.co/283WvLLC0f</a>
111	이***	한번 바나리고 한번 바람 부는 사이에 봄이 떠나갈 길을 재촉하여 하마 푸른 잎을 두터워지고 붉은 꽃은 어위어감을 깨닫게 되니 어려모로 마음이 산란하여 견잡지 못하겠거늘.<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시 장인석에게 보낸 편지중 >
112	제***	@NeckoFlower 마치 중국에 와있는듯한.. 풍경이죠. 추사 김정희선생님이 뽕죽한 단산을 좋아하셨다니요...멋드러진 글씨 추사제도 이 단산의 모양에서 영향을 받은것 같아요 ^^
113	P***	내일은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 26회 한국국제관광전에 가고 봉은사 관광. 봉은사의 핵심인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마지막 글씨 꼭 보고 싶다!!!!
114	진***	추사고택에서 듣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생애와 서예이야기 ^^ <a href="http://t.co/VOpoUSEehF">http://t.co/VOpoUSEehF</a>
115	S***	@chlove_u 2011년 5월 간송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추사 김정희의 수묵화들 <a href="http://t.co/vIRDVw1NgL">http://t.co/vIRDVw1NgL</a>
116	문***	조선말 정치적 모략가 흥선대원군에게 예술적인 면모가 있었으니! 특히 묵란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 <a href="http://t.co/Fa88MggUTB">http://t.co/Fa88MggUTB</a> <a href="http://t.co/bg37quDI85">http://t.co/bg37quDI85</a>
117	화***	[인제여행]추사 김정희의 맥을 이은 한국 서예계의 양대산맥인 쌍수 서예가 여조 김용현(여조김용현서예관: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받은 멋진 건축물 여조김용현서예관 한국과 중국에서.. <a href="http://t.co/YrECNcn4Im">http://t.co/YrECNcn4Im</a>
118	v***	지어드린 건 다들 갠췌했는지 모르겠네요. 가법게들 생각하시길. 의미도 중요하지만 요약하자면 추사 김정희선생은 500개도 넘는 호를 가지셨다합니다. 지어 부르면 장맹인거죠 ㅇㅇ
119	권***	옥산서원(玉山書院) 현판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 바로 뒤의 구인당(求仁堂) 현판은 한석봉의 글씨. <a href="http://t.co/N8wSkqpiyV">http://t.co/N8wSkqpiyV</a>
120	c***	@bolcobo1922: @catcd19 추사 편지에 초의가 보고싶어 간밤에 눈꼽이 다 끼었다고... 했던것도 있음요ㅇㅇ 여러분 추사 김정희가 실은...
121	경***	[낮은 목소리로]리히설이 끝나면 무엇을 할까? 추사 김정희의 글씨 가운데 '소창다명 사야구좌(小窓多明 使我久坐)'라는 말이 있다. "작은 창으로 빛이 많이 들어오니 나로 하여금 오래... <a href="http://t.co/ca8qhCp03E">http://t.co/ca8qhCp03E</a> @kyunghyang
122	한***	하늘이 내린 정원이라고 불리는 "순천만"의 국제정원박람회 소식과 추사 김정희의 에트한 부분에 이야기까지...다양한 소식이 있는 4월8일자 한국교직원신문을 소개합니다. > <a href="http://t.co/QiidnOZVKf">http://t.co/QiidnOZVKf</a> <a href="http://t.co/BHTqADLIY3">http://t.co/BHTqADLIY3</a>
123	준***	@fondant84 용꿈꾸고 태어난 이윤곡 이력사사람보다 김득신 헬렌켈러 같은 사람이 훨씬 위인적인 가치가 있음(물론 김득신도 태몽은 좋은거겠지만...;)추사 김정희도 무슨 산천의 정기를 다 타고났네 어찌해봤자 당파싸움에 불우한 인생 보내고 별거없어
124	K***	다양한 미술애호가들의 애장품을 전시중인 가나아트센터의 <나의 붓, 나의 애장품>전. 전시특성상 일관된 컨셉은 없지만, 경제정신이나 추사 김정희에서 김환기, 천경자등 한국의 작품부터 몽크, 워홀, 줄리안 오피까지 다양한 작품들에 눈이 호강한다.
125	보***	추사 김정희 유배지 _ <a href="http://t.co/M1ofuBh5Q">http://t.co/M1ofuBh5Q</a> <a href="http://t.co/hbqEHPWLKV">http://t.co/hbqEHPWLKV</a> <a href="http://t.co/C14vQZNVfn">http://t.co/C14vQZNVfn</a> <a href="http://t.co/W5JeGzpJ3D">http://t.co/W5JeGzpJ3D</a>
126	m***	Dramatic RT @factoll: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 기구한 운명을 되돌아본다 - <a href="http://t.co/d9q7oiyodC">http://t.co/d9q7oiyodC</a>
127	한***	선운사에서추사김정희추사신필이다 그에동국전체문글씨와글씨이동국전체선운사천왕문현판전주서예교본질의현판전라도그곳추사제주도추사초의대홍사글씨글씨천은사물의현판서체제글씨선운사대운전현판특히현판에파란색호방한글씨아름답다 선운사정비며현판문머리박물관동백천왕문다벚꽃동백숲다

연번	작성자	텍스트
128	선***	추사 김정희는 호가 무려 503개나 되었다고;; 다중 아이디로 악플달고 다녔나.
129	b***	오늘도 그림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다른 그림에 비해 못그림에 분명함에도 유명하다는.. <a href="http://t.co/xG8BiEnWDC">http://t.co/xG8BiEnWDC</a>
130	한***	[행복한 The-K의 주말계획] 추사제와 세한도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 제주도에는 추사 유배길이 있는데요. 이번 주말 추사 유배길을 걸으며 제주도의 봄과 추사 김정희의 예술정신을 느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a href="http://t.co/yhBRkr73W">http://t.co/yhBRkr73W</a>
131	최***	붓글씨의 대가 추사 김정희가 세상 떠나기 거의 직전 봉은사에 써준 '관전'을 보면 '대교약술'이란 글귀가 떠오릅니다. 아주 정교한 것은 어딘가 서툴러 보인다'는 ... 대가의 무욕 무심의 경지가 느껴지는데요 <a href="http://t.co/A6QZtjN6IU">http://t.co/A6QZtjN6IU</a>
132	H***	추사 김정희가 아들에게 보낸 다섯가지 인생 지침 <a href="http://t.co/IWBjnr0H7">http://t.co/IWBjnr0H7</a>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쓴 편지처럼.. 훌륭한 우리의 자랑스런 조상의 흔적들...!
133	강***	[ #layou ] 추사 김정희 선생 고택을 찾아서 <a href="http://t.co/gw0K9V7EMk">http://t.co/gw0K9V7EMk</a>
134	我***	세한도가 뭐어..오매.....추사김정희가 세운 학교여? .....완당세한도 뜰네
135	황***	세한도 등 추사김정희 선생의 작품이 시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해초 박학규 소목장 초대전을 4월 10일까지 운영합니다 <a href="http://t.co/otweR0z1mZ">http://t.co/otweR0z1mZ</a>
136	황***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 위치한 추사 김정희 고택에 추사 동상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추사동상 건립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지원금과 예산군, 과천시, 제주시에서의 지원금, 기금마련행사 등의 모금을 통해 총 7억원을 투입 동상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137	성***	추사 김정희 71세 사망 3일전 마지막 쓴 글씨 관전. 강남 수도산 봉은사내 2013.3.26.13:00 나홀로 호국부승 성호 합장 <a href="http://t.co/3jCFpyVMtM">http://t.co/3jCFpyVMtM</a>
138	m***	추사 김정희 이야기 추사 김정희'가 귀양길에 올랐다 약관의 나이에 그 글씨와 학문의 깊이로 이름을 날리던 특유의 세월을 뒤로 한 채 떠나는 귀양길이다. 제주도로 건너가기 전, 해남 대홍사... <a href="http://t.co/Q59hJRhkel">http://t.co/Q59hJRhkel</a>
139	***	1856년 프로이트 탄생, 추사 김정희 사망
140	한***	추사 김정희
141	H***	오늘(2/7) 저녁7시반 tbs방송(FM95.1MHz) "여균동의 오늘(4부)", '도시는 살아있다'에서는, 최근 종로구 환경정비(?)사업으로, 역사(추사 김정희 별서터)/생태 훼손(도농농 서식지)이 우려되는, 부암동 백사실 계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42	경***	추사 김정희 '귀양살이' 체험 관광상품 나온다. '추사제'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생활을 체험하는 관광상품이 나온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를 찾는 수학여행단 등을 대상으로 추사... <a href="http://t.co/54QrRi49">@kyunghyang</a>
143	류***	자하청류. 과천8경 중에 제7경. 겨우내 풍뎡이 열었던 열음이 녹으면서 맑고 청아한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시름을 잊게 한다! 추사 김정희, 우암 송시열 등 많은 목객들이 시를 짓고 암각문을 남긴 명소. <a href="http://t.co/uPLQgrtfxy">http://t.co/uPLQgrtfxy</a>
144	M***	추사 김정희의 예화 수선화... 백옥같은 만첩 위에 금색 잔이 얹힌 모양이라 해서 '금잔옥대'라고 부른다. 1~2월 제주에선 지천에 널린 수선화를 볼 수 있다. <a href="http://t.co/CIKpkqAP">http://t.co/CIKpkqAP</a>
145	f***	지식채널e.130123.문화유산 시리즈 - 추사 김정희의 봉은사 관전: <a href="http://t.co/tP5aOzX7">http://t.co/tP5aOzX7</a> 왜 탁월한지에 대한 설명없이 이렇게 끝내면 어찌라고.
146	과***	'응답하라 추사 김정희' 추사박물관 겨울방학 교육프로그램 신청 안내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요~!참조해 주세요요^^ <a href="http://t.co/PjUbYeYdD9">http://t.co/PjUbYeYdD9</a>
147	담***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 일명 '추사고택'에 걸린 '세한도'... 당쟁에 휘말려 제주에서 9년 유배생활의 고단함이 묻어난 추사의 대표작! 북청에서 1년 유배를 더 살고 71세 나이로 타계했다! <a href="http://t.co/GhdVj0MA7j">http://t.co/GhdVj0MA7j</a>
148	조***	정약용 추사 김정희, 조의선사(자의 개조)가 어울린 전남 해남 일지암에서 법인 스님이 삶의 열정이 넘쳐나는 청년들을 30일 일가수행에 초대합니다 <a href="http://t.co/JPbGIRiPJf">http://t.co/JPbGIRiPJf</a>
149	담***	■추사 김정희 선생의 합장묘... 첫째 부인 한산이씨 묘에 추사 묘와 둘째 부인 예안이씨 묘를 이장하여 3위를 합장했다고 한다! 봉분 뒤에 자라난 소나무가 제법 세한도의 송엽고목을 닮아가고 있다... <a href="http://t.co/EiNRjYrR9j">http://t.co/EiNRjYrR9j</a>
150	김***	사란유법불가 무법역불가. 난초를 그리는데 법이 있어 옳지 않고 법이 없는 것도 옳지 않다. 추사 김정희
151	v***	추사 김정희를 그리다. (편지지기의 작업실에서 피웁) <a href="http://t.co/0Pw81KQRMH">http://t.co/0Pw81KQRMH</a>
152	사***	무더위에 그대를 떠나 보내니 내 심경 정말 심란하다오 황량한 풍경을 그려주노니 <북풍도>만은 할까요? #추사_김정희
153	사***	가을비 추적추적 내리는 밤 문 닫아 걸고秋雨蕭蕭夜掩關 다락 앞에서 촛불 켜고 물과 산을 그린다.樓前秉燭寫溪山 성긴 숲과 얇은 골짜기의 황량하고 쓸쓸한 모습疏林短壑荒寒應應 그제 바로 세속을 벗어난 그윽한 정취라네.自是幽情出世間 #추사_김정희
154	사***	'장무상망(長母相忘)'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 나는 그대의 그 마음을 오래도록 잊지 않겠네. 그대 또한 나를 잊지 말게나. 고맙네 #장무상망_추사_김정희
155	최***	회화 중에서 현재 국보로 지정된 그림의 주인공은 공재 윤두서,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추사 김정희 다섯 명뿐이다. <명작순례, 유홍준>
156	최***	조선시대 4대 명필은 봉래 양사언, 안평대군, 석봉 한호, 추사 김정희. 안평대군은 유려하고 격조 높은 行書, 한호는 정확하고 또렷한 楷書, 김정희는 추사체로 이름이 높았다면 양사언은 거칠 것 없는 호방한 草書가 특기였다. <명작순례, 유홍준>
157	D***	[예산여행]추사 김정희선생의 행보를 되돌아보자, 예산추사기념관! 여러분은 추사 김정희선생에 대해 잘 알고계신가요? 추사체를 만드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예가이자, 고종학자,화가,실학.. <a href="http://t.co/gIPxXMXfwt">http://t.co/gIPxXMXfwt</a>
158	K***	[뉴스광장 영상] 추사고택 <a href="http://t.co/tCuWTAzKAZ">http://t.co/tCuWTAzKAZ</a> 추사체라는 서체로 이름을 떨친 명필 김정희가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던 집입니다. 소박한 분위기가 남아있는 옛집의 윤치를 함께 느껴보시죠 ^^ <a href="http://t.co/qhVAJ7EzG">http://t.co/qhVAJ7EzG</a>
159	북***	북산(北山) 김수철의 <송계한담도(松溪閑談圖)> 추사 김정희의 인문학적 비학을 회화적으로 수용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먹의 맑은 기운으로 소나무 계곡의 청량함을 나타내는 서양 수채화의 영향이 보인다. <a href="http://t.co/W3V2uYVoCP">http://t.co/W3V2uYVoCP</a>
160	북***	추사(秋史)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 '추운 세월을 건디는 그림'이라는 제목에서 보듯, 유배 생활시절 세상 인심에 대한 당시 추사의 심사를 잘 담은 걸작이다. 오늘 추운 날씨와 잘 어울릴 것 같다. ^^ <a href="http://t.co/nKb7TCS09f">http://t.co/nKb7TCS09f</a>
161	고***	추사 김정희가 유배생활을 했던 곳도 둘러 관람했습니다. 추사의 여러 작품들을 전시한 박물관도 있었어요. 오시는 분들이 적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문화컨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a href="http://t.co/lzewmH6YIT">http://t.co/lzewmH6YIT</a>





연번	작성자	텍스트
195	진***	@g100009 "추사.김정희 선생의 추사체"의 일부입니다. <a href="http://t.co/usXwB1FUpo">http://t.co/usXwB1FUpo</a>
196	2***	박성현(@bangmo) 박정희 대통령은 추사 김정희의 그림에 나오는 바위를 뚫고 몸부림 치는 소나무 같이 척박한 환경에서 [생명의 길]에 관한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이다 <a href="http://t.co/aPuX6nYW7U">http://t.co/aPuX6nYW7U</a> <a href="http://t.co/AN6aMnQUfi">http://t.co/AN6aMnQUfi</a>
197	문***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고단했던제주유배시절의추사김정희와松柏과같은제자이상적,조선지식인의핏속에면면이어져온의리와절개...[네이버]세한도(歲寒圖)_김정희 <a href="http://t.co/wzB5shvS">http://t.co/wzB5shvS</a>
198	그***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 세한도_추사김정희 겨울바람에 소나무향이 퍼지는 겨울숲에 가고 싶다.
199	Y***	눈 시린 겨울...푸른 제주'가 주는 위로~제주에서 귀양살이를 했던 추사(김정희 · 1786~1856)가 몹시 사랑했던 꽃 수선화. '금잔옥대(백옥반침에금으로만든잔이 없던듯한모양)'엔 술 대신 향기가 가득<해럴드경제> <a href="http://t.co/ybf2QgZm">http://t.co/ybf2QgZm</a>
200	l***	RT @southengland123: 눈 시린 겨울...푸른 제주'가 주는 위로~제주에서 귀양살이를 했던 추사(김정희 · 1786~1856)가 몹시 사랑했던 꽃 수선화.'금잔옥대(백옥반침에금으로만든잔이 없던듯한모양... <a href="http://t.co/o7uEINyA">http://t.co/o7uEINyA</a>
201	별***	세한도가 떠오르는 이 풍경들.. 추사 김정희에게라도 화폭이 하고픈 모든 움직임이 어는 추위로구나
202	J***	'가슴 속에 노래 1만 곡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 음악과 노래가 된다.' 요렇게 받아갑니다~~~~@502coffee_: 가슴속에 1만 곡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203	김***	@PresidentVSKim 추사 김정희가 태어났음에 그마음 우물물이 다 말라버렸다면 한 인물 태동시키려나봅니다..
204	j***	다산 정약용의 서체와 추사 김정희의 서체. 예리하고 진중함. 서체와 성격은 닮았을까? @동암 <a href="http://t.co/1JdQexn6">http://t.co/1JdQexn6</a>
205	이***	일반인이 쓰면 약필이고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쓰면 명필이다. 요즘 펜을 많이 쓰다보니 글씨가 날아가는 새 같다. 귀엽게 썼던 글씨가 이젠 약필이 되다니 슬프다 ㅠㅜ
206	J***	*~* @byhee_100: RT @bonlivre: 가슴속에 책 만 권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넘쳐 그림과 글씨가 된다. -추사 김정희 <a href="http://t.co/MaF0BD6T">http://t.co/MaF0BD6T</a>
207	J***	RT @bonlivre: 가슴속에 책 만 권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넘쳐 그림과 글씨가 된다. -추사 김정희
208	U***	추사 김정희 세한도를 보는듯한 범정스님의 삶자체가 주는 의미는 큰깨달음을 얻은 큰스님이 던지는 범문과는 또 다른 질문과 감동을 전한다.
209	S***	@Geecheae 김재 정선의 폭포수와 추사 김정희의 필치가 살아움직이는 4D 관람효과를 누리며 관람객들은 야광봉을 흔들겠지... 종이안경도 팔까 셀로판지 단가가...
210	허***	RT @DokdabangDJ: 治國 이야기(14-11) -일민일부 죽지교배/ 한 번 귀하고 한 번 천함에 곧 사귀의 정이 나타나네 (一貴一賤 卽見交情 -일귀일천 죽헌교정) 이런 점을 추사 김정희는 세한도(歲寒圖)에서공자님 말씀을 화제로 써 유명하다.
211	정***	장암 이삼만 선생의 출생지 정읍시 부부마을로 안내합니다. * 장암 이삼만 선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사 김정희 선생과 동시대에 쌍벽을 이루던 '유수체'의 창시자라고 하네요~ <a href="http://t.co/gpg94CDn">http://t.co/gpg94CDn</a>
212	임***	추사 탄신일을 기억하는 사람들 <a href="http://t.co/1GyKT3E8fx">http://t.co/1GyKT3E8fx</a> 김정희 선생이 돌아가신지 157년, 후학들은 여전히 선생의 생신날에 모여 예를 올리고 경신을 기린다. 더운 여름날임에도 차를 준비하고, 연밥을 찌고, 향을 피우고, 화...
213	e***	봄빛 걷어 이슬 많고, 땅 풀러 풀 들다. 산 깊고 해 긴데, 사람 자취 고요하니 향기만 쏜다. 추사 김정희 울어도 좋고, 서러워를 즐기는 것이요. 3. 삼주(三酒): 벗을 청해 세상사 논하며 술을 마시는 것이다. <a href="http://t.co/qK886VAn7O">http://t.co/qK886VAn7O</a>
214	휘***	애정이 가장 많이 느껴진 시는 추사 김정희 시였다. 다음 생에 우리 바뀌어 태어나 내가 먼저 죽고 그때만이 홀로 살아남아 이 슬픔을 알게 하리라.
215	조***	'일필휘지'를 부르는 광주 명불, 진다리붓: 붓글씨 좀 쓴다는 사람 중에 제주도로 여행갈 계획이 있다면 가볼 만한 곳이 있다. 추사 김정희 유배지다. 1840년부터 9년간 제주에 귀양 와 남긴 글이 그... <a href="http://t.co/1GLXdc5g">http://t.co/1GLXdc5g</a>
216	J***	#제주. 대경에 위치한 추사기념관. 추사체의 단단함마냥 건축가 승효상 선생이 설계한 기념관은 미니멀함 그 자체. 시서화와 공간이 하나가 된 듯한 또 다른 세계, 그 가운데 김정희의 기운이 시간을 흐른다. <a href="http://t.co/0VMXj0D">http://t.co/0VMXj0D</a>
217	j***	추사고택. 고즈넉한 분위기의 옛집 그리고 난초그리기 체험중인 아이들 (@ 추사김정희선생고택) #아이IN <a href="http://t.co/3pNI3Hod">http://t.co/3pNI3Hod</a>
218	레***	옥산서원. 현관 글씨 by추사 김정희@ 옥산서원 <a href="http://t.co/jfBMuf70">http://t.co/jfBMuf70</a>
219	처***	추사 김정희가 말한 군자삼락 1. 일독(一讀): 글을 읽는 것이 군자의 첫째 낙이요. 2. 이색(二色): 사랑하는 사람과 운우(雲雨)를 즐기는 것이요. 3. 삼주(三酒): 벗을 청해 세상사 논하며 술을 마시는 것이다.
220	e***	[최근글] 충정의 자랑 추사 김정희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이야기 <a href="http://t.co/1CvL6iy4">http://t.co/1CvL6iy4</a>
221	=***	'판권'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추사 김정희의 글씨일 줄이야.
222	성***	"@ronrikei:習字の宿題も仕上げるニヤ#猫#書像: <a href="http://t.co/dLtS6wj1">http://t.co/dLtS6wj1</a> "천하에명필이로세~~석봉이가슴도뭉치고추사김정희가울고갈명필이로세~~ㅋㅋ
223	이***	가슴속에 만권의 책을 담아야 그것이 흘러넘쳐 글씨가 되고 그림이 된다 -추사 김정희 우리의 가슴속엔 무엇을 담아 무엇을 넘치게 해야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됩니다 유실장님♥ 유실장님가슴에 무엇을 담으셨기에 제게 좋은말들만 해주시는거죠? 존경합니다!
224	누***	@hyukjunseo @kaelshin @frombc7197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서양의 위상에 어두움. 가령 추사 김정희는 하더라도 아편전쟁에 대한 문외 청나라가 그와 영국같은 나라는 바를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
225	M***	제주도에 추사 김정희 추모관있는거 아세요?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는 제주도 유배시절 완성되었다네요 사진은 세한도 ! <a href="http://t.co/9ZuQiFxl">http://t.co/9ZuQiFxl</a>
226	이***	추사 김정희선생은 평생 붓 200자루가 많도록 글을 쓰셨다는데 나는 한 자루도 많지 않았으니 언제 추사체를 흉내라도 낼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227	석***	추사('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유배지 관람! 유려한 글씨 뿐만 아니라 당대의 석학, 지식인이었던 김정희! <a href="http://t.co/17POcvEh">http://t.co/17POcvEh</a> <a href="http://t.co/3Mr3HFwQ">http://t.co/3Mr3HFwQ</a> <a href="http://t.co/bA0Xbm74">http://t.co/bA0Xbm74</a>

연번	작성자	텍스트
228	유***	<a href="http://t.co/GzH6H8UA">http://t.co/GzH6H8UA</a> 추사 김정희 유배지에서 발견한 의문당 현판
229	노***	추사 김정희는 금석학의 대가였죠.
230	이***	[제주아트투어:추사기념관] 제주에서 만나본 세한도 "추사기념관", 아트그라피와 함께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 길을 느리게 걷다 <a href="http://t.co/mt8CF3NF">http://t.co/mt8CF3NF</a>
231	g***	속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추사관 - 요 동네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배지였다네 T T <a href="http://t.co/Th92AS2C">http://t.co/Th92AS2C</a>
232	진***	추사 김정희선생의 고난을 담은 계단 <a href="http://t.co/e1gR2RiB">http://t.co/e1gR2RiB</a>
233	하***	추사 김정희 일가의 상징이 된 백송 <a href="http://t.co/uR2B8cuP">http://t.co/uR2B8cuP</a>
234	P***	나혜석과 추사 김정희를 만날 수 있는 고장, 충남 예산 <a href="http://t.co/qMH428kV">@samsung</a> 에서
235	Y***	[心 75] 추사 김정희. <불기심란도不欺心蘭圖>. 한밤의 성과. 나중에 귀국해서 더 확인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이것인 듯. 3년 동안 막연히 그리던 것. <a href="http://t.co/ChfREfZn">http://t.co/ChfREfZn</a>
236	사***	세한도 - 김정희: 추사 김정희 [세한도] 1844년, 국보 180호수묵화, 23×69.2 cm, 국립중앙박물관작품 보러가기 [세한도(歲寒圖)]는 조선후기의 학... <a href="http://t.co/KrXgeffe">http://t.co/KrXgeffe</a>
237	손***	7월21일=1602(조선 선조35)년 오늘 문묘 대성전 준공 1817(순조17)년 오늘 추사 김정희, 북한산 신라 진흥왕순수비 관독1884(조선 고종 21)년 오늘 의열단 김지섭열사 태어남 1898(대한제국 광무2)년 오늘 동학 제2세교주 최시형 처형
238	L***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지도 좋아합니다..
239	이***	#TV미술품 (KBS1 밤 12.35) 추사 '세한도'에 얽힌 사연은? '내 마음의 작품' 김병준 변호사가 들려주는 추사 김정희 '세한도'와 얽힌 사연 <a href="http://t.co/LVzOyKl7">http://t.co/LVzOyKl7</a>
240	최***	봉은사 '대웅전'은 추사 김정희가 쓴 현판이다.. 추사는 무량수'전'을 절어서는 무량수'각'으로 낮춰 쓰다 노년엔 '각'을 '전'으로 높여 썼다... <a href="http://t.co/Ue5skwV3">http://t.co/Ue5skwV3</a>
241	한***	썩은 부위 수술해서 모든 것을 1700년전 초기 한국불교 그 순수성으로 돌아가자. 봉은사는 여러 스님과 서산대사 사명대사 추사 김정희선생. 법정스님, 명진스님의 삶의 역사와 흔적이 남아 있는 명찰! 여러 신도... <a href="http://t.co/GTKfbx30">http://t.co/GTKfbx30</a>
242	U***	추사 김정희가 세한도를 그려놓고, "내 그림은 수?십년의 수행이 농축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지는 않았으리라. 수행의 한 방법으로 선화를 그리는것은 적어도 자기현시적이어서는 곤란하다.
243	G***	조선의 아방가르드라 불리는 추사 김정희의 불멸의 서체를 보고 있노라니 내사망 맑은고딕체가 하찮아 보이는구나. 근데 요즘은 글씨보단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꼭 집어 연필로 쓱쓱 그려내는 데생.
244	김***	세상에 큰 추위가 찾아온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없이 푸름을 비로소 아네. 세한도에서 자신에게 중국 책을 보내 준 제자 이상적에게 감사를 표했던 사람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2) - 세한도, 그 절정의 미학 <a href="http://t.co/vFfxmc51">http://t.co/vFfxmc51</a>
245	그***	[ #Tistory ]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2) - 세한도, 그 절정의 미학 <a href="http://t.co/iy03offk">http://t.co/iy03offk</a>
246	김***	유흥준 교수, 추사 김정희를 불러내다 <a href="http://t.co/swRa0bOb">http://t.co/swRa0bOb</a>
247	우***	RT @mykorea01: [책과독서] 가슴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추사 김정희) <a href="http://t.co/a3v0MY7n">http://t.co/a3v0MY7n</a>
248	그***	추사 김정희 고택은 어떤 자태일까? - 오마이뉴스 <a href="http://t.co/O8Tck0D">http://t.co/O8Tck0D</a>
249	초***	'70평생에 벼루 10개를 밀장 냈고, 붓 천 자루를 몽당뭇으로 만들었다' 추사 김정희가 친구인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글이다. 추사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250	Y***	● 가슴속에 1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johnandrewpark존의 가슴! 속엔 몇만권의 책이 넘쳐 가사와 멜로디가 되어 나오고 있으려나요♥ <a href="http://t.co/iUwxs02y">http://t.co/iUwxs02y</a>
251	임***	추사 김정희 선생이 66세에 제주 화산섬에 유배와서 받은 <유배발상>이, <조밥에 날린장>이었답니다. "아니 이게 사람이 먹 는 음식이냐"했대네요..섬이라 쌀밥은 귀했어도 분명 흑돼지와 신선한 생선은 좋아하셨을 듯~ <a href="http://t.co/b2oAMPpM">http://t.co/b2oAMPpM</a>
252	수***	추사 김정희를 찾아 떠나는 길! 제 2탄 ! 사진으로 보는 그의 작품을 통해 마치 답사를 하듯 생동감있는 수월학을 배워보세 요. 또한 명필 속에 묻어나는 강직함과 애환도 함께 느껴보세요! <a href="http://t.co/QRAcInDv">http://t.co/QRAcInDv</a>
253	전***	천하 명필 추사 김정희는 70평생동안 열개의 벼루가 닳아 없어지고 1000자 루의 붓이 닳아 없어지도록 연습했다 모든 성공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254	賈***	수덕사 가는 길에 추사고택... 넓은 부지에 한적하니 기념관도 잘 돼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들러볼 만 합니다. 금석학 전문가(epigraphist)이자 서예가(calligrapher)인 추사 김정희를 만날 수 있습니다.
255	부***	추사 김정희가 반한 정치, 사인암: 추사 김정희가 반한 정치, 사인암 <a href="http://t.co/wvBuUpRB">http://t.co/wvBuUpRB</a>
256	진***	1. 경복궁 서쪽, 인왕산 아래 동네는 본래 '상촌'이라 불리던 곳인데 근래는 '서촌'이라고도 합니다. 청와대가 홍석현 회장에 게 넘겨준 창의궁 터는 바로 그 초입에 있습니다. 그 곁에는 추사 김정희의 집터도 있습니다.
257	K***	간송미술관 2012 봄 전시회가 5월 13일부터 보름 동안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간송50주기 기념 진경시대 회화대전. 아마도 추사 김정희,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의 그림들을 볼 수 있을 듯.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258	고***	어떤 반찬이 몸에 좋을까요? 두부, 오이, 생강, 나물입니다. 어떤 만남이 가장 매력적일까요? 부부와 아들 딸과 손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추사 김정희-
259	m***	Maybe that's why I have nothing to write... "@soohjc: ● 가슴속에 1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fb
260	t***	추사 김정희 세한도..본인의 그림 이외에 청나라 학자들에 감상평까지 포함한 두루마리로 14m나 된다네요ㅎ 오프라인 댓글 같다는 생각이 잠시^^역사가 남기는 인물은 뭔가 와!하는 존경과 경외에 대상이 평범한 것도 좋지만 뭐 하나 확을 갖고 싶은 맘이ㅋ
261	이***	RT @soohjc ● 가슴속에 1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연번	작성자	텍스트
262	라***	EBS~ RT @Ssunflower1004: 추사 김정희의 초목법에 대해 나오네~티비
263	K***	추사 김정희 글씨 관전은 경전을 보관하는곳 돌아가시기 몇일전 병중에도 글에 힘이 있다. 봉은사에서 <a href="http://t.co/edkRRqvx">http://t.co/edkRRqvx</a>
264	경***	@zzing007 초대장 보냅니다^^* 남한산성행궁에 추사 김정희 편액도 꼭 보고 가세요~ <a href="http://t.co/MiBtrDFU">http://t.co/MiBtrDFU</a>
265	k***	[ #Tistory ]제주 역사유적지-추사(김정희)유배지 <a href="http://t.co/UU8Vs3TV">http://t.co/UU8Vs3TV</a>
266	손***	5월20일=오늘은 세계인의날 1836(조선 헌종 2)년 오늘 추사 김정희, 성균관 대사성이 됨 1908년 오늘 소설가 백선에 태어남 1946년 오늘 서울 각 전문학교, 대학으로 승격 1957년 오늘 <시집가는 날>, 아시아영화제(도쿄) 최극상 수상
267	S***	<a href="http://t.co/Ttg98ZJD">http://t.co/Ttg98ZJD</a>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효! 현덕 유비! 다 이름앞에 호가 있지요! 당신의 호를 지어드립니다. by @zerotwoyo [110132]
268	S***	어떤 반찬이 몸에 좋을까요? 두부, 오이, 생강, 나물입니다. 어떤 만남이 가장 매력적일까요? 부부와 아들 딸과 손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추사 김정희-
269	j***	꽃과 나비를 사랑한 현재 심사정이 있었음을, 시대의 풍속을 그려낸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이 있었음을, 추사 김정희와 같은 명필이 있었음을,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결코 초라하지 않았음을.. " 간송 전형필" (이충렬) 중..
270	김***	오늘, 2012 간송미술관 춘계전시가 시작됩니다.이번전시는 진경시대 회화대전이라고 합니다.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추사 김정희등 진경시대 최고의 화가들의 작품을 볼수있습니다.간송은 담벼락따라 구비구비 늘어선 대기졸도 추억인 미술관..!
271	태***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인 "날이 추워진 뒤에야 송백이 늦게 시들을 안다."가 논어에 있는 말이었구나. 다시 읽으니 참 많은 걸 깨닫게 되는군
272	N***	잘은 모르지만 좋은 이름이예요! 한 사람만 빼고 RT "@actress0701: @actress0701: @skymanhan 정말 제 이름이 부끄러울때가 많네요 T_T 그래도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 이정희대표님도 계시잖아요^^ 오타나서 다시..ㅋ"
273	신***	이영관 교수의 조선 리더십 충청기행 ⑤ 추사 김정희 <a href="http://t.co/xyQIz3nM">http://t.co/xyQIz3nM</a>
274	H***	@SBSjoonnie 와~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런 수목화 같아요 +_+ 여수 엑스포 현장에서 진행되는 뉴스를 보게 되나요? 오늘 뉴스도 '특집' 방송인가요? ㅋ
275	준***	도청 한선교 노래방 한선교 등승 한선교 뽀뽀 한선교 너 시바 추사 김정희 선생에 도전하는 거지? 좀 험들걸? 김정희 선생은 이름이 200개 꿈도 꾸지말고 그만 포기해 "@twtor: '뽀뽀' 한선교 ... <a href="http://t.co/fOJ5YV04">http://t.co/fOJ5YV04</a> "
276	S***	@GongByoungHo "부부의 정" 추사 김정희의 편지 참 감동스럽네요. <a href="http://t.co/vIpWcpZ2">http://t.co/vIpWcpZ2</a>
277	공***	감사! RT @sunheeyoon: @GongByoungHo "부부의 정" 추사 김정희의 편지 참 감동스럽네요. <a href="http://t.co/neXQQA0I">http://t.co/neXQQA0I</a>
278	명***	"@softwonv: 충남 예산 용궁리 추사 고택의 백송 _ 추사 김정희 선생이 심은 나무 <a href="http://t.co/7ETKV7K4">http://t.co/7ETKV7K4</a> " 제고향이 흥성인데 예산에 이런곳이 있었군요^^
279	G***	감사!! 제고향입니다^^RT"@softwonv: 충남 예산 용궁리 추사 고택의 백송 _ 추사 김정희 선생이 심은 나무 <a href="http://t.co/k1PrFdTK">http://t.co/k1PrFdTK</a> "
280	준***	[이름지어주기 놀이] 옛조상들은 이름이 참 많았죠? 추사 김정희 는 이름이 200개 무관들의 최고 시호 총무공은 10명이 넘고 율곡이 이 퇴계이황 등등등 ㅋㅋㅋ 도청 한선교 노래방 한선교 등승 한선교 이름이 많은것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인가.
281	현***	착한농부 봄 나들이(예산 버스투어): 예산 용궁리 추사고택 백송 추사 김정희 선생이 중국의 연경에서 돌아올 때에 가져와 심은 예산 용궁리의 백송(白松) 추사 기념관 김정희의 학문과 .. <a href="http://t.co/TWxTCg43">http://t.co/TWxTCg43</a>
282	S***	가슴속에 1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아..몇권을 더 넣어야 하는거니..>.<)
283	조***	어떻게 월로께 호소를 하여/서로가 내세에 바퀴 태어나/천리 밖에서 내가 죽고 그대는 살아서/이 마음 이 설움 알게 했으면/ 추사 김정희 <아내의 죽음을 애도함>
284	k***	:"RT @fcgmira: 가슴 속에 만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285	이***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286	j***	추사 김정희를 '추사 김정희'로 읽었음...
287	둘***	두부, 오이, 생강, 나물만 있으면 최고의 성찬이요, 부부와 아들 딸, 손자와 함께 있으면 최고의 모임이라 이것이야말로 존 늙은이의 제일가는 즐거움이라. - 추사 김정희 <a href="http://t.co/TdkeJ6Jw">http://t.co/TdkeJ6Jw</a>
288	황***	덕산스파케슬에 오시면 '추사향'에 들러보세요 추사김정희선생에 대한 설명 및 추사작품 탁본체험 등을 할수 있고 예산군 농특산물도 전시 판매중입니다 <a href="http://t.co/XyLidKnJ">http://t.co/XyLidKnJ</a>
289	위***	추사 김정희의 숨결 느껴보세요 <a href="http://t.co/eYbJ3arU">http://t.co/eYbJ3arU</a> by @echungnam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김정희 선생을 알리는 전시체험관 '추사향'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90	천***	추사 김정희가 비문을 쓴 선운사 백파울사비! 모조품이지만 문화의 눈에도 위대함이 느껴집니다 <a href="http://t.co/VrUloYPM">http://t.co/VrUloYPM</a>
291	충***	추사 김정희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a href="http://t.co/CkvEdInK">http://t.co/CkvEdInK</a> 예산지역 농특산물 체험관 '추사향' 운영 <a href="http://t.co/Ge8MuPzc">http://t.co/Ge8MuPzc</a>
292	조***	세한도는 유배지에서서 그린(恨)이 서려 있는 김정희의 그림이지만 만일 추사의 그림이 아니라면 모두들 천원일금을 청송할까? 추사가 하면 바람도 로맨스라는 면죄부를 줄 생각이 아직은 내겐 없음이다. <a href="http://t.co/Ep94590p">http://t.co/Ep94590p</a>
293	공***	부부의 정: 강연길에 아내와 동행을 했는데 추사 김정희의 본가가 예산에 있었던 탓에추사가 제주 귀향길에 부인에게 보냈던 글귀를 만났던 모양입니다.아침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급실 좋은 부부의 정이란 예... <a href="http://t.co/ThTT0gvq">http://t.co/ThTT0gvq</a>
294	S***	RT @itru4u: 부부의 정: 강연길에 아내와 동행을 했는데 추사 김정희의 (cont) <a href="http://t.co/bUS1Tcsg">http://t.co/bUS1Tcsg</a>
295	요***	노안당 이란 현관은 '노자를 안지' 에서 따온 것. 아들이 임금이 된 덕으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노년을 살게되어 만족하고 있다는 뜻. 홍선대원군이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집자하여 만들. (물론 진심이 아님.) <a href="http://t.co/UcFfwuK">http://t.co/UcFfwuK</a>

연번	작성자	텍스트
296	김***	오천권의 문자가 가슴에 있어야만 글씨를 잘 쓸 수 있다.-추사 김정희 <a href="http://t.co/2ISi4sK7">http://t.co/2ISi4sK7</a>
297	문***	추사 김정희는 '하늘이 내린 그림'이라 경탄하였으며, 단원 김홍도조차 선경에 압도되어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심어일을 머물며 노심조사 하였다. <a href="http://t.co/HL6cCM7z">http://t.co/HL6cCM7z</a> <a href="http://t.co/YAVb3IIF">http://t.co/YAVb3IIF</a>
298	Y***	추사 김정희는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고 했다. 그의 글은 힘든 귀양살이에서 그렇게 치열한 자기 노력, 고뇌 끝에 나온 역작이었다. 어쩌면 고난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힘일지도 모른다.
299	수***	@ram_ha 윤봉길의사고향이죠...추사김정희고향이구...덕산은천도있구..에당저수지랑음...그래요
300	위***	취수염붓: 취의 수염으로 만든 붓으로 미세한 선을 그릴 수 있는 으뜸 중에 으뜸 레이 아이템임. 추사 김정희, 윤두서 같은 분들도 애용했다고 함. 나도 취수염붓 갖고 잡다. @@
301	들***	大豆豆腐瓜薑菜 대평두부과강채 / 高會夫妻兒女孫 高회부처아어손 => 두부, 오이, 생강, 나물만 있으면 최고의 성찬이요, / 부부와 아들 딸, 손자와 함께 있으면 최고의 모임이라 - 추사 김정희
302	임***	행복한 유배 (추사 김정희) : 며칠 전 제주도도 갔었습니다. 제주도는 아직 눈이 있는 한라산과 노오란 유채꽃이 동시에 보이는 겨울과 봄이 겹쳐 있었습니다. 8월렛길 바.. <a href="http://t.co/3zvLHxtd">http://t.co/3zvLHxtd</a>
303	j***	'추사 김정희가 그릇에 받아들 붓비에 먹을 갈아 보고픈 지인들에게 붓향기가 나는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오늘 붓비엔 미나씨 폐복의 이 글귀가 늘 따라다녔다.
304	신***	靜坐處 茶半香初(경좌처 다반향초) 고요히 앉은 자리에 차를 반이나 마시도록 타는 향은 처음과 같고 妙用時 水流開花(묘용시 수류개화) 고요히 흐르는 시간에도 물은 흐르고 꽃은 피더라. 추사 김정희 <a href="http://t.co/eKYU1FcX">http://t.co/eKYU1FcX</a>
305	s***	추사김정희고택에서 백송을보았다 중국에서 가져온 씨앗을 조부님묘앞에 심었더란다 그분은 아름다운 백송을 보셨을까? 존재 유무와 상관없는작은손것이 다른사람을 행복하게해주는구나 북학과김정희에게 강한호기심이~ <a href="http://t.co/ePjz22w8">http://t.co/ePjz22w8</a>
306	이***	붓비로 먹을 갈아 친구에게 편지를 쓰다... 추사 김정희가 초이스님에게 붓을 선물한 이야기라네요. 붓을 선물하는 하루!
307	j***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에 나오는 논어의 자한편. "아주 추운 겨울이 돼야 잣나무와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글귀가 아닌가 합니다.
308	R***	[서촌_다시보기]육인동 박노수가옥 앞이다. 한국현대대 거장 남정 박노수화백이 사는 곳으로 집터 뒤뜰에는 추사 김정희가 쓴 '송석원'(조선후기... <a href="http://t.co/O9SndENS">http://t.co/O9SndENS</a>
309	Y***	정송받는 것에 참된 무엇이 있듯이, 비난받음에 어찌 이유가 없겠는가. 네가 지금 궁지에 빠졌으니 욕을 듣는 게 마땅하리라. 누가 너에게 심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는 네 스스로를 풀어주어서는 안된다. (추사 김정희)
310	K***	추사 김정희의 문향(文香)과 서기(書氣)를 생각하면서 <a href="http://t.co/j1wfmTTV">http://t.co/j1wfmTTV</a>
311	민***	[나는후보다] 추사 김정희의 문향(文香)과 서기(書氣)를 생각하며
312	K***	#1week1book 정민교수 저 '삶을 바꾼 만남'- 이책에는 다산정약용과 제자황상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제자들 당대문인 추사김정희등을 만난 내용과 주고받은 서신과 시문들을 볼 수 있다.다산의 갖고있던 교육관이나 가치관을 엿볼수있다.
313	S***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 주변에 가득했던 수선화. 나르시스의 진설을 품고 있는 꽃. 추사도 수선화를 좋아해서 23수나 되는 수선화에 관한 시를 지었다고 한다. <a href="http://t.co/E3ytixFv">http://t.co/E3ytixFv</a>
314	구***	입춘단상: 추사 김정희가 7살 때 입춘첩을 써서 때문에 붙였었는데 때마침 좌의정 체제공이 문 앞을 지나다가 그 입춘첩의 예사롭지 않음을 보고 누가 쓴 것인지 알기위해 일부러 추사의 집에 들렀다는 일화가... <a href="http://t.co/hfTtUVtr">http://t.co/hfTtUVtr</a>
315	목***	의문당(疑問堂)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 유배시절, 대정 향교의 유학생들 공부방인 동체에 써준 현판이다. 항상 의문을 품으라는 말이라 하는데 하루에 얼마나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왔다 갔다 할까. 무비판적 수용은 악을 낳을 수 있다. 묻고 답하기.
316	u***	RT @twitalpha: 세한도..즐감,RT @9stone: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세한도(歲寒圖). 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 아주 추운 겨울이 돼야 잣나무와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 <a href="http://t.co/RmrUvtV6">http://t.co/RmrUvtV6</a>
317	d***	장림사 삼층석탑 '무구정답원기' 원본 발견: 추사 김정희의 묘사본으로만 전하던 1,157년 전 통일신라 금석문의 원본이 발견됐다. 불교 조계종 산하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과 함께 전국의 사찰 ... <a href="http://t.co/FnRwpQOG">http://t.co/FnRwpQOG</a>
318	찬***	직장 상사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국보180호 추사 김정희선생의 세한도에 관련된 여러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흥미진진한 설명을 들었다 경이롭다^^
319	김***	홀로선 외로움이 가당키나 한가? 하늘이 벗이요. 땅이 동행이라...모두가 연결된 존재들... ///// 오솔길은 깊고 먼 곳으로 나 있고 칠패굴 처마에 안개구름 쌓이네 산사람 저 홀로 대작할 적에 꽃잎이 날아가다 술잔과 마주치네 - 추사 김정희 -
320	M***	세상일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발 같고, 책 읽는 거다. -추사 김정희- 노동과 독서에 관한 우리 선조들의 혜안
321	J***	세상에는 추사 김정희를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322	김***	RT@sk7220:쌍계에봄이오면차의연인이어지니...칫물에따야차(苜茶)에는다선이깃드는구나/늘그막에서담은그칠줄몰라서,향그런광양햇김또부치라했다네.-추사김정희님의茶詩
323	이***	정조의 전령, 추사 김정희 서찰 경매 나와 <a href="http://t.co/SRM6sw8x">http://t.co/SRM6sw8x</a>
324	김***	조선명筆 라이벌 추사 김정희-원교 이광사 서첩 발견 [매일경제 2012.2.17] <a href="http://t.co/w1F2gaVT">http://t.co/w1F2gaVT</a>
325	김***	'서예 라이벌' 김정희-이광사 권필서첩 발굴: 조선 후기 최고의 서예가로 손꼽히는 추사(秋史) 김정희(1786-1856)와 원교(圓峯) 이광...기사보기
326	K***	연암 박지원(1737-1805), 다산 정약용(1762-1836), 추사 김정희(1786-1856). 이들이 학문에서 뿐만아니라 정치에서도 그 뜻을 펼쳤다면 조선의 운명은, 나아가 현재는 어찌되었을까?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아쉬움이 남는 시절이다.
327	박***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추사 김정희(1786~1866)-
328	프***	저 유배중입니다... RT @taku7548: 유배야야겠다 RT @9rum: RT @vidajju: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 유배생활 중 추사체를... <a href="http://t.co/mo1pjApz">http://t.co/mo1pjApz</a>
329	권***	#민중웃기-"세상에는 두가지 병이 있소. 하나는 나귀를 타고서 나귀를 찾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나귀를 타면 싯토 내러오지 않으려 함이 그것이요, 나귀를 타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면서 내리려 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가장 큰 병인 것이요"-추사 김정희

연번	작성자	텍스트
330	김***	추사 김정희 작품이 포함된 1부전시가 끝나서 좀 빠진상태로 2부관람. 피용~~ 현대적인 남종화들과 흠쳐오고 싶은 그림들이 많네요~~* 근처 지날일 있으면 들러보세요~~ @광주시립미술관
331	C***	RT @vidajju: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 유배생활 중 추사체를 만들었고, 다산 정약용 역시 유배생활 중 목민심서를 썼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지만 사람은 자기 바탕에 따라 이런 시간에 꽃을 피우기도 한다.
332	Y***	@paldalstory1 멋진 나무가 선산지킨다고!! 팔달구는 제가 지키테니.. 팔달구에 있던 인연 잊지 마시고.. 팔달구를 떠나시는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세한도에 써있는 추사 김정희의 '長毋相忘' 기억해요.
333	북***	추사 김정희의 자화상으로 알려진 작품. <a href="http://t.co/YbR6V1cH">http://t.co/YbR6V1cH</a>
334	북***	추사 김정희 <세한도> <a href="http://t.co/HrkB73Av">http://t.co/HrkB73Av</a>
335	아***	추사 김정희 행서 회귀본 병풍·설단 인물도 경매나온다 <a href="http://t.co/q8acCjd">http://t.co/q8acCjd</a>
336	j***	건축가 승효상이 세한도를 모티브로 지은 추사관, 미술가 임옥상의 추사 김정희 흉상, 그리고 그 옆의 대정교회. <a href="http://t.co/LXhNguCF">http://t.co/LXhNguCF</a> <a href="http://t.co/bTHM5AtE">http://t.co/bTHM5AtE</a> <a href="http://t.co/PVhbRCaE">http://t.co/PVhbRCaE</a>
337	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한 제주도.. 이곳은 바람과 눈발이 뒤섞여 장관을 이룹니다.. 추사 김정희 유배지였던 추사의 세한도의 바로 그곳에서 세한추위에도 굴하지 않는 소나무를 다시 생각합니다..희망을 꿈꾸며 다시 힘내요...
338	초***	가장 좋은 반찬은 두부,오이,생강,나물(大烹豆腐菹菜), 가장 훌륭한 모임은 부부,아들딸,손자(高會夫妻兒女孫) 오늘 점심 메뉴와 멤버는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의 말씀대로~~ <a href="http://t.co/HjFYJH">http://t.co/HjFYJH</a>
339	黑***	아래 RT>>> 그럴리가... 그럼 추사 김정희 선생은 생각이 없어서 멍필이었던 말인가. 글씨도 그림이랑 같다. 많이 신경써서 써본 쪽이 멍필이 되는거다.
340	김***	추사 김정희의 歲寒 [한국경제 2012.12.14] <a href="http://t.co/oyd8C0Vv">http://t.co/oyd8C0Vv</a>
341	J***	[한국경제] [고전번역원과 함께하는 인문학 산책] 추사 김정희의 歲寒 <a href="http://t.co/0QWEgR0p">http://t.co/0QWEgR0p</a>
342	김***	국수 먹어서 '담면', 수염 많으니 '염용', 과친 사니까 '병과'... 추사 김정희 이름은 하나, 별명은 342개[조선일보 2012.11.09] <a href="http://t.co/T1RLbr4r">http://t.co/T1RLbr4r</a>
343	S***	@urboihj 네 추사김정희 글자에요!ㅎㅎ
344	김***	제주 추사 유배지는 김정희가 유배생활을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집 자체가 제주 초가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 초가는 육지의 집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제주만의 초가 <a href="http://t.co/HzhAjUC6">http://t.co/HzhAjUC6</a>
345	김***	추사 김정희, 호만 343개..삶을 대변한 이름 [연합뉴스 2012.11.07] <a href="http://t.co/L5j1nBa8">http://t.co/L5j1nBa8</a>
346	a***	추사 김정희, 호만 343개... 삶을 대변한 이름: 1988년 2월11일 한 일간지에 '김정희 새 낙관 53개 햇빛, 183방 집대성..완당인보(阮堂印譜) 발견'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당시 대만 유학을 준비하던 30대의 최준호(54) 곡성...
347	손***	11월7일=1856(조선 철종7)년 오늘 추사 김정희 세상떠남 1876(조선 고종13)년 오늘 한글학자 주시경 태어남 1945년 오늘 함흥 만공학생의거 일어남 1950년 오늘 이발로 300원 목욕료 100원 1955년 오늘 부산 초량동 공설시장 화제
348	아***	@lime_1 아산 옆에 ㅋㅋㅋㅋ 추사 김정희의 집인 추사고택있고!ㅋㅋ 예산 아는데도 있군아ㅏㅏㅏ
349	너***	가슴속에 만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넘쳐 글과 그림이 된다. -추사 김정희- ..... 나랑 같이 아답해야 할 사람 많을 것 같다.
350	유***	寂照含虛空(적조함허공) 고요한 비움은 허공을 머금고 있구나 ; 추사 김정희 고택에서 본 '山月照禪臺 山위로 떠오른 달빛이 거문고 소리를 비추는 구나'라는 표현이 생각나는... <a href="http://t.co/X7q8llKJ">http://t.co/X7q8llKJ</a>
351	e***	[퍼온글] 어린이문화해설사들과 찾은 추사 김정희 고택 <a href="http://t.co/Q2mRvATo">http://t.co/Q2mRvATo</a>
352	최***	#cjbbooks 467추사 김정희선생께서 평생 사용했던 호(명호) 343개를 나누고 정리하고 의미를 켤, 우리시대의 역사.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동양화가이자 전각학자 일목 최준호 관장의 <추사, 명호처럼 살다>(아미제). 고미술애호가들에게 강추!
353	k***	RT @your_rights: #cjbbooks 467추사 김정희선생께서 평생 사용했던 호(명호) 343개를 나누고 정리하고 의미를 켤, 우리시대의 역사.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동양화가이자 전각학자 일목 최준호 관장의 (아미제)...
354	충***	RT 추사고택 찾은 어린이문화해설사 @aspire2k: [ #Tistory [충남역사박물관]공주시교육청 어린이문화해설사들과 함께 찾은 추사 김정희 <a href="http://t.co/xXlk69wf">http://t.co/xXlk69wf</a>
355	김***	오늘은 국립극장에서 한외극단의 "추사 김정희"무용극에 출연하여 "세한도"에 나오는 글을 읽었습니다. 5분동안의 출연이지만 제주도에서 9년간 유배중 세한도를 그릴 때인 59세 추사역을 했습니다 <a href="http://t.co/6bwTbtug">http://t.co/6bwTbtug</a>
356	과***	추사 김정희와 불교 추사와 불교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 23일 과천시 개최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사상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학술대회가 경기도 과천에서 열린다. 과천시는 "과천... <a href="http://t.co/ChNeOntE">http://t.co/ChNeOntE</a>
357	사***	추사 김정희가 사랑했던 '최고의 샘물' <a href="http://t.co/uJwJmww2">http://t.co/uJwJmww2</a>
358	임***	추사 김정희가 사랑했던 '최고의 샘물' <a href="http://t.co/pYqasCte">http://t.co/pYqasCte</a> 대정읍 김정희 유배지를 떠나 대정향교로 향했다. 조선 속중 때 제주 목사를 지낸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에는 대정향교와 함께 파군산과 산방산이 보인다...
359	국***	한미#국악 예술단, 11월 25일 국립극장에서 김정희 선생 일대기'추사 21세기로 걸어나오다' 무대~ <a href="http://t.co/YfDnbbdO">http://t.co/YfDnbbdO</a>
360	미***	김문수 지사, 무대 오른다...무용극 '추사 디지털'이 김정희 역 특별출연 <a href="http://t.co/7LoRd9py">http://t.co/7LoRd9py</a>
361	r***	경기버스티비 명하니 보고 있는데 김문수가 뭐 국립극장에 추사 김정희 역으로 특별출연을 한다구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 도지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도지사님이 내게 준 것은 사이니 사진 한 장뿐...
362	경***	김문수 경기지사 "오늘은 제가 추사 김정희입니다" 경기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조선 말기 실학자이자 서화가인 추사 김정희 역할을 맡아 무대에 오른다고 19일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 <a href="http://t.co/jlaWtd7t">@kyunghyang</a>
363	하***	@GH_PARK @kimmoonsoo1@JoonPyoHong @mjhong김문수 경기지사 "오늘은 제가 추사 김정희입니다" <a href="http://t.co/glmXT8s9">http://t.co/glmXT8s9</a>



연번	작성자	텍스트
364	J***	삼교호에서 산나지와 멧개 한집씩 하고 추사 김정희 고택에서 풍수를 생각하다
365	J***	추사 김정희 고택 옆 화순옹주(영조의 장녀)와 김화순의 사랑을 생각한다
366	조***	어태 몰랐었다.. 추사 김정희의 얼굴이 마마 자국 투성이었고, 변암 체제공의 눈이 사시였다는 걸...
367	나***	추사 김정희는 스스로 200여개의 호를 지어서 썼다고 한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도메인 선점 쟁내요.
368	김***	"서울 백석동천, 추사 김정희가 별장으로 사용"[한국일보 2012.11.13] <a href="http://t.co/eMibWMLp">http://t.co/eMibWMLp</a>
369	저***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추사 김정희가 옛주인 (백사실 별서터 일대가 백사 이항복 대감과 무관하다는데..) - 매일경제 보도 <a href="http://t.co/1QqUjZ52">http://t.co/1QqUjZ52</a>
370	R***	[한국일보] '놀러와' 유홍준, 전인권-추사 김정희의 공통점? "자신만의 새로운 창조" <a href="http://t.co/jTudFJEL">http://t.co/jTudFJEL</a>
371	문***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내 유적 일부가 한때 '추사 김정희'의 소유 었다는것을 입증하는 문헌자료가 발견 되었다고 하네요~ <a href="http://t.co/w6DKUgb1">http://t.co/w6DKUgb1</a>
372	김***	"서울 '백석동천' 옛주인은 추사 김정희" [문화일보 2012.11.12] <a href="http://t.co/ms37yL7J">http://t.co/ms37yL7J</a>
373	임***	서울 백석동천, 옛 주인 찾고보니 추사 김정희 <a href="http://t.co/6rD10fse">http://t.co/6rD10fse</a> (서울=연합뉴스) 김태석 기자 = 조선 후기 서화로 이름 높은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
374	남***	"서울 '백석동천' 옛주인은 추사 김정희" <a href="http://t.co/DMAmckMI">http://t.co/DMAmckMI</a>
375	남***	추사 김정희의 편지 <a href="http://t.co/8Kr4sTru">http://t.co/8Kr4sTru</a>
376	태***	"서울 백석동천, 옛 주인 찾고 보니 추사 김정희": 조선 후기 서화로 이름 높은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명승 36호로 지정된 지금의 종로구 부암동 백석동천(白石洞天) 일대를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립문화재...
377	홍***	경계정선과 추사 김정희의 혼과 현재의 설치미술이 만나는 여유로운 마을 - 서촌한옥마을 1-1코스 <a href="http://t.co/56Xp9D0J">http://t.co/56Xp9D0J</a>
378	남***	가장 좋아하는 한국화의 예인. 추사 김정희. 당시로서는 정말 감각적인 과격적인 난.. (음악으로 따지면 제즈 같아.) <a href="http://t.co/oYMD3MSg">http://t.co/oYMD3MSg</a>
379	남***	하나더, 추사 김정희 <a href="http://t.co/dfgTuUIK">http://t.co/dfgTuUIK</a>
380	김***	<추사 김정희를 감동시킨 명·청시대 회화> <a href="http://t.co/kaMVHmY7">http://t.co/kaMVHmY7</a>
381	김***	추사 김정희를 감동시킨 명·청시대 회화 [연합뉴스 2012.10.05] <a href="http://t.co/UJouaiQ8">http://t.co/UJouaiQ8</a>
382	김***	>[예산] 추사고택: [예산] 추사고택 추사 김정희 선생의 묘 부인과 합장한 묘소 탁본체험장 관사 우물 솥물대문과 문간채 사랑채 해시계 안채 안채 사당 사당 안채 사랑채 안채 원성위포 .. <a href="http://t.co/oOSaKXFz">http://t.co/oOSaKXFz</a>
383	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이 권하는 책] 이영관 <조선의 리더십을 탐하라> 태조 이성계, 추사 김정희, 세종대왕 등 조선시대 리더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a href="http://t.co/10wV8uTV">http://t.co/10wV8uTV</a> #책 #klib
384	l***	@GH_PARK 추사 김정희 처럼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 주는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정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책제안서를 받아가는 정치인이 누굴까 했는데..
385	꽃***	서울지검 어느 검사의 자성의 목소리. "우리가 국민을 약속하다 할 수 있겠는가? 검찰에 대한 불신 중 상당 부분은 오패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추사 김정희 선생의 말씀처럼 청송받는 것에 참된 무엇이 있듯 비난받는 것에 어찌 이유가 없겠는가"
386	Y***	女검사 "검찰이 제몫했다면..." 자성의 글, "검찰에 대한 불신 중 상당 부분은 오패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추사 김정희 선생의 말씀처럼 청송받는 것에 참된 무엇이 있듯 비난받는 것에 어찌 이유가 없겠는가" <a href="http://t.co/0QmAMpXc">http://t.co/0QmAMpXc</a>
387	H***	2012대정고을추사문화예술제 기간 : 2012. 11. 03(토) ~ 04(일) 장소 : 서귀포시 추사저거리 추사김정희 선생을 기념하여 여러가지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 #12338264 #life <a href="http://t.co/8356zLEI">http://t.co/8356zLEI</a>
388	L***	@redstaccato 좋은 곳에 터를 잡았죠... 예전 추사 김정희의 본 저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389	k***	추사 콘텐츠 개발 문화자원보존 최우선돼야 <지역> 제주추사관 개관 2주년 맞아 26일 강연회 개최 오자경 금속공예가 제시 추사 김정희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업화에 앞서 문화자원보존이 최우선으로... <a href="https://t.co/V8bY5h3Z">https://t.co/V8bY5h3Z</a>
390	은***	추사 김정희 삶과 예술 '맥' 잇는다 <a href="http://t.co/PamT1k6">http://t.co/PamT1k6</a>
391	조***	어찌면 저승에 가 율하노인에게 하소연해/다시 우리가 부부로 태어나 나란히 살다가/나 먼저 죽고 당신 천리 밖에 살아남는다면/그 때에야 지금의 이 슬픔 당신은 아실 게요/ 추사 김정희, 귀양지에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392	J***	<a href="http://t.co/Btq53Eg1">http://t.co/Btq53Eg1</a> 청나라 장경- 장포산진적첩 중 소림모옥(疏林茅屋) / 추사의 애장화첩으로 김정희의 제한도의 모델이 된 그림입니다. 간송미술관에서 28일까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393	나***	추사는 "배워 익혔지만 모두 다 굽히고 좇아 그림자 따르듯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예술도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택했음을 분명히 합니다. "@art_day: [뉴스] 추사 김정희의 보물 '어떤 걸작이길래...' <a href="http://t.co/DAT9q115">http://t.co/DAT9q115</a> "
394	까***	성품을 경계하는 뜻은 매우 좋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늘 몸과 입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추사 김정희 <a href="http://t.co/aWk4ehcs">http://t.co/aWk4ehcs</a>
395	W***	歲寒圖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秋史 金正喜(추사 김정희)
396	독***	사관유법불가, 무법역불가... 추사 김정희 선생이 한 말이다. 난을 치는데 있어서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없어서도 안 된다고... 단일화에 대한 안철수 캠프의 마인드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다. 자기 길을 가더라도 확신은 줘야한다는!
397	안***	@vjvmffhwm 279쪽 밑에서 열번째 줄에, 그런데 옛조상들은~ 으로 시작되는 대목에서는,"추사 김정희의 완당시선에 보면 문객들이 긴 처마에 앉아 산을 읊미하니, 눈비오는 풍경이 어찌 좋지 않으리오 하며 산에 올라 신에 흠을 묻히는 건 머슴에게!

연번	작성자	텍스트
398	Y***	구월여행(17) - 추사김정희 적거지 (End) <a href="http://t.co/et5xcRBD">http://t.co/et5xcRBD</a>
399	신***	추사 김정희 후예들 예산으로 <a href="http://t.co/8cAFjhJP">http://t.co/8cAFjhJP</a>
400	s***	간송미술관 2012 가을전시 일정이 나왔네요. 전시주제는 "명청시대회화전" 이라고 하네요. 기간은 10월 14일~28일. 명청시대라고 하나 중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추사김정희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전시된다고 한다네요. 아.....
401	s***	ㅠㅠ 다편이유로 간송미술관가고 싶었는데..추사김정희님, 추사화파도 좋은데..원래 신윤복작품보러 가고 싶었음요 ㅠㅠ 하긴 생각해보면 올해 봄 진경시대회화대전이란 작년 가을에 풍속인물화대전 때 신윤복회화 나왔으니깐 이번에는 안나오는게 당연한거일수도ㅠㅠ
402	김***	내 처소에서 하룻밤을 지새워 보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의 발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의 혀가 되고 싶어진다네...절대 고독의 품안에 안기면 눈과 귀가 꽃잎처럼 열려 짐승들과 바람과 언어를 알아듣게 된다네...<추사 김정희-제주에서 보낸 편지 중>
403	황***	@shinyoungvoon 찾아본 김에 확인했더니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권 1 87쪽 '추사 김정희와 원고 이광사'에 아까 얘기드린 에피소드가 실려 있네요. 나중에 다시 찾아보세요. ^^;;
404	J***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세한도, 추사 김정희. 지식채널e에서 인용.
405	목***	'악'이란 '비관적 사유의 무게'. 착하고 평범한 종교인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인간을 무참하게 살상하는 엄청난 악의 공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항상 의문을 품으라던 추사 김정희. 자주 반복해서 ? 와 ! 사이를 오가야. 그러다 '와'하고 깨닫지.
406	임***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중간에 유산되고 다시 임신된걸 고려하지 않으면요. @cosmosvovager<완당김공 소진小傳>에 따르면 추사 김정희는 어머니 유 부인이 임신한 지 24개월이 되어 태어났다고 한다. 가능한 얘기인가?
407	세***	RT @wisdomhouse7: SNS 습관, 추사 김정희에 배우라 <a href="http://t.co/EV8biMLf">http://t.co/EV8biMLf</a>
408	A***	소창다명 사아구와 작은 창에 햇빛이 밝아 나로 하여금 그앞에 오래 앉아있게 하는구나.-추사 김정희
409	j***	@ulsanyakmee 떡을 일도양단하던 석봉어머니의 정신입니까? 일평회지로 내용을 뿜어 내던 추사 김정희의 정신입니까?후훗
410	m***	국립제주박물관에는 <제주유배인 Jeju Exile>이라는 명패까지걸어두고 1392년부터 1911년까지 제주도 유배를 온 자들의 명부가 걸려있다. 우암송시열부터 추사김정희, 면암최익현까지. 죄가 없었던 그들에게 씌어진 굴레와낙인이 백여년을 넘어오는구나.
411	오***	'습관은 정직하다.' @asiae_daily SNS 습관, 추사 김정희에 배우라 <a href="http://t.co/67lmNgC">http://t.co/67lmNgC</a>
412	도***	@csg0340 @19kk @tonedo3305 정봉주를 추사 김정희 급으로 격상시켜 주는 귀박이정권! 추사도 해남 거쳐 제주도 대정으로 귀양 갔었죠. 장흥도 제주도 성산가는 가장 빠른 배가 운행하고 있죠. 거의 성인 반열로 올라갈듯,ㅋㅋㅋ
413	앤***	만 권의 책을 읽으면 그림과 글이 절로 나온다 - 추사 김정희
414	에***	@pns913 대단하네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제주에 유배를 와서 묵었던 추사적거지, 저의 유년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펜시리 반가운 마음에 댓벤션을 남깁니다. 작은 행동이 작은 변화를 이루고, 그것이 쌓여 큰 성과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415	s***	山深日長,人靜香透 깊은 산 속 해는 길어져 인적이 고요한 곳에 향이 사무친다. - 추사 김정희가 쓴 글입니다. 깊은 산속에 홀로 향기를 뿜어내는 난을 그린 듯....
416	김***	진도 윤림산방 소치 허련 선생의 4대손 허분씨가 소치 미술관의 명에 관장이 되었네요...윤림산방은 추사 김정희 제자로 남종화의 뿌리
417	S***	@idearesearcher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가 생각나네요. 제주도로 유배를 갔을 때 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주고, 귀한 서적까지 가져다 준 제자 이상적을 생각하면 그러다는...
418	m***	歲寒然後,知松栢之後彫也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 추위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추사 김정희, 세한도
419	L***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 버팔로 - 야후! 블로그... <a href="http://t.co/lucxLRa">@dogsul</a> 님이 올리신 세한도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420	K***	과거시험과 무관한 책을 읽는다고 아버지께 편지로 야단 맞고, 흠모하는 중국문인 옹방강의 꿈까지 꾸며 그를 만나기 위해 10년 세월을 고대하고, 만난 뒤에도 팬레터 쓰기에 열심이었던 추사 김정희. <세한도>(박철상 지음)로 만난 그가 무척 친근하다.
421	별***	추사 김정희는 호가 무려 약500개나 되었다는 사실!
422	c***	멋진말씀^^ RT @hagseon: 가슴속에 1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추사 김정희
423	색***	추사 김정희선생의 세한도를 복원하라! <a href="http://t.co/vJgxC3gB">http://t.co/vJgxC3gB</a>
424	삼***	퀴즈대한민국(No.21995): "매화 기품 높다해도 뜰앞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맑은 물에서 마친내 보았네, 헤탈한 신선을.." 추사 김정희(金正喜)의 시한구절로 이 꽃에 대한 표현이다. 일명 '뜰위를 걷는 선녀'라는?이 꽃은
425	김***	대한사회복지회 부산지부 탐방 - 김광영의 시대보기: 대한사회복지회 사무실 한 편에 눈에 익숙한 그림 하나가 있어 박지부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되어 .. <a href="http://t.co/Esonm6qt">http://t.co/Esonm6qt</a>
426	Y***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RT @ChungYongHwa: "삶이란 모름지기 자기운명을 깨부수며 살아가야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나의 친구 추사 김정희"> <a href="http://t.co/g3c9giwp">http://t.co/g3c9giwp</a>
427	H***	추사 김정희는 100개가 넘는 호를 가졌다고 해서 백호당(百號堂)이란 호까지 있었다고 한다. 갑자기 부모님이 지어주신 별명이 김태균이라는 김별명이 떠올랐다. <a href="http://t.co/YJea10Y">http://t.co/YJea10Y</a>
428	Y***	@ChungYongHwa: 삶이란 모름지기 자기운명을 깨부수며 살아가야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나의 친구 추사 김정희"> <a href="http://t.co/g3c9giwp">http://t.co/g3c9giwp</a>
429	Y***	희망은 절망과 좌절을 먹고산다. 우리모두 화이팅!!! RT @ChungYongHwa: "삶이란 모름지기 자기운명을 깨부수며 살아가야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나의 친구 추사 김정희"> <a href="http://t.co/g3c9giwp">http://t.co/g3c9giwp</a>
430	Y***	@ChungYongHwa: 삶이란 모름지기 자기운명을 깨부수며 살아가야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나의 친구 추사 김정희"> <a href="http://t.co/g3c9giwp">http://t.co/g3c9giwp</a>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도 극복하고 견뎌내야죠!!!
431	Y***	@days4tripper 추사 김정희가 요새사람이었으면 포털아이디가 몇개쯤 되었을까요?
432	관***	@gunoming photo glitter 입니닷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많이여 님 추사김정희끝내고 갈아타여 ㅋㅋㅋㅋㅋㅋㅋㅋ

연번	작성자	텍스트
433	그***	@asdfaaas 이 어플 하나만 있으면 추사 김정희선생님도 부럽지 않았는데.. 일개만도 못한 나는 님 앞에 초라해짐.. 개작두 대령해주세요
434	d***	머리 속에 만개의 논문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연구와 논문이 된다. "@Wildflowers_: 가슴 속에 만권의 책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추사 김정희"
435	송***	[제주] 조선시대 서예가 추사 김정희선생의 흔적을 찾아, 추사유배지: 조선시대 서예가 추사 김정희선생의 흔적을 찾아, 추사 유배지 제주는 조선시대 대표적 귀양지였다고 한다. 서귀포시 .. <a href="http://blog.daum.net/ss0702/18297038">http://blog.daum.net/ss0702/18297038</a>
436	s***	대박 나는 꿈수다 명필글씨..추사 김정희로 추정됨 무한RT..요함"@3278221: 명필 나는꿈수다 어느분의 작품이시은지요? <a href="http://t.co/TfDWskt">http://t.co/TfDWskt</a> 작품의 작가를 찾아 주소서... #DdanzRadio"
437	강***	가슴속에 만권의 책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추사 김정희) "되 읽고 싶은 책을 단 한권이라도 챙기고 있는 사람은 외롭지않다"(황순원) ~정호승 산문집에서.. 난 외롭지 않다^^
438	s***	식단조절 다시 시작하니 배가 고파 잠이 안옵니다.ㅠ.ㅠ 계속 인터넷에 레시피만 훑고있는 내 모습.흑흑.읽던 책이나 마저읽고 자야겠음.추사김정희를 만나다.....
439	맹***	관도 이렇게 크게 만든 역시 추사!!! RT "@eunsalsal: 호가 500개가 넘는다는 추사 김정희를 기리는 추사관. 글씨를 잘 쓴다는 건 정말이지 우아한 특기. <a href="http://t.co/nzuHMUG">http://t.co/nzuHMUG</a> "
440	박***	(경향)신홍근의 공부 미학 추사 김정희 벼루 열 개와 붓 일천 자루, 70평생에 벼루 열개를 밀장 냈고 붓 일천 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추사의 이 말을 가슴에 담고 공부 한다면 노력한 댓가는 꼭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41	c***	가슴 속에 책 만 권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넘쳐 그림과 글씨가 된다. -추사 김정희
442	송***	추사 김정희의 고양이 그림. 땡 터졌기 <a href="http://t.co/PfDynVN">http://t.co/PfDynVN</a>
443	김***	암행어사^^도견 RT @windshoes: 황해문화 마감기념 이벤트 퀴즈: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 명재상이었던 체제공(蔡濟恭, 1... <a href="http://dw.am/Ldjrr">http://dw.am/Ldjrr</a>
444	k***	우연히'보물섬'이란 프로 봤는데 흥미롭다.제주KBS서 제작한 방송인데'이야기 제주사'에서 추사 김정희가 제주유배왔을때 사연소개. 아는 스님에게 차 보내달라고 수많은 서한보냈는데 정말 정정거린다. "편지마련 다필요없고 차만 보내라"는 태극에서 뺄터짐.
445	배***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추사 김정희-- 책 이야기만 들어도 귀가 번쩍. 이 분위기로라면 오늘 금태섭 변호사의 <확신의 함정> 다 읽을듯...
446	N***	@chimsky0 예전에도 한번 묻지 않았나 싶은데, 기억이 가물해서 다시 묻습니다. 한국에선 추사 김정희와 관련해서 청대 학자 翁方綱이 많이 언급되는데, 옹방강이 청에선 정말 유명, 훌륭한 학자였나요? 당대와 지금의 평가로 보자면.
447	김***	내 글씨는 비록 말할 것도 못되지만 나는 70평생에 벼루 열 개를 밀장 냈고, 붓 일천 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 [김정희기념관]에서 <a href="http://t.co/BJIrgvvn">http://t.co/BJIrgvvn</a>
448	S***	인문학아카데미. 오늘은 유홍준교수. 추사 김정희에 대해 강연중. (@ 국립 중앙 도서관) [pic]: <a href="http://4sq.com/qsBQws">http://4sq.com/qsBQws</a>
449	T***	2011년 7월 6일 오후 07:11: 가슴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추사 김정희-- <a href="http://blog.daum.net/comdosa/15712222">http://blog.daum.net/comdosa/15712222</a>
450	모***	#lovebook 「차서완서구원지」 조선 후기의 서화가인 추사 김정희 시의 한 구절이다. "책은 빌려주는 사람도 돌려주는 사람도 바보" 라는 뜻 <a href="http://bit.ly/a87kFr">http://bit.ly/a87kFr</a>
451	아***	추사 김정희 유배길 코스 안내 정보 <a href="http://fb.me/CftnHo0e">http://fb.me/CftnHo0e</a>
452	헨***	금주령이 내렸으니 도성을 나가 술마시러 가자 - 추사 김정희 ㅋㅋㅋㅋㅋ 역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ㅎㅎㅎ
453	마***	좀더 직설적이고 괴상하던 나의 필체가 살아나야되는데ㅠㅠ 한석봉이 이런 걱정을 했을까? 추사 김정희가 이런 걱정을 했을까? 왜 나의 필력이 죽어버렸을까? 몰라~센스가 되어서 자빠졌나봐~★
454	S***	가슴속에 만권의 책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 진정한 그림과 글씨가 된다. _ 추사 김정희
455	손***	7월21일=1602(조선 선조35)년 오늘 문묘 대성전 준공 1817(순조17)년 오늘 추사 김정희, 북한산 신라 진흥왕순수비 관동 1884(고종21)년 오늘 의열단 김지섭열사 안동에서 태어남 1898(대한제국 광무2)년 오늘 동학 2대교주 최시형처형
456	박***	주말, 한승원선생의 "추사(김정희)2"를 읽다.안동김씨 정권의탄압으로 서귀포에서 9년 "위리안치(가시덤불 울타리에 갇힘)"형을 살면서,추사체완성,세한도를 창작했다. 박해자자들은 흔적(계산,명성)없이,오로지 약명만 남았다. 인간승리의 감동,평안하소서.
457	Y***	나는 김정희 할아버지가 달준이한테 선물한 그림이 제일 좋다 그 할아버지네에서 꿈머슴만 해도 추사 그림의 개인소장자가 될 수 있다니 엄청난 일이다 꿈에서 종종 달준이가 어르신에게 그림을 뺏기지 않기 위해 소를 타고 도망치길 빈다 2세기 전을 위해
458	히***	1786(조선 정조 10)년 오늘은 조선 후기 대표적 서예가·금석학자·고증학자인 추사 김정희(1786-1856)가 태어났군요.. 본관은 경주, 호는 완당(阮堂)·추사(秋史)·예당(禮堂)·시암(詩庵) 등 185개나 ... <a href="http://dw.am/LYadb">http://dw.am/LYadb</a>
459	손***	6월3일=1646(조선 인조 24)년 오늘 임경업 장군, 청나라에서 풀려나 돌아옴. 1786(조선 정조 10)년 오늘 추사 김정희 태어남. 추사는 1백여개가 넘는 호를 썼다. 자는 원춘(元春) 하나지만 <완당인보>를 보면 호가 185개에 이른다
460	박***	추사김정희의 옛집터에.. <a href="http://t.co/fuR99Wr">http://t.co/fuR99Wr</a>
461	P***	이미지라하면 비주얼만 떠오르다보니 // 좋은 말씀 RT @oldman5306: 영상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경중이 되었으면~~@mindgood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462	율***	RT @best_soong: RT @black340: RT @mindgood: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463	t***	@mindgood 늘 들었던 얘기인데도, 오늘야침 가슴에는 이야기가 와닿네요. >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464	달***	@THESPATIUM 제글씨는 추사 김정희가 울 수 밖에 없는 약필입니다



연번	작성자	텍스트
465	J***	@yunwrite: @THESPATIUM 제글씨는 추사 김정희가 울 수 밖에 없는 약필입니다 윤작님과 교감이 기뻐서 앞으로 사진은 안 찍을것임. ㅎㅎ
466	디***	#klib 국립중앙도서관, 6월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6.16, 오후3시-4시반/디지털도서관 지하3층 대회의실) <a href="http://t.co/tEsc059">http://t.co/tEsc059</a> 주제는 '소치 일가의 화맥과 남도화단' 소치 허련은 추사 김정희의 애제자였죠^^
467	C***	@wonsoonpark 추사 김정희선생님도 아니고. . 세난도 한복그러오시길. . ^^ 제주에서의 작은 길을 큰 발자욱 찍히는 모습 잘보고있습니다.
468	제***	추사 김정희 제주 유배길 14일 다시 열린다 <a href="http://bit.ly/jqtyK4">http://bit.ly/jqtyK4</a> #jejusori
469	c***	추사 김정희선생 고택 중국에서도 서체로 유명하신가요 중국 방문객이 이곳까지..
470	M***	@ROTALON 오잉?왜 애증들이세요? 궁금데요 저는 경주김가예요 입도 21대손 대섭과 ㅋㅋㅋㅋ 파도 아는데자 ㅋㅋㅋㅋ 추사 김정희가 같은 파라머 ㅋㅋㅋㅋ
471	모***	제주 김정희 추사관 개관 기념 특별전 6월 30일까지: 추사 김정희 선생 유물 64점 전시중 ... 6월 30일까지 ... 제주 추사관 (064-760-3406) <a href="http://blog.daum.net/mike2636/8">http://blog.daum.net/mike2636/8</a>
472	c***	RT 추사 김정희선생님의 " 가슴에 오천권의 문자가 있기전엔 붓을 들지말라" 라는 문구가 글쓰기를 멈추하게
473	배***	이훈동 기념관대단한 부자 할아버지 얼마전 돌아가셨는데 암튼 어마어마 하게 모으셨다 그림 조각상 자기까지 근데 추사 김정희 선생의 작품이 눈에 띄더라 보니 한자로 크게"무소유" <a href="http://t.co/MLJi0n">http://t.co/MLJi0n</a> <a href="http://t.co/HQUqirH">http://t.co/HQUqirH</a>
474	a***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방금 시작한 FM 93.1 <밤의 실내악> 오프닝 멘트. 추사 김정희의 말이라고 합니다.
475	S***	맞는 말! 감각과느낌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가짜들에게 내리는 죽비!RT @akaiving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방금 시작한 FM93.1 <밤의 실내악> 오프닝멘트. 추사 김정희의 말이라고 합니다
476	j***	오호라! RT @sujaelee: !!"@psw227:그렇군요RT@akaiving"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방금 시작한 FM 93.1<밤의 실내악>오프닝 멘트. 추사 김정희의 말이라고 합니다."
477	흙***	추사 김정희 "가슴속에 만권의 책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림과 글씨가된다 " 책읽다 나온구절인데 정말와닿는다
478	S***	RT @ohmynews_korea 추사 김정희가 편액을 메라고 한 까닭 <a href="http://t.co/Eevj34J">http://t.co/Eevj34J</a> <a href="http://t.co/JjPP3ec">http://t.co/JjPP3ec</a>
479	E***	오늘 예산에 다녀왔습니다. 추사 김정희 고택과 수덕사.날씨가 흐렸지만 넘 좋았네요~ 추사 기념관 생각보다 좋았다는^^ 벼루 열개를 구명내고 붓 천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노력 명필가
480	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보았습니다 지도 이런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81	박***	가보세요 RT @broadwheel: RT @csi3551: 일년에 딱두번. 간송미술관 울분전시는<사군자대전> 탄은 이정의 墨竹, 설곡 어몽룡의 墨梅, 현재 심사정의 墨菊, 추사 김정희의 墨蘭. 구구절절보다 직접... <a href="http://dw.am/LXJu4">http://dw.am/LXJu4</a>
482	M***	제주올레 10코스 중 추사김정희 선생을 기리는 사색의길...느리게 걷기 명상이 절로 됩니다^^ <a href="http://t.co/2hK7kuc">http://t.co/2hK7kuc</a>
483	C***	<a href="http://t.co/Eu9WMZW">http://t.co/Eu9WMZW</a> <a href="http://t.co/ZqKWa3e">http://t.co/ZqKWa3e</a> <a href="http://t.co/T4uElak">http://t.co/T4uElak</a> 난초는 추사 김정희와 석파 이하응이 탁월했는데. 연애를 하자치면 석파가 나왔겠더라. 붓을 놀렸다 들었다 먹을 쥐었다 냈다...밀양의 명수이신 듯. 단아하신 추사보다 난 석파가 좋다. 어떻게 취향이 바뀌지는 모르나.
484	J***	5월29일까지 간송미술관 봄전시. 사군자전. 추사 김정희의 작품도 볼 수 있다고...♥
485	혜***	가슴 속에 만권의 책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추사 김정희
486	제***	[서귀포시 대정읍] 김정희선생의 제주생활을 체험해보는 추사유배길 열림행사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네요 #jejudb #festival <a href="http://twitpic.com/4x7xj3">http://twitpic.com/4x7xj3</a>
487	정***	추사 김정희와 한 일자(-) Mr J.H. Kim ' the Chusa', and his calligraphy of a single dash "-"
488	정***	(.70 평생 동안 10개의 벼루와 천 개의 붓을 닦아 없었던 추사 김정희.)
489	정***	"그 당시에도 한석봉의 글씨가 추사 김정희 글씨 보다는 더 명필이 었다" 「 명나라 학자 왕세종이 한호의 글을 '노한 사자가 돌을 부수고 목마른 준마가 샘물로 달리는 듯하다'고 극찬한 기록도 있다.」
490	양***	@Dotbris 우리 지역에 있는 건 수덕사랑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예당저수지랑 윤봉길 의사 계신 충의사랑 추사 김정희 선생 님 고택인 추사고택...
491	제***	추사 김정희 유배길...14일 제주에서 열린다! <a href="http://bit.ly/ly5m67l">http://bit.ly/ly5m67l</a> #jejusori
492	박***	29세에 병사한 전기 작,계산포두도 ☹ 추사 김정희가 높이 평가했던 작가. <a href="http://twitpic.com/4ikrc6">http://twitpic.com/4ikrc6</a>
493	B***	인간사의 기본이 곧 가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는군요 RT @Sunnyseyun: 새겨들어서야 하겠네요..RT @ssung2286: 156년전 추사 김정희님이 자금의 엠비님께 이런글을 남기셨네요 <a href="http://yfrog.com/h0xduanj">http://yfrog.com/h0xduanj</a>
494	a***	시간은 없는데 붓은 안 나가고. 마음만 추사 김정희...
495	n***	[오늘 탄생화 나팔수선화]를 추사 김정희도 좋아하셔서 그림과 시를 남기셨네요. <a href="http://t.co/ojPvyaL">http://t.co/ojPvyaL</a> <a href="http://t.co/lrcJOKA">http://t.co/lrcJOKA</a>
496	♥***	"사람 아닌 신선의 필체" 추사 김정희도 경탄 <a href="http://durl.me/7osjr">http://durl.me/7osjr</a>
497	안***	추사 김정희선생님 고택이 있어요. RT @nemdoll: @steelroot 아...예산 가봤어요...다산 정약용 관련 무신 사당 같은 것도 있던 탕;
498	J***	ㅋㅋㅋ아나 두분 햇갈려 귀양을 오래 사서서 ㅋㅋ"@steelroot: 추사 김정희선생님 고택이 있어요. RT @nemdoll: @steelroot 아...예산 가봤어요...다산 정약용 관련 무신 사당 같은것도 있던탕;"
499	P***	추사 김정희 고택. 아름다워라. <a href="http://t.co/4XfXYOK">http://t.co/4XfXYOK</a>

연번	작성자	텍스트
500	제***	길에서 만나는 두 인물: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길을 걷는, '추사유배길'이 5월 14일에 시작된다는데... 사라봉 모충사 한 쪽 그늘에 있는 김만덕기념관. 드라마로도 나온 김 만덕... <a href="http://blog.daum.net/jejudo5353/245">http://blog.daum.net/jejudo5353/245</a>
501	따***	이참에 커피에서 녹차로 바꾸어 바야지~~! 술 담배 즐기면 녹차 마셔야 하는 이유 - 추사 김정희 집안, 종교와 녹차로 성인병을 예방하라! <a href="http://bit.ly/hbTVrz">#chyes</a>
502	토***	술 담배 즐기면 녹차 마셔야 하는 이유 - 추사 김정희 집안, 종교와 녹차로 성인병을 예방하라! <a href="http://bit.ly/fx9tC">#chyes</a>
503	k***	추사김정희 선생의 인장이라네요..불계공졸..잘되고 못되고를 따지지 않는다..왠지 마음에 와 닿는데... <a href="http://t.co/kodn4uH">http://t.co/kodn4uH</a>
504	김***	추사 김정희 고택임다 집이 주인을 닮았어요 :- ) <a href="http://t.co/eXQ7E01">http://t.co/eXQ7E01</a>
505	m***	71 선비의 표상(表象)이자 관리들의 자존심인 호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은? 유명한 추사체의 창시자 김정희. 그는 약 200개의 호를 지어 썼다. 완당, 추사, 노과 등등...
506	H***	또 다른 건축가 없는 건물 기사네요... "과천에 추사 김정희 박물관 - 중앙일보" <a href="http://t.co/P0X0P22">http://t.co/P0X0P22</a> RT와 해당 기자님께 간곡한 부탁드립니다(기사에 기자님 이름 있듯이, 건물 기사에도 당연히 건축가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
507	w***	RT @HAHNdesign: 또 다른 건축가 없는 건물 기사네요... "과천에 추사 김정희 박물관 - (cont)" <a href="http://t.co/g9tnk61">http://t.co/g9tnk61</a>
508	T***	@Leejy1012 넵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추사 김정희, 검은 나이팅게일 메리 시골, 노예제도에 긍정적이지 않았던 링컨, 바람에 진 별 시인 한용운의 삶까지.. ㅎㅎ
509	S***	RT @hjdream0606 mb 잘보시오 ㅋㅋ RT @Sunnyseyun: 새겨들으셔야 하겠네요..RT @ssung2286: 156년전 추사 김정희님이 지금의 엠비님께 이런글을 남기셨네요 <a href="http://yfrog.com/h0xduanj">http://yfrog.com/h0xduanj</a>
510	목***	중요한 건 해답이 아닌 질문이다 <a href="http://bit.ly/chEBYy">http://bit.ly/chEBYy</a> 추사 김정희의 '의문당(疑問堂)...물음표를 잃어 버린 현실.
511	K***	책을 더 읽어야 겠군어 RT @ejisung HOSU 11:53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512	J***	1. "가슴속에 오천 권의 문자가 있어야만 비로소 붓을 들 수 있다." 2. "내 글씨는 비록 말할 것도 못되지만, 나는 70평생에 벼루 열 개를 밀창 냈고 붓 일천 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추사 김정희..
513	박***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추사 김정희/논어 지식 6권 정말 잘산듯~~~ 비행기 타기전에 다 읽을듯~~ㅋ
514	바***	한겨레신문에 제가 나왔네요.. : 그들이 그 섬에 자진유배간 까닭은 경쟁-빈집함 벗고 행복 찾아 제주도 이주 젊은이 늘어 조선 후기의 천재, 추사 김정희의 재능은 9년간의 제주도.. <a href="http://blog.daum.net/inmy mind/15959454">http://blog.daum.net/inmy mind/15959454</a>
515	김***	충남에 위인들이 유독 많은 이유는 뭘까요? 개백, 최영, 충무공 이순신, 백야 김좌진, 만해 한용운, 성산문,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추사 김정희, 고암 이응노...
516	A***	앗!! W갤러리 ㅎㅎ RT @goiscf: 익산 W갤러리에서 '조우하다-조선에서 근대까지' 전시가 내일(18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직 다녀오지 못하신분 서두르세요. 창암 이삼만, 추사 김정희, 의재 허백련 등의... <a href="http://dw.am/LQT81">http://dw.am/LQT81</a>
517	Y***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붓펜을 샀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한글자,한글자를 써내려갔다. 좀 이쁘게 글이 써지는것 같았다. 그러나 다쓰고나니 열이 올라온다. 분명 쓸때는 추사김정희였는데. <a href="http://t.co/0zmqsn">http://t.co/0zmqsn</a>
518	남***	RT @jungyuny 조선시대의 대표적 명필 추사 김정희가 친구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 "내 글씨는 아직 말하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70평생에 벼루 10개를 밀창 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519	김***	추사 김정희 박물관 과천에 만든다[세계 2011.3.10] : <a href="http://bit.ly/fFB0AE">http://bit.ly/fFB0AE</a>
520	x***	철심 평생 벼루 열 개를 구멍내고 붓 천 자루를 다 닳게 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추사 김정희
521	M***	오페라를, 고전음악 감상용, 발매를, 단지 돈많고 시간 남아 돌아 누리는 취미라는 세간의 인식이 안타깝다. 아무렇게나 선택 획 그은듯한 난 치는 것도 다년간의 공력이 필요하며, 추사 김정희는 '세한도'라는 간결한 그림에 평생 간직한 자신의 고매함을
522	이***	비틀즈는 10,000시간 연습 / 추사 김정희는 붓 1,000자루 벼루 10개 / 다산 정약용은 복숭아배에 구멍이 나도록 정진 ... 어찌 아니해보고, 아니된다 하는가!
523	o***	@chodang_manim @jin_pepper @lj7080 @9z0 @kohbaby @ette7 @oho_my @anburi @dksemf @onlyarrow @jj4346 @sm_2b @ssuk7 추사 김정희 다큐 ~ 너무도 달게 봤네요 ~
524	o***	김berger가 추사 김정희에 대한 다큐를 하네요.. 오늘 엔일로 이렇게 이쁜것을?... ㅎㅎ
525	민***	놀라운 사실~~24개월 만에 세상 빛을 보게 됐다는 추사 김정희 선생^^ 어떻게 이럴수 있지??? <a href="http://yfrog.com/h27qdbj">http://yfrog.com/h27qdbj</a>
526	민***	추사김정희선생고택에 발도장 쿡! 추사고택~ @imintwt <a href="http://bit.ly/dp51T0">http://bit.ly/dp51T0</a>
527	독***	사관 유폐불가 무법역불가, 난을 치는데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된다(추사 김정희). 제가 RT해주는 원칙이 그러합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528	K***	공자가 말하기를 날이 차서 다 시든 후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알겠구나. -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 에서 -
529	x***	만권의 책을 보아야 제대로 난을 칠 수 있다고 추사 김정희는 말했다. 만권...노력하는 천재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겠지..
530	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국립중앙박물관에 2년 기탁[매경 2011.2.14] <a href="http://news.mk.co.kr/news_forward.php?no=92074&amp;year=2011&amp;twit=y">http://news.mk.co.kr/news_forward.php?no=92074&amp;year=2011&amp;twit=y</a>
531	이***	조선 최고의 명필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남긴 '마지막 글씨'인 '관전'이 서울 강남 봉은사에있다. 사진은 봉은사 사보 표지에 사용된 추사의 글씨 '관전'이다. <a href="http://yfrog.com/hs559buj">http://yfrog.com/hs559buj</a>
532	o***	학자의 소향... 추사 김정희편.. 아주 잘 봤습니다 ~
533	공***	<a href="http://plixi.com/p/76678623">http://plixi.com/p/76678623</a> 추사김정희 기념관에서 다시만난 이 슬씨 (가장 마지막 글씨)나를 울린 3대 황당 1.고호의 그림 삼나무와 별의길 2.논어 3. 그리고 이 글씨 <관전>

연번	작성자	텍스트
534	지***	@saintdarknight 다크 보고 있었지.. 아까는 추사 김정희 선생에 관한 짤막한 내용. 방금 전에는 매런 윤봉길 의사의 순고한 죽음에 딱칠한 일본군에 대한 내용. TT 그래 그때는 지금 자고 있나?
535	송***	http://twitpic.com/3y6llw 추운 세월을 겪으면서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본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제주 서귀포의 추사유배지 기념관에서...
536	H***	RT @leonard99: 이번주 일출 오전 10:00 KBS1 명작스캔들!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만나세요! 추사 김정희가 세한도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뭘까요? 정치탄압을 예술로 승화시킨 두 거장의 얘기가 펼쳐집니다. 무한 RT 부탁요!!
537	S***	RT @leonard99: 이번주 일출 오전10:00 KBS1 명작스캔들!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만나세요! 추사 김정희가 세한도로 말하고 싶었던것은 뭘까요? 정치탄압을 예술로 승화시킨 두 거장의 얘기가펼쳐집니다 무한 RT 부탁요!!
538	고***	백과율사와 추사의 뜨거운 우정 "華嚴宗主 白坡大律師 大機大用之碑" 선운산 부도전에 추사 김정희가 남긴글
539	이***	어제 오전에 방송되었던 KBS1"명작스캔들" 보셨나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을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세한도의 작품을 보고싶다구요? 제주추사기념관으로 떠나시죠:) http://t.co/yAAoIvH2
540	고***	미술 애호가인 무조 진기풍 선생의 미술품 기증 10주년 기념전이 고창군립미술관에서 열려... 추사 김정희, 강암 송성용, 소치 허련, 창암 이삼만, 남농 허건, 해강 김규진, 서양화가 진한 등 서예·미술사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들이 대거 포함되어
541	r***	추사 김정희의 고향 '예산'에 가면?
542	주***	@mmin1 절대고독의 품 안에 안기면 눈과 귀가 꽃잎처럼 열려 짐승들과 바람과 바다의 언어를 알아듣게 된다.오늘처럼 내 마음에 태풍이 몰아치는 밤이면 바다가 내게 와서 나 대신 울어주기도 한다네.-추사 김정희, 제주에서 보낸 편지 중^^
543	정***	@narcuerdo 그랬구만... 오빠야 여자들이가다.. 미아내..ㅋㅋㅋㅠㅠㅠㅠ나도 추사김정희라고 놀림받아흐크크크크
544	S***	추사 김정희 마지막 그림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 - 국립춘천박물관 - http://t.co/b3ORAKdL http://t.co/rH8GZ5l
545	S***	추사 김정희와 제주 문화 http://t.co/qJ9Omjkm
546	r***	추사 김정희 마지막 그림 '불이선란도' 보러오세요
547	m***	RT @invictus78: 나도 모르게 나를 합리화하는 글, 변명하는 글, 지장하는 글을 쓰곤 훔치 놀라는 경우가 자주있다.이런글에선 절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글쓰기는 무엇보다 먼저자신을 속이지 않는데서 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추사 김정희의 말을 되새겨본다.
548	t***	RT @invictus78: 나도 모르게 나를 합리화하는 글, 변명하는 글, 지장하는 글을 쓰곤 훔치 놀라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런 글에선 절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글쓰기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속이지 않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추사 김정희의 말을 되새겨 본다.
549	최***	추사를잊지못할이유 문자향 서권기. 그리고 세(한)도- お前は敵だああああ! 싸우자 김정희! 무승원수를졌다고, 고당때도모 자라 지금도 괴롭히나. 왜, 담지적을맨모르다 담지내고나오면 오자쓰게 생각나는건가!!!!!!OTL차리리 안때오르면 안괴로울텐데
550	서***	추사김정희의 세한도에 숨은뜻은 궁 가까이에 있는 구부러지고 썩은 노송같은 대신들 때문에 궁이 무너질 것 같다. 멀리있는 곧은 소나무는 곧은 선비들을 암시하는것 같다. http://t.co/dSFMojpm
551	생***	예전에 리움박물관에 갔다가 우연히 추사 김정희 특별전을 보았다. 흑백밖에 없는 그 종이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던지...물론 서양의 대가들의 그림도 사랑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수묵화다. 아. 너무 좋다.
552	정***	추사 김정희는 "가슴속에 만 권의 책들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553	채***	베토벤 환희의 송가, 추사 김정희 세한도 만만 시간!! 일요일 오전의 문화 생활! 명작 스캔들 분방 사수!! ㅎㅎ
554	국***	'조선선비의공간미학,사랑방'특별전에서는추사김정희의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가전시됩니다.삶과학예미치의경지를보여주는이 작품은2006년이후처음공개됩니다.http://t.co/PbFvFdR6http://t.co/a2cxcmMy
555	삼***	[SERI 오늘의 명언] 가슴속에 1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556	Y***	과연 내 가슴 속에는 몇 권의 책이? RT @seri_org: [SERI 오늘의 명언] 가슴속에 1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557	친***	언제쯤이나 1만권을 다 읽을수 있을러나 허허 RT @seri_org: [SERI 오늘의 명언] 가슴속에 1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558	J***	1만시간의 법칙과 1만권의 책 이야기라..">@seri_org: [SERI 오늘의 명언] 가슴속에 1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559	김***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러할듯..">@seri_org [SERI 오늘의 명언] 가슴속에 1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560	B***	1만권.. 음 지금껏 난 1000권정도는 읽은거같네 RT @seri_org: [SERI 오늘의 명언] 가슴속에 1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561	김***	추사를 넘어서는 시에에 관한 책인데요. 붓펜을 구입 했습니다양~(천 이백원 ㅠㅠㅠㅠ) 전에 <추사 김정희>라는 소설을 읽고 갑자기 시체에 꽃혀서 신성한 책이라죠~잉~ 그런데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흠좀 아직은 그저 "에서가 예쁘다" 정도 임니당
562	손***	11월7일=1856(조선 철종 7)년 오늘 추사 김정희 세상떠남 1876(조선 고종 13)년 오늘 한글학자 주시경 태어남 1945년 오늘 함흥만공학생의거 일어남 1950년 오늘 이발료 300원 목욕료 100원
563	김***	RT @jydaram_4988: @kgh38@NewyorkHarley 추사 김정희에게 서화수업을 받은 소치 허련이 머물렀던곳,운림산방이라네요. 한번쯤 가볼직할 명소로군요.
564	H***	네, 운림산방 기억나네요. 진도는 곳곳이 아침, 낮, 저녁으로 아름답죠. "@jydaram_4988: @kgh38@NewyorkHarley 추사 김정희에게 서화수업을 받은 소치 허련이 머물렀던곳,운림산방이라네요.한번쯤 가볼직할 명소로군요."
565	P***	오늘 물싸움이랑 최씨랑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상화의 비밀>을 봤다. 전시 잘 되어 있더라. 다만 내일이 마지막인데 함정? 그 중에서 난 추사 김정희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더 화려한 것도 많았지만. ㅎㅎ. http://t.co/m5sic60Q

연번	작성자	텍스트
566	제***	@블로그바람 > 추사 김정희 만나러 대정고을로!!!: 11월이니 축제가 많아지네요! 최남단 모슬포 방어축제, 추사문화예술제, 산지천등불축제, 길기축제, . . . . . 자자 하나씩 포스팅 하... <a href="http://t.co/2IZdyo6F">http://t.co/2IZdyo6F</a>
567	이***	지나친 기교를 추구하면 오히려 졸렬해지고 정말 뛰어난 기교는 오히려 졸렬해 보인다 - 71세 세상을 떠나기 보름전 추사김정희
568	반***	책 환권이 사람의 기분을 바꾼다. 그 책에 적힌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추사 김정희>
569	진***	오늘 범죄에서는 추사 김정희의 세면도와 안중근의사에 대해 들으며에게,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스님의 보물같은 말씀들을 들으며, 진정한 소통의 소중함을 느끼며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소통의 씨앗이 발아가 되도록 우리자신을 다독여야 겠다고...
570	h***	추사 김정희 1000개의 붓을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 박근혜// 붓이 몽당붓이 될 수 있나요? <a href="http://t.co/GpZd2lZH">http://t.co/GpZd2lZH</a>
571	휴***	@moment82 발로 쓰셨는데..이정도면..추사 김정희도 영영 울고갈듯...ㅠㅠㄱ
572	아***	#공연 추사 김정희의 예술세계를 3D로 만나! 21세기와 만나는 추사 디지털으로 11/4 과천시문화관 소극장에서 홀로그램을 이용한 영상과 춤, 소리로 공연! 추사 김정희에 대해 미리 알아볼까요? <a href="http://t.co/N58PXHgu">http://t.co/N58PXHgu</a>
573	S***	과하하하~~ 추사 김정희가 울고 갈 손가락 평평이로다! 이거슨 바로 오늘을 임하는 자세! 일은 일이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 파이팅!! <a href="http://t.co/5W57Egg3">http://t.co/5W57Egg3</a>
574	김***	歲寒然後知松栢之不彫(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 추사김정희) FTA 강행처리를 앞두고서야 어떤놈이 한나라당 간첩이고, 어떤놈이 국민의 편인지 알 수 있다는 뜻.
575	J***	그림은요? @drbyoo: "가슴속에 만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그랬구나, 그래서 나는 글을 쓰기가 이렇게 어려운거구나...
576	임***	세한도에 추사 김정희가 유배되었을 때 제자 이상적은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김정희를 돌봐주었다. 후에 세한도가 속세로 나오게된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김정희 유배지 길이 생각나는 밤이로구나.
577	A***	歲寒然後,知松栢之後彫也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 추위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시들지 않음을 안다 추사 김정희, 세한도
578	5***	뱀잡한 겨울 예고. 추사 김정희 세한도. 모든 나무가 무성하고 푸르렀던 여름날. 그땐 몰라주었던 소나무의 계절.
579	H***	추사김정희의"세한도"에 쓰인논어자하편'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추운겨울이되어서야잣나무와소나무의변치않음을안다_()_
580	K***	추위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 세한도, 추사 김정희-
581	안***	그리고 도병훈선생님께서는 미술선생님이십니다. 수업은 철학이시구요. 고호와 세간, 추사 김정희를 좋아하시나봅니다.
582	이***	그림 속에 담긴 뜻-세한도 <a href="http://t.co/d3YEgJBw">http://t.co/d3YEgJBw</a> 11월11일에 역사스페셜 보고 또 하나 귀중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위리안치에 처해진 김정희의 쓸쓸함은 얼마나 컸을 것인지 부인이 죽은줄도 모르고 그 다음 날 편지를 쓴 추사 ㅏㅏㅏ
583	y***	@edeilene 밋 진 글입니다 ,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자 대원군 이며 대원군의 난 그림 최고 입니다 , 추사의 난 그림도 좋구요
584	허***	가슴속에 1만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추사 김정희
585	H***	지난 역사스페셜 '국보 180호, 세한도에 숨은 비밀' 정말 좋네요. 추사 김정희가 이런 인물인 지도 이제야 알았네요.
586	B***	남편이랑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에 대한 다크보다...요즘 문화재 예호에 꼭 빠진 우리 젊은 영감님^^...문화재 사랑 앞으로도 꾸준히 되길...^^
587	이***	아직 길길이 까마득한 1인..RT @heosurf: 가슴속에 1만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추사 김정희
588	M***	추사 김정희 암행어사 보고서 발굴, 서체개발 가능 <a href="http://t.co/BpCFZX1g">http://t.co/BpCFZX1g</a> 추사 선생님 글씨. 아님답구나...
589	천***	조선 후기 금석학과 서예를 대표하는 추사 김정희가 암행어사로 활동하면서 조정에 제출한 보고서 친필본이 발굴되었다는 기사가 났다. <a href="http://j.mp/gXj8JK">http://j.mp/gXj8JK</a>
590	아***	#소식 제주에 가면 꼭 둘러봐야 할 곳! 추사기념관을 소개해 드린적이 있습니다:) <a href="http://t.co/yAAoIvH2">http://t.co/yAAoIvH2</a> 추사 김정희가 암행어사로 활동하며 조정에 제출한 친필 보고서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a href="http://t.co/XelCswIP">http://t.co/XelCswIP</a>
591	이***	#소식 KBS1역사스페셜 추사 김정희 "세한도에 숨은비밀"10시PM방영! 1박2일에 나오셨던 유희준 전 문화재청장님께서 현명예관장으로 역임하고 계신 추사기념관! 세한도를 닮은 꼴로 건축이 되어 있는 곳.분방사수! <a href="http://t.co/KWsj6j2T">http://t.co/KWsj6j2T</a>
592	d***	추사의 암행어사 보고서 친필본 발견: 조선 후기 금석학과 서예를 대표하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암행어사로 활동하면...기사보기 <a href="http://t.co/gwZAVxWp">http://t.co/gwZAVxWp</a>
593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란..... (서울=연합뉴스) 조선 후기 금석학과 서예를 대표하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암행어사로 활동하면서 조정에 제출한 보고서 친필본이 발굴-김규선 전문대 교수 발굴 공개 <a href="http://t.co/N0kW3wnz">http://t.co/N0kW3wnz</a>
594	h***	추사의 암행어사 보고서 친필본 발견: 조선 후기 금석학과 서예를 대표하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암행어사로 활동하면서 조정에 제출한 보고서 친필본이 발굴됐다. 추사학 연구자인 김규선 전문대 교양대학 교수는 최근 발견된 학술지...
595	이***	추사, 완당 김정희의 " 세한도" 극한, 고졸함이 나타내고자 했던 님의 뜻이 무엇일까?
596	아***	#artist 현재 KBS1에서 10시PM부터 추사 김정희!그의 생애를 둘러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어요~ 세한도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 지금 시청하세요:)
597	이***	추사의 암행어사 보고서 친필본 발견 <a href="http://t.co/bPJ8vRpI">http://t.co/bPJ8vRpI</a> 이 기사 보자마자 김정희가 암행어사인 드라마 나오면 재밌겠다는 생각부터 들더라
598	윤***	생각을 넘어서 우주와 통하는 극한의 외로움이라 평하는군요. 초의선사와 다산정약용과 교류하므로써 유희선에 통달한 추사 RT @withkal: 추사, 완당 김정희의 " 세한도" 극한, 고졸함이 나타내고자 했던 님의 뜻이 무엇일까?
599	A***	역사스페셜..... 세한도(추사 김정희) 쨌다

연번	작성자	텍스트
600	C***	아! 추사 김정희의 꿈수가 세한도에 숨겨져있구나. 놀라워라. ㅎㅎㅎ
601	아***	@pyrrhon72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모른다? 잘 모르시더라도 이번 방송을 보시고 제주 추사기념관을 탐방해 보세요~ 우리의 것을 이해한다는것. 정말 좋습니다!
602	H***	조활현 2011.큰따과여행.02. 추사 김정희 고택에도착. 근처 잔디밭에서 아침 피크닉~ ^^ http://t.co/hj3CWYg7
603	아***	#소식 10/23(일) 제주가시는 분!! 제주도립미술관 추사적거지 스케치여행! 제주해녀와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는 제주작가 양근석과 함께 추사김정희의 유배지 스케치 여행을 미리 신청받고 있다고합니다. http://t.co/kVu4nqxx
604	P***	@Deraugustinus 예산의 추사 김정희의 고택에 60대 중반 쯤 쓴것 추정하는 글, 곧 http://t.co/22FMgh8N
605	m***	RT @Deraugustinus: #booksamo 공쯔(孔子)는 "나는 색(色)을 좋아하는 만큼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공쯔의 말이 틀렸다. 충남 예산의 추사 김정희의... http://dw.am/LiOZ9
606	P***	예산의 추사 김정희의 고택에 60대 중반 쯤 쓴것으로 추정하는 글, 곧 '一讀二好色三飲酒'가 편액으로 걸려있다고 한다. 이 글을 풀이하면 "내가 살면서 좋아하는게 세가지 있는데, 첫째는 독서요, 둘째는 호색이요, 셋째는 음주다."
607	수***	조선 24대 왕인 현종은 인장 수집을 취미로 삼았다고 해요.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등 당대 명사들의 인장을 한 대 모아놓은 병풍 구경하실래요?http://t.co/DFsdYPnV
608	김***	다른사람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는 하루였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육존선경' '하라는 가르침을 나는 왜 습관처럼 행동하지 못하는지...
609	조***	구원의 모상 / 최종태: "몇해 전에 추사 김정희 서거 150주년이라 이런 지린 기념행사가 많았는데, 그런 자리에서 들었던 말이 참 와닿는 거여. 입어유법, 출어무법, 아용아법(入於有法 ... http://t.co/WET2lcHe
610	S***	홍선대원군이 사랑채로 사용하며 머물렀던 "노안당". 추사 김정희의 서체로 쓰여진 현판이 있어 그런지 힘이 느껴지고 운치있는 곳. http://t.co/trooUmoT http://t.co/lbeyBEkn
611	천***	'마당의 가을 이끼 쓸어내지 않았는데/ 바람 앞 에 붉은 낙엽 하나들 쓸러 가네/ 빈집엔 온종일 지나는 이 없고/ 고목은 머리속어 책 읽는 소리 듣고 있네 서귀포 대정읍 추사관에 걸린 추사(秋史) 김정희의 절언절구
612	화***	고등학교때도 안가던 역사 기행을 갈타ㅋㅋㅋㅋㅋ아이구 내가ㅋㅋㅋㅋ추사김정희고택ㅋㅋㅋㅋ아이구
613	Y***	사는게 깨부술 벽이 너무나 많고 힘듭니다.RT @ChungYongHwa: "삶이란 모름지기 자기운명을 깨부수며 살아가야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나의 친구 추사 김정희">http://t.co/g3c9giwp
614	신***	열심히!! RT @ChungYongHwa: "삶이란 모름지기 자기운명을 깨부수며 살아가야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나의 친구 추사 김정희">http://t.co/coqJL7f
615	S***	@your_rights 간송미술관 근처에 제가 졸업한 학교가 있어서 재학중일때는 종종 갔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건 추사 김정희 전입니다. 가고 싶네요. 저도..
616	t***	RT @smartdikai: 추사 김정희의 글씨.. 비싼 것도 있지만 서간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요. 한국미술가격정보 참고 http://koreanart21.com/common/sub03_01.php
617	M***	중국산이 그리 안좋은것만은 아닌가봐요 RT @gypseyel: 전국일주 2일차 충남 예산군 백송 추사 김정희가 중국에서 종자를 가져와 1810년에 고조부묘에 심다. 전국의 다섯그루의 백송중 하나... http://twitpic.com/3novxu
618	T***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더디 시들음을 알 수 있다 공자의 말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세한도 발문과 여러사람의 댓글을 보고 아름다움에 감탄!!! http://moby.to/3jur0n
619	k***	광해군,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길을 걷자. 제주 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사업 http://bit.ly/fdH57T
620	채***	一讀이라, 책 읽고 글 쓰고 항상 배우는 선비정신을, 二色이라, 사랑하는 사람과 변함 없는 애정을 나누고, 三酒라, 빚을 청해 술잔 나누며 세상과 인간사 얘기하며 가무와 풍류를 즐길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추사 김정희)
621	M***	RT @iskyi: 은하수 지붕에 이르니 버들 깃대 빗겨서고 / 좋은 일 아침에 있다고 촛불이 아려주는구나 / 좋은 손님 오실 때는 술과 밥이 많아야지 / 상서롭고 길한 집엔 밤 빛도 희게 비치는다 -추사 김정희 #밀줄_
622	동***	도전! 나도 명필.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최초대회가 10월 9~10일 열립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49925
623	U***	@p1lee ㅋㅋ. 혹시 추사김정희 식의 폰트가 있다면 추천. ㅋㅋ. 아마 조주청 만화가님의 글씨가 추사가 한글을 쓴다면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624	l***	@kairos81 #커피맛있당_ 추사 김정희 고택은 충남 예산군 에 있지요~!! 저희 동네예요!! ><!!까악 백송나무도 있따능..ㅎㅎ
625	유***	의문당(疑問堂):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 유배시절, 대정 향교의 유학생들 공부방인 동계에 써준 현판, 스승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항상 의문을 품고 학문에 정진하라! http://twitpic.com/2qk3cr
626	K***	추사 김정희 고택에 주련이 있는 대정마루전경 찍어오라고 고향가는 직원에 부탁...앗! 펜스치고 공사중이라네요...예산군청에 사진 좀 부탁한다고 여러번 문의했건만 돌아온 이야기는 없다는 말뿐...문화재홍보 아직 먼길http://twipl.net/Anpp
627	학***	RT @SeoulAuctionKR: #미술경매_ 9월 16일(목)에 개최되는 서울옥션 3회 Autumn-Scape 기획 경매에는 이충섭, 김환기, 이우환, 이대원, 장욱진 등 근현대미술품과 추사 김정희 서간첩, ... http://dw.am/L6x9V
628	P***	시후 후 교수님께서 선물하신 추사 김정희의 묵소거사 자란...글 참 새겨들을 글이고 좋아서 올립니다 혹 해석이 필요하시면 디엠주세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ㅎㅎ http://yfrog.com/h2zyoj
629	l***	추사 김정희 , 세한도
630	S***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추사 김정희.
631	뉴***	I love 추사! RT @ggcf_kr: '추사 김정희의 목적을 찾아서', 실학박물관 참가자 선착순 모집 - 뉴스스 http://j.mp/fe00ke
632	경***	'추사 김정희의 목적을 찾아서', 실학박물관 참가자 선착순 모집 - 뉴스스 http://j.mp/fe00ke
633	손***	오늘=1856(조선 철종 7)년 오늘 추사 김정희 세상떠남. 1876(조선 고종 13)년 오늘 한글학자 주시경 태어남. 1950년 오늘 이발료 300원, 목욕료 100원. 1979년 오늘 한국서 첫 일관성 다섯 쌍둥이 태어남



연번	작성자	텍스트
634	이***	@oisoo 겨울도 너무 깊어 아무도 찾아와주지 않는 이곳에 자네는 와주었구려. 내 그대를 위해 줄 수 있는 거라곤 이 한장의 그림밖에 없구려. 이 유배생활에 내게 힘이 되어준 자네에게 바치니, 잘 보관해주게나. 추사 김정희 <세한도>
635	D***	@MarcoLeeWoo 응 나니 그 개병신 색히;; 나 이제 추파 김동호 선생인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생각난.. @harukikafka 점심 시간에 폰 나두고 와서 찾으러 갔다왔네 ㅋㅋ 폰 잊어버린지를 종전에 알아. 트윗할라고 보니까 없어ㅋㅋㅋ
636	강***	보기에 좋다RT @rohtna: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처럼 기품있고 소박한 삶의 모습이 느껴집니다.“@wchoi0324: 하회마을의 보름달. 우리네 사는 것도 저 달만큼 둥글둥글하고 풍성하였으면.. <a href="http://twitpic.com/38t5sw">http://twitpic.com/38t5sw</a> ”
637	이***	RT @Streathampark: RT @rohtna: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처럼 기품있고 소박한 삶의 모습이 느껴집니다.“@wchoi0324: 하회마을의 보름달. 우리네 사는 것도 저 달만큼 둥글둥글하고 풍... <a href="http://dw.am/LEfF3">http://dw.am/LEfF3</a>
638	제***	제주대, 추사 김정희 선생 '길' 생긴다!...대정읍 보성리 <a href="http://bit.ly/bMf7CQ">http://bit.ly/bMf7CQ</a>
639	J***	RT @love_matilda: #미술_#그림_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말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유배를 당하게 된 김정희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 쓸쓸하고 텅비었으나 뜻뜻하다. <a href="http://twitpic.com/355yvw">http://twitpic.com/355yvw</a>
640	h***	RT @budhm: 봉은사에 왔습니다. 추사 김정희선생이 쓴 판전입니다. 판전은 경전을 보관하는 전각입니다 <a href="http://yfrog.com/na9xgvj">http://yfrog.com/na9xgvj</a>
641	손***	오늘=1613(조선 광해 5)년 오늘 한음 이덕형 세상떠남. 1858(조선 철종 9)년 오늘 추사 김정희 세상떠남. 1964년 오늘 동경올림픽출전 북한육상선수 신근단, 아버지와 14년만에 상봉. 1981년 오늘 문화영화 <한국의 얼굴> 국제영화상 수상
642	K***	@rarajini @moom1980 책향기는 분명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신경안정제같아요. 추사 김정희선생의 "서권기 문자향"이 가득한 삶은 행복하죠 ^^
643	H***	독서하기 참 좋은 계절...공감공감!!! RT @kbsuni_pd: ^^ RT @hcrystalh: RT @chocopy88: #릴줄_ " 가슴 속에 만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
644	박***	베일보내려 회사메일 열었다가 깜짝 잊고 있던 일 발견. 파리고문과 추사 김정희를 어찌 연결할까 고민할 때가 아니었다. 원래 싸야할 동양사학과 회보원고까지 마구 급해진다. 회사일부터 쳐내고, 밤 한번 대충 세분다는 심정으로 느긋하게. 그래 붙어보자~
645	김***	추사 김정희 글씨 등 26점 보물 지정 [국민일보 2010.10.28] <a href="http://j.mp/akloR4">http://j.mp/akloR4</a>
646	홍***	손님이 개 코막지않끔도 없어요 ㅋㅋ 오늘 선물받았습니다 추사김정희선생님의 작품을 따라한 작품이저! <a href="http://twitpic.com/30durp">http://twitpic.com/30durp</a>
647	박***	주말, 한승원선생의 소설[추사2]를 읽다.9년동안 서귀포의 가시울타리에 갇힌 귀양살이를 이겨내고 "세한도,추사체"를 완성한 인간김정희의 승리. 군데,군데 눈시를 붙히다. 역설:추사를 탄압한 집권 안동 김씨들 어떤 생각을 할까?
648	J***	@Modepia #미술_ 추사 김정희~박수근까지 약 100명 300작품 정도입니다^^ 선조들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끼고 있어요~*
649	娥***	RT @a001ce: 주반향초(酒半香初) ^^ RT @C1soju_tw 다반향초<茶半香初>란..차를 반쯤 마셨는데도 향은 처음과 같달라는 말입니다(추사 김정희). 향기 가득한 하루되세요. (^^) #busan #C1
650	S***	#자정_ 10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증시하락,미국상승증. 입상부의날입니다. 사랑합니다. 1856년 추사 김정희 사망, 1911 중국 신해혁명, 45년 북한 공산당 창설, 71년 북약터널 개통, 94년 넷스케이프 웹브라우저 탄생.
651	시***	추사 김정희가 즐겨 사용하던 최고의 벼루, 보령 남포벼루 <a href="http://t.co/HLkv4jH7Kv">http://t.co/HLkv4jH7Kv</a>
652	독***	지금까지 가장 많은 닉네임(명호)을 가진 학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었다고 하네요. 추사 완당 현란 보담재 동해 천동 계림 담면 병과 염웅 과오...
653	Y***	수선화가 지천에 널려 있는 겨울의 제주(수선화의나라 영국이아닌제주),제주에서 귀양살이를 했던 추사(김정희·1786~1856)가 몹시 사랑했던 단 '꽃:금잔옥데'엔 술대신향기가 가득 <a href="http://t.co/Qx0hN0Qm">http://t.co/Qx0hN0Qm</a> <a href="http://t.co/w86daHi9">http://t.co/w86daHi9</a>
654	반***	통의동 백승터 앞에 있는 주벽 담벼락에 걸려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 그림과 이품. 왜 걸려 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골목을 고즈넉하게 만들어 주는 듯. 멋지다. #서촌 <a href="http://t.co/lksBBzDyxg">http://t.co/lksBBzDyxg</a>
655	황***	세상에서 가장 큰 일 두 가지는 발갈고 책읽는 일이다(세간양민사경동)_추사 김정희 추사고택에서 찍어왔다. <a href="http://t.co/p27EjmY0tC">http://t.co/p27EjmY0tC</a>
656	김***	추사 김정희의 '침계'. 추사가 제자인 침계 윤정현에게 써준 편액으로 '침'자는 30여년의 고심 끝에 쓴 것으로 유명하다. <a href="http://t.co/FGnK99wx1o">http://t.co/FGnK99wx1o</a>
657	★***	이름의 의미: 세한도 그 세한도가 맞습니다 추사김정희 세한도요 이거 출처:네이버 사실 몇년전에 내 니~네임 지을때 소연으로 할까 세한으로 할까 고민했었을 정도로 세한도를 조야함 <a href="http://t.co/Q4CXZIUhuj">http://t.co/Q4CXZIUhuj</a>
658	한***	오늘은 @lifedh 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 명필 추사 김정희가 유배생활을 했던 곳으로 유명한 서광다원인데요~ 푸르른 녹차 밭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a href="http://t.co/7q4e7SJqbj">http://t.co/7q4e7SJqbj</a>
659	유***	【공감하는미술,힐링아트】 06.14 미술관탐방신청하세요!!●추사고택방문/성암미술관 『김정희선생과 그벗들 유묵전』/아주미술관 『(양코트)살아있는미술관』 12(수)까지.진잠도서관 홈페이지 ☎601-6592) 15,000원 <a href="http://t.co/atR1a5l8aX">http://t.co/atR1a5l8aX</a>
660	H***	@insomnia_9ball 넵. 유배지도 있고 추사관도 있고 제법 김정희 선생님 돈은 마을이예요-
661	M***	@bluepaper815 추사 김정희를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느낌은 그림이 아니라 보다 더 큰 나라 걱정인듯 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소서! 힘 내소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662	4***	으으 추사 김정희ㅁㅁㅁ
663	낮***	I'm at 추사 김정희 유배지 w/ @saxasd <a href="http://t.co/8oOCscYqnH">http://t.co/8oOCscYqnH</a>
664	J***	아 그리고 아까 김정희(추사) 뭐 읽는데 자주 거유라는 단어가 나와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입야 안된닥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유하면 보잉보잉밖에 생각 안나는게 당연하잖아!!!!
665	g***	갑자기 타임라인 사람들 추사 김정희 행.....
666	R***	한국화나 사군자 서예 등등 보러 갈 때 제일 짜증나게 노인네들이다. 이게 추사 글씨인지 나한테 물어보지 마 거기 옆에 김정희라고 써 있자네! 영감 돋보기 있자네!

연번	작성자	텍스트
667	날***	@perako94 나도 이번에 알았어ㅋㅋ한 번 가봐 거기에 흥선대원군 별장 옮겨온 것도 있고..추사 김정희 글씨도 있다
668	觀***	@ROTALON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 금동삼존불감(국보 73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국보 68호), 해원 신문복, 단원 김홍도, 추사 김정희 등 약 100여점 이런 작품들과 공간의 매칭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요. 백방 문제 생깁니다.
669	아***	클라우드님 단편집 아껴 읽을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읽어버렸다. 마지막 추사 김정희 얘기가 제일 맘에 든다. 행.
670	觀***	똥싸네 미친놈들. 캘리그래피가 서예다. 잡스랑 추사 김정희를 비교하는 우매한 짓을 하다니
671	대***	추사김정희선생추모전국회호대회 훈격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격상됐습니다. 올해 10월 개최예정인 25회 대회에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많은 분들의 참석 기대할게요~~http://t.co/Cif2R6DNLN
672	로***	예산군,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회호대회' 대통령상으로 격상되다 (http://t.co/ycF14q6Lle) http://t.co/eDzLKKW8ID
673	가***	추사 김정희 기념관. 사진 찍으면 안 된다지만 한 컷 정도는 ㅎㅎ;; (@ 추서관 w/ 2 others) [pic]: http://t.co/QpBCqIW99V
674	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작품.. 빛바랜 종이가 참 멋스럽지 않나요?^^ http://t.co/78o9VqcV6y
675	로***	제자로는 추사 김정희가 있따.
676	사***	@Offic_SamuelSeo 뜻은 제가 만들고 한자로 추사 김정희 책에서 집자해서 만들었어요! http://t.co/YJ51bkVe4t
677	m***	예전에 한국미술사 수업들올때 교수님말. 추사 김정희는 대단하긴 한데... 덕분에 우리나라 미술사가 한쪽으로만 편중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며 탐탁치 않게 여기셨지... 당대 유명한 화원들도 덕분에 이름을 가리고 활동하기도 했다고 뒤. 그런..
678	오***	@yourglim 아티스틱 하다고 해주세요.^^ 아트를 오래 하니 그게 보이더라고요. 피카소의 예로 돌아가기가 제일 힘들었다는 소리나. 마티스 후기 그림, 이중섭의 아이들. 추사 김정희의 동자채...기술을 익힌뒤 직관을 찾는 여행이 '아트'.....
679	화***	쌀 막걸리에 영문으로 rice wine 이라고 써있는데 맞는 표기인가? 그로벌한 생각에? 그냥 영문 표기로 막걸리라 하는 게 더 세계적 아닌가? 충남 추사 김정희선생의 동태에도 추사와인이라고 칭하는 술이 있던데 영~아닌 거 같다. 끼억!^^^
680	정***	국사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고3 국어 1등급 되는 학생도 추사 김정희를 모른다고 합니다. 서울대는 국사가 필수라죠. 결국 서울대 출신들이 역사지식을 지배하여 현제를 지배하기 되는 거네요. 서울대의 나라가 계속되는 거죠.
681	물***	@treekjh 추사 김정희 님이 도서관에서 커피 한 잔이 간절하셨을 때 저는 그 글 보며 커피를 내렸죠.
682	거***	추사 김정희 오타쿠가 권해주는, 책 읽는 순서, -_- http://t.co/RzmDxEonvs
683	루***	추사 김정희 할부지와 찰각 http://t.co/PmmeSinFS0
684	안***	@hyeinchung 해인님야 예쁘요 그림속의 추사 김정희님도 기분 좋으시겠다.ㅋㅋㅋ
685	C***	대학시절 씨름뜰에 있던 낙서장. 어쩌다 한번 남긴 내 글에 선.후배들이 댓글을 줄줄이 남겼다. 글씨가 너무 독특하다고 ㅎㅎ 추사 김정희 선생의 뒤를 이을 이름이야 "주희체" 휴가간 후배 책상에... http://t.co/9osATvMoMK
686	소***	@sunsuw 아니 그러지말고 추사 김정희처럼 단호 박소은이라고해
687	들***	@Dear_OnlyYou 추사 김정희가 현세에 다시 돌아오신 듯한 신내린 붓놀림
688	백***	민통당은 이런분도 낙마시킬것이다. 1.이순신을 국방장관으로 지명시 2.다산 정약용 선생 교육부 장관 지명시 3.최치원 미래부 장관 지명시 4.신사임당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시 5.추사 김정희 문화... http://t.co/cBeXc2pZDF
689	이***	추사 김정희의 일화를 소개하며 시작하는 OBS스페셜 "유배" 1부.버림받은 자들. 흥미진진함.
690	c***	@theMonologue 추사 김정희가 울고 갔다는 그 #철수체 이윤니까!? '-b 약 ㅎㅎㅎㅎ
691	K***	RT @andbooks_pub: 런닝맨, 1박2일 멤버들은 귀신같이 알아도 추사 김정희는 (cont) http://t.co/l1Ej3GL4k
692	천***	.RT @andbooks_pub: 런닝맨, 1박2일 멤버들은 귀신같이 알아도 추사 김정희는 모른다? 이... http://t.co/J2XaY2dLJW
693	천***	RT @andbooks_pub: 런닝맨, 1박2일 멤버들은 귀신같이 알아도 추사 김정희는 모른다? 이제... http://t.co/BLWbepfk2
694	a***	런닝맨, 1박2일 멤버들은 귀신같이 알아도 추사 김정희는 모른다? 이제 아이들에게 신간<교과서 속 인물여행>으로 인물과 이야기가 살아있는 생생한 신세계를 보여주세요!! RT하신 분들 중 추천을 통해 책출게용~ http://t.co/WX6QaEi9
695	팬***	RT @andbooks_pub: 런닝맨, 1박2일 멤버들은 귀신같이 알아도 추사 김정희는 모른다? 이제 아이들에게 신간<교과서 속 인물여행>으로 인물과 이야기가 살아있는 생생한 신세계를 보여주세요!! ~http://t.co/xWZOzfgu ..."
696	블***	RT@andbooks_pub:런닝맨,1박2일멤버들은귀신같이알아도추사김정희는모른다?이제아이들에게신간교과서 속 인물여행으로인물과이야기가 살아있는생생한신세계를보여주세요!! RT하신 분들중추천을통해 책출게용~ http://t.co/JAETvTW0"
697	반***	RT@andbooks_pub:런닝맨,1박2일멤버들은귀신같이알아도추사김정희는모른다?이제아이들에게신간<교과서 속 인물여행>으로 인물과이야기가 살아있는생생한신세계를보여주세요!! RT하신 분들중추천을통해 책출게용~ http://t.co/RToeCC3M
698	블***	RT@andbooks_pub: 런닝맨, 1박2일멤버들은귀신같이알아도추사김정희는모른다?이제아이들에게신간교과서 속인물여행으로인물과이야기가살아있는생생한신세계를보여주세요!!RT하신분들 중 추천을 통해책출게용~http://t.co/JAETvTW0"
699	반***	RT@andbooks_pub: 런닝맨, 1박2일멤버들은귀신같이알아도추사김정희는모른다?이제아이들에게신간<교과서 속인물여행>으로인물과이야기가살아있는생생한신세계를보여주세요!!RT하신분들 중 추천을 통해책출게용~http://t.co/RToeCC3M
700	명***	@cadirejetaime 오 머그관도 만드나용 그리고 추사김정희박물관도 좋았어요. 설명 해주시는 분이 어르신인데 엄청 박식하시고 좋았을 커진 최근에 간 건 아니지만유 ㅎㅎ
701	[***	요 꺾꺾꺾꺾 추사 김정희씨 뭐 평회한테도 딱히 던질 돌직구같은게 없다ㅋㅋ 순수한거같은면서도 실은 아닌거 같고 뭔가가

연번	작성자	텍스트
		ㅋ 나쁜건아니얌ㅋ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보면 철학적이되버리는 속깊은 아이 가끔가다보면 그냥 공금증많은 5살꼬마 @lovely_940701
702	우***	@sevenkolorz 추사 김정희
703	G***	@nunssinun99 줄 선 사람 다 해주셨어요. 전 한 증간쯤 받았는데 사인에 영혼이 없기 포르르ㅋㅋ 거의 추사 김정희 수준ㅋㅋ저기 혹시 서울 분이세요? 사실 표가 남았었는데 스스님께 여쭙 불려고 망설이다 결국 말았었다기ㅎㅎ
704	l***	[네이버] 블로그 : [신천지 관심] 매일꽃사진찍기 ♡ 우정에 관한 사자성어 / 추사 김정희 ♡ <a href="http://t.co/JPR1YLYMqW">http://t.co/JPR1YLYMqW</a>
705	O***	추사 김정희의 산수화갈지 않습미파...? 1926년의 해운대 사진이라고 함. <a href="http://t.co/2du51hUFj3">http://t.co/2du51hUFj3</a>
706	빨***	@geniushogoo 추사 김정희
707	황***	@Kimsolhee 어제 추사김정희편잘봤습니다
708	E***	131122 KBS1 파노라마 <추사 김정희 - 어느 가을 날의 여행> 나레이션 #장민혁 <a href="http://t.co/Gjzfx11Tkk">http://t.co/Gjzfx11Tkk</a>
709	K***	#조선 최초의 금석학자, 조선 최고의 정조학 연구자인 추사 #김정희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그 시대의 '마니아(Mania)' 였던 김정희의 삶을 따라가본다. [#KBS파노라마] <추사 김정희 - 어느 가을 날의 여행>11/22(금)밤10시 KBS1TV
710	광***	광주시립미술관 <인문학으로 문화 읽기> 9강 개최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 - 조선 후기 예술론과 선화세계 비교 -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2013 상록인문학강좌 마지막... <a href="http://t.co/acmCi0526j">http://t.co/acmCi0526j</a>
711	광***	광주시립미술관 <인문학으로 문화 읽기> 9강 개최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가 2013. 11. 26(화) 오후3:00 ~ 5:30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실시됩니다. <a href="http://t.co/wA3OYAxJOn">http://t.co/wA3OYAxJOn</a>
712	e***	@oisoo 아! 서화예술계에 추사 김정희가 있다면 현대 문학 서화계에 이 외수 선생님이 계셨군요ㅎㅎㅎ멋지 습니다요.뭘든지 잘하셔 찻~질투 작렬!!!!!!♡♡♡
713	수***	[인문학 정보]국립중앙박물관 토요 인문학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강연 <a href="http://t.co/FH3VjXB1Mx">http://t.co/FH3VjXB1Mx</a>
714	과***	고려 총해왕이 귀양을 자그마치 티베트로 갔다는 걸 보면... 어제 조선 때가 더 사건의 스케일들이 줄어드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가 아니라 운남성으로 귀양갔다면?... 정약용이 블라디보스토크로 귀양갔다면? 등등...;;
715	손***	10월9일=1613(조선 광해 5)년 오늘 한음 이덕형 세상떠남 1858(조선 철종 9)년 오늘 추사 김정희 세상떠남 1901년 오늘 해민원, 서울에 총혜민사 지방에 혜민분사 설치 1945년 오늘 미 군정청, 치안유지법 등 12개 일제 악법 폐지
716	나***	제24회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회대회 개최 <a href="http://t.co/ayBJn5uXMS">http://t.co/ayBJn5uXMS</a> [앵뉴스 안드로이드앱 받기] <a href="https://t.co/ikr6OpnLYf">https://t.co/ikr6OpnLYf</a>
717	죽***	@jjahn504: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계단. 디자인의 위업 <a href="http://t.co/nZiOmCrZMQ">http://t.co/nZiOmCrZMQ</a> 이거 제주도 수학여행갔을때 추사 김정희 거기 가서 봤어요!!
718	일***	근대 추바츨스 꽃무늬 로고를 살바도르 달리가 그렸으며, 초코파이 '정' 을 추사 김정희가 쓰는 거 쯤 되려나.
719	s***	@eternalfor_JH 사진을 인화하여 멤버들의 친필을 담아 보내드립니다. .... 써있네, 싸인도 친필 맞네. 추사 김정희도 아니고 친필 받기 힘든네
720	홍***	@susiayh @eternalfor_JH 알ㅋㅋㅋㅋ추사김정희에서 땡ㅋㅋㅋㅋㅋㅋ
721	빨***	송석원 글씨 옆 벼수산장 글씨. [추사 김정희 연행 200주년 기념 전시회 - 추사秋史를 보는 열 개의 눈] 도록 p.52 <a href="http://t.co/oJTPxPQ156">http://t.co/oJTPxPQ156</a>
722	한***	[뉴스과고] 제24회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회대회 성료 <a href="http://t.co/l7nu6nBpNB">http://t.co/l7nu6nBpNB</a>
723	C***	@sen7563 그러다면 형은 추사김정희*~*
724	대***	추사 김정희 선생을 추모하는 제24회 추사추모 회대회가 10월 12일과 13일 추사김정희고택(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서 열립니다. <a href="http://t.co/GEQcoKppQH">http://t.co/GEQcoKppQH</a>
725	포***	미드나잇 인 서울.. 도 있을까? 검제 정선, 단원 김홍도,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딱딱 나와서 막걸리 마시고, 가야금 소리 듣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ㅎㅎ
726	정***	메사추세추사김정희
727	위***	'추사 김정희' 찾아 떠나는 인문학 이야기 <a href="http://t.co/EePDHsg2">http://t.co/EePDHsg2</a> by @echungnam 위키기자가 '인문학 이야기가 있는 충남병가 탐방' 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728	충***	추사 김정희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이야기 <a href="http://t.co/L3McRsMF">http://t.co/L3McRsMF</a> 충남도청 '계룡도령춘월' 도민리포터가 보내온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2012 기호유학 인문학 포럼' 풍경입니다. <a href="http://t.co/kAooPaxp">http://t.co/kAooPaxp</a>
729	이***	추사 김정희는 울드스쿨!!!
730	충***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을 말하다 <a href="http://t.co/aFkt6Erp">http://t.co/aFkt6Erp</a> (충남도청 '계룡도령춘월' 도민리포터가 보내온 글과 사진입니다) <a href="http://t.co/w9FNhM72">http://t.co/w9FNhM72</a>
731	위***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을 말하다 <a href="http://t.co/9ipiUw1m">http://t.co/9ipiUw1m</a> by @echungnam 유홍준 교수의 강연이 있었던 '2012 기호유학 인문학 포럼' 행사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732	김***	제주도에서의 9박10일 그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가슴 가득 제주도를 품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추사 김정희 이야기 확인하세요. 제주도 푸른밤 9박10일(9 최종) - 대정 김정희 유배지, 에일, 제주국제공항 <a href="http://t.co/6p45eWjf">http://t.co/6p45eWjf</a>
733	김***	제주도에서의 9박10일 그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가슴 가득 제주도를 품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추사 김정희 이야기 확인하세요. <a href="http://t.co/UpqQhFhy">http://t.co/UpqQhFhy</a>
734	은***	추사 김정희에게 배우는 '창의성' <a href="http://t.co/jXDurycX">http://t.co/jXDurycX</a>
735	A***	@ozzyzzz 아..ㅋㅋㅋㅋㅋ 그럼 추사 김정희는? 한석봉은?! ㅋㅋㅋㅋㅋ 아!!..그분들은 궁서체야닌가?ㅋ



연번	작성자	텍스트
736	김***	희대의 명필, 추사 김정희 부럽지 않다능" @rhawns: http://t.co/7sZpkUzB"
737	김***	@JhFedora #92당 ㅋㅋ 추사 김정희 생각나네 ㅋ
738	권***	@senseol 옛날 위인중에 추사 김정희라는 '남자' 위인이 이씨 ㅍㅍㅍ
739	내***	@jhm9101 웨필이이름은 추사김정희.... 하...
740	O***	@destiny9108 김정일+박정희..... 가 아니라 추사 김정희가 생각나서!
741	S***	서울옥선의 썸머 옥션 페스티벌! 이우환,윤보, 등 너무 내 취향이었던 거지!! 추사 김정희의 시고는 2천만원부터 시작 반면 이우환은 6억에서 시작. 대단하다. 미술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의 만남이! http://t.co/9qksyc2w
742	부***	이제 그나마 남은 정희는... 추사 김정희 뿐인가 ---;
743	서***	추사 김정희 처가 '건재고택' 매각, 현관 하나에 일단 '스톱' http://t.co/8Me4M2Uf
744	Y***	서촌, 추사 김정희, 타임인조진 http://t.co/6tYdh5KP
745	L***	추사 김정희 고택 (chusa Kim Jeong-hui's old house) :: Kim Jeong-hui (김정희, 金正喜, born on the 3rd day of the 6th luna http://t.co/Zt9GESrT
746	L***	Welcome. :: 추사 김정희 고택에서 (At chusa Kim Jeong-hui's old house) http://t.co/ekuWdKkW
747	김***	백장사하시는 어머니와 글씨쓰기 내기한 후 쫓겨난 일화가 있는 한석봉과 쌍벽을 이루는 명필 그의 글씨 이상의 지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여행을 떠나봐요.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1) - 추사, 실존했던 문자항서권기 http://t.co/JFvDFmOY
748	그***	[ #Tistory ]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1) - 문자항서권기 http://t.co/96lBPWmO
749	저***	그러나 추사 김정희가 누구인가...
750	S***	200억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던 김관장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처갓집인 문화재 고택을 아들명의로 돌리려 했다고... 금융 자본은 타락할 수 밖에 없고 금산분리법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절대 인간은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751	나***	RT@rominate@eastman21:간송미술관2012 봄 전시회가 5월13일부터 보름 동안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간송50주기 기념 진경시대 회화대전. 아마도 추사 김정희,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의 그림들을 볼 수 있을 듯.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752	l***	@ts_cho아마도 신업이라 열정이 높은 듯한 느낌이었죠.. 그럴수록 고갱님은 더 좋지요~~~으호호.. 베이비페이스에 글씨는 추사 김정희같았던.. 글씨를 멋지게 잘 쓰던 그녀는 현대무역점에 있더라는.. ㅋ
753	꽃***	추사 김정희에 오늘밤은 맨붕
754	남***	'세한도(추사 김정희의 그림)' 기탁했던 83세, 1000억대 산림 기부 석남준 기자 입력 : 2012.04.05 03:05 송창근씨, 남산 2배 먼 적 내놔... 얼굴 전혀 드러내지 않아 50년 넘게... http://t.co/BQZZ6SYm
755	J***	'세한도(추사 김정희의 그림)' 기탁했던 83세, 1000억대 산림 기부 http://t.co/JaFoNZ4Y
756	김***	@su_suV2 나의 이름은 김정희!!!!!! 추사 김정희 헬~~
757	권***	황하하 고마워. 내본명은 김정희지... 추사 김정희... ㅎㅎ.....
758	웨***	@taehyun_0321 진짜야 ㅋㅋㅋㅋ추사김정희모르냥
759	崔***	유홍준 "추사 김정희와 내가 동급?" http://t.co/i5GzCzHu 유홍준. 스스로 추사 김정희와 동격이란다. 이런 아류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760	s***	tv 토론회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몇 표는 더 쟁겼을텐데.. 아쉬워 이런 생각도 해본다. RT @jb_1000 추사 김정희가 비문을 쓴 선운사 백파율사비! 모조품이지만 문화한의 눈에도 위대함이 느껴집니다 http://t.co/QKu9psHC
761	김***	@Fish_Hooni 어씨가 얼마 없을텐데... 나도 놀림음청받았다 ㅍㅍㅍ 추사김정희 ㅍㅍㅍ
762	김***	내이름 모르는 사람들아. 내 이름은 김정희예요 추사 김정희. 어. 존나싫어 놀리면 미워할꺼야...
763	S***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영어신문에서 배운 그런 표현을 몇 가지 옮긴다. - 김정희는 추사, 완당 등 호가 많았다. 호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지? - '메'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없다. 그림 뭐라고 해야 하나? - 대리운전사는? - 전셋값은?
764	민***	추사 김정희의 문향(文香)과 서기(書氣)를 생각하면서 http://t.co/c6gkALi3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데 이어 로고와 상징을 공개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국민을 품는 그릇이자 미소를 상징하는 입
765	세***	@Ye_G21 백범 김구, 추사 김정희
766	박***	@amoroso_ 난 짐니에 한 표** 추사 김정희ㅋㅋㅋ 글씨체 만들 수 있다니 신기하다!!!!
767	자***	@leseja00 반 만년 만에 듣는 어이-_-없는 소리네요 추사 김정희가 왜 은퇴했는지 정말 모르는 거임? @ajflRmepd 아...미안
768	G***	역대 대통령들 손글씨체 스텔을 보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글씨 엄청 잘 쓰지 않았나?? 글씨체도 있지 않나...?'까지 생각하다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병시나 ㅋㅋㅋㅋ 그건 추사 김정희 ㅋㅋ...ㅋㅋ
769	n***	@Like_breathing 미친ㅋㅋㅋ추사 김정희랑 박정희를 헛갈리나ㅋㅋㅋㅋㅋㅋ
770	초***	@koohy91 추사 김정희와 한석봉은 낙론과 원빈도 울고갈 정도의 꽃미남이였었다.....
771	L***	ㅇㅇㅇ...?RT"@mitsi_p: @koohy91 추사 김정희와 한석봉은 낙론과 원빈도 울고갈 정도의 꽃미남이였었다....."
772	밀***	굳!! RT @SAPO4126: 사는데로 적고, - 아버지, 추사 김정희, artist Key, SAPO http://t.co/qLlxPwg3
773	S***	사는데로 적고, - 아버지, 추사 김정희, artist Key, SAPO http://t.co/qfT0jMlr
774	곽***	시카고 오씨래어 RT @ggun: 버락은 호예요~ 추사 김정희, 도산 안창호, 비락 오바마 RT @rafael_kwak: @ggun 비락 오씨

연번	작성자	텍스트
775	미***	배우된 김문수 지사 "오늘은 추사 김정희로 살았다" <a href="http://t.co/ewf0oZl3">http://t.co/ewf0oZl3</a>
776	면***	추사 김정희가 된 경기도지사, 발언기는 없다! <a href="http://t.co/461hjdHj">@youtube</a> 에서
777	하***	@GH_PARK @kimmoonsool@JoonPyoHong @mjhong 배우된 김문수 지사 "오늘은 추사 김정희로 살았다"♣ <a href="http://t.co/s8v1yWD7">http://t.co/s8v1yWD7</a>
778	김***	23일 과천시 '추사 김정희와 불교' 세미나 [연합뉴스 2012.11.22] <a href="http://t.co/VAEzGoig">http://t.co/VAEzGoig</a>
779	미***	김문수 경기도지사 '추사 김정희'로 싱크로율 100% 예감 <a href="http://t.co/ZoY5OIDG">http://t.co/ZoY5OIDG</a>
780	울***	김문수 지사, '추사 디지털로그' 특별출연 <a href="http://t.co/10YdPidQ">http://t.co/10YdPidQ</a> 25일 오후 5시 국립극장 달오름에서 열리는 한희극예술단의 홀로그래프 무용극 '추사 디지털로그'에 김지사가 추사 김정희역으로 특별 출연. 전통문화 발전에도 관심많은 김지사^^
781	미***	김문수 지사, '추사 디지털로그' 특별출연 <a href="http://t.co/8CmrDULI">http://t.co/8CmrDULI</a> 추사 김정희가 제자인 우선이상적(李尙迪)에게 보내는 편지인 '세헌도 발문'을 낭독할 예정!!
782	하***	@GH_PARK @kimmoonsool@JoonPyoHong @mjhong출추는 김문수? 추사 김정희로 무용극 출연 <a href="http://t.co/xlvUUZpS">http://t.co/xlvUUZpS</a>
783	하***	@GH_PARK @kimmoonsool@JoonPyoHong @mjhong 출추는 김문수? 추사 김정희로 무용극 출연국립극장서 '추사 디지털로그'에 '세헌도 발문' 낭독 <a href="http://t.co/ApTLdMhu">http://t.co/ApTLdMhu</a>
784	글***	추사 김정희 어머니님이 우리 할머니 기계 유씨. 께는 못 속이...ㄴ다는 말을 하고 싶나.
785	한***	추사김정희
786	엑***	'놀러와' 유홍준, "진인권과 추사 김정희 오버랩되더라" @xportsnews <a href="http://t.co/UhadhIKJ">http://t.co/UhadhIKJ</a>
787	남***	추사 김정희 ;ㅁ; 멋지다... <a href="http://t.co/y8f6O4g9">http://t.co/y8f6O4g9</a>
788	림***	@lulylayla 추사 김정희와 이진희와 한송희
789	한***	추사   김정희
790	위***	SNS 습관, 추사 김정희에 배우라 <a href="http://t.co/jcLBTgnp">http://t.co/jcLBTgnp</a>
791	h***	엠네스티 양심수가 되면 김대중 아웅산 수처 급정치인 수도권에서 가장 먼 장흥교도소로 가면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급이 되는 정봉주~ 진짜 대권주자만들기 프로젝트인건가
792	Y***	@nimji88 추사 김정희의 뒤를 잇는 서예계의 다크호스 등장인가음
793	H***	@purekss 피카소+추사 김정희 선생.
794	윤***	꽃모자 쓴 할머니께서 자꾸내어께 때리며 말걸어주신 마상쇼^^ 추사김정희 적거지를 지나 이제 드터 제트보트♥ <a href="http://t.co/gdlQwqT">http://t.co/gdlQwqT</a> <a href="http://t.co/MxEgQDp">http://t.co/MxEgQDp</a> <a href="http://t.co/WcS97Vl">http://t.co/WcS97Vl</a> <a href="http://t.co/syfg7m">http://t.co/syfg7m</a>
795	m***	@ryan_moon 헬.. 오빠 거의 추사 김정희여
796	박***	무한알튀 !!! !!"@ssung2286: 156년전 추사 김정희님이 자급의 엠비님께 이런글을 남기셨네요 <a href="http://t.co/WvPqVjv">http://t.co/WvPqVjv</a> "
797	S***	추사김정희고택에서... 신발끈 묶기 귀찮아서 들고 다니는걸 찍어주세요...ㅎㅎ 묶어줘... <a href="http://t.co/MsNh6qo">http://t.co/MsNh6qo</a>
798	순***	@lov2My @yususkyy 내가더흔했ㅋㅋㅋㅋㅋ난...니가추사김정희나이했ㅋㅋㅋ
799	J***	@JiCooooo18 놀라워...이 정도면 추사 김정희를 능가하겠는걸?ㅋㅋ
800	l***	RT @jeongwh59: [보릿재] 추사 김정희가 말한 '최고의 성찬, 최고의 모임'은? <a href="http://t.co/xqs9P35B">http://t.co/xqs9P35B</a>
801	김***	@pinksukinahee 우리 원장님에 비하면 넌 추사 김정희님!
802	이***	아.. 그제 추사 김정희가 한 말이었고만.. 그러나저러나 12시가 다 되가네?! 헬.
803	국***	@seolbul 기상청에서의 개화여부 미리 체크!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만날 수 있는 '백파선사비' 맛있는 국수와 그외 맛난 먹거리들 추천까지! 감사합니다~^~ 고창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든든하시겠어요~
804	S***	@crom54 @jjunn94 @LETSGOSANG 그제 그렇게 중요해 추사 김정희 마냥 스즈에 살으려면 좋겠지어ㄷ
805	S***	#자정_ 10일(월) 하루가 생겼습니다. 날씨 좋아요. 임산부의날. 한방의날. 1856년 추사김정희사망. 1932년 이봉창의사순국. 2004년 슈퍼맨 배우 크리스토퍼리브 사망, 2010년 황장엽 비서 사망. 1994년 넷스케이프 웹브라우저 첫등장.
806	유***	♣♣♣ 오늘의 아침엔 ♣♣♣ 오늘 북한이 설립되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날이었군요~ 이 외에도 추사 김정희 선생의 일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천천히 읽어보세요^^ <a href="http://t.co/YFn3UAQf">http://t.co/YFn3UAQf</a>
807	김***	@sooah 추사 김정희... 덕주가 김정호랑 김정희랑 위인전 펴놓고 열심히 읽었는데 ㅋㅋㅋㅋ
808	김***	@sooah ㅋㅋㅋㅋㅋㅋ 나중에 추사 김정호 대동여지도를만든 김정희... 그리고 김정은 잉여
809	J***	@200chambers @weonee @lifenz @yuhs56 @brookytae @wonever @uridle7 @hearkorea @mikiwonjin @gobbi7 휴일이 휴일이 아니었습! 휴일야.. 휴일야! 추사 김정희 사진 트리밍 중~
810	토***	간송문화전 1부 3/21~6/15, 2부 7/2~9/28 일반 8000원. 정선, 신윤복, 김홍도(!!!!), 석본 한호, 추사 김정희, 훈민정음(!!!!) 등.. <a href="http://t.co/hbrwquAcFh">http://t.co/hbrwquAcFh</a>
811	***	@senseol 김정희! ㅋㅋㅋㅋ 추사... ㄸㄸㄸㄸ어영
812	***	[하나투어제주/제주관광협회]추사김정희유배지/단산등반/노리매대하축제관람: 2014년 2월 15일 토요일 하나투어제주와 제주관광협회가 으뜸동호회를 계기로 첫 산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스는 웰컴.. <a href="http://t.co/T72Cd62Lp">http://t.co/T72Cd62Lp</a>
813	***	@yowoooun 아님ㅋㅋㅋㅋ김정희 예요...ㅋㅋㅋ 추사 선생도 있지만... 김정희는 측근 중에 저 이름 하나 있었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